현대불교

제 81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2010년 11월 24일 수요일 (음력 10월 19일 · 불기 2554년 · 주간)







슈퍼스타K2 3인방, 자승 스님 예방

허각 존박 장재인 등 슈퍼스타 K2 3인방이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공정한 사회는 젊은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많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밀어주는 사람도 없이 재능과 목소리 하나로 공정하게 경쟁한 여러분의 모습이 공정한 사회의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퍼스타 K2 우승자 허각은 "제가 썩 공정하지는 않은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규칙적으로 정해진 것을 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래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이들에게 연꽃향꽃이를 선물하고,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함께 했다.(사진은 맨 왼쪽부터 존박, 장재인, 허각, 자승 스님)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삼성생명·현대차·국민은행·금감원 등

"템플스테이가 에너지다"

생산성 3.0시대 템플스테이 각광

최근 대표적인 불교 문화콘텐츠로 자리한 템플스테이 사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개신교계는 템플스테이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불교 포교에 쓰이고 있다며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2011년 정부지원예산은 약 80억 가량이 삭감됐다. 템플스테이의 위기 속에 그동안 진행됐던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을 꾀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정부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극심한 경기침체의 불안감 속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장은 이미 크게 변한 상태다. 바로 생산성 3.0 시대의 시작이다. 생산성 3.0시대를 맞은 기업현장의 변화는 대표적으로 워크샵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2000년 대 초반에는 위기극복을 위해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는 해병대 캠프 등을 체험하는 기업이 많았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만으로 이를 대체하는 대안을 찾는 기업들이 늘었다.

그 대안이 명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다.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는 여기에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생산성 향상 특화 프로그램 및 직원 감성 충족 프로그램 등이 추가된다. 특히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친 직장인들이 잠시 절에서 생활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밝힌 템플스테이 현황에 따르면 2004년 3만 6902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2008년 23만 9317명, 2009년 29만 1592명으로 매년 20%~40% 씩 늘었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도 2008년 87개, 2009년 102개 까지 매년 증가해 왔다.

이러한 성장세는 내국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은 바가 크다. 외국인의 비중은 매년 편차가 있는 반면(2008년 48.6% 증가, 2009년 3.5% 감소) 내국인은 30% 이상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내국인 참가자의 증가는 일반 참가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 단위의 참가가 늘어난데 기인한다.

그동안 템플스테이에는 국민은행·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동국대·중앙대 등 교육기관, 행정부, 방송미디어업체, 각국 대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관 등이 참가해왔다. 2010년에도 벌써 삼성생명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 기업체 10여 곳이 기업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3면으로 이어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육군훈련소 군법당 첫 삽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2012년 4월 완공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조계종 숙원사업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19일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부지에서 법당 착공식을 개최했다. 42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겸해 봉행된 법당 착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로의원 종하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종단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136명 군법사 전원과 국군불교총신도회 소속 장성 등 2000여 군포교 관계자가 참석해 불교 중흥을 서원했다.

새로 지어지는 법당은 5000㎡의 단층 극장식 구조로 정원 3500석에 최대 5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기존 법당의 2.5배 규모인 이번 법당 신축은 100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1년 6개월 동안 지어질 예정이다. 군종교구는 2012년 4월경 완공할 계획이다. 불사 후 1500명을 수용해 온 기존 법당은 장병 교육 및 휴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육군훈련소 군법당 건립에 써달라며 전국에서 모연된 불사비는 47억 5000만원이다. 이는 결혼 패물을 군종교구에 보내온 부산의 부부 불자, 군생활 급여를 모아 기부한 28사단 장병 등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금액이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익명의 불자가 총무원으로 보내온 2억원을 전달했다. 또, 원로의원 종하 스님이 3000만원을,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역임한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금일봉을 전해 힘을 보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특히 청년불자를 양성하는 군불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불교 중흥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불사가 원만 성취되도록 종단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며 사부대중도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정찬주의 행복한 禪여행 ③ 구법승들은 어떻게 중국 땅을 밟았나

복엄사와 삼생탑

산문 중앙에 천하법원(天下法院)이라고 쓰여 있다. 천하란 중국 중심의 사고로서 중국 땅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 아래의 나라가 어찌 중국뿐일 것인가. 과장이긴 하지만 중국 불법이 발원한 복엄사(福嚴寺)라는 뜻이다. 이 도량의 문턱을 백제의 현광(玄光) 스님과 신라의 본여 스님과 현성 스님도 드나들었으니 그분들의 뒤를 좇아 오늘은 내가 넘는바 분명 불연(佛緣)이 깊다. 나는 비행기로 편히 왔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이곳 복엄사까지 왔을까.

신라 사신들은 중국을 오는 데 대부분 두 개의 행로를 이용했다고 한다. 경주에서 남양만 당은포에 도착한 뒤 배를 타고 산동반도의 등주(登州)에서 내려 장안으로 가는 행로와, 경주에서 영산강 회진까지 가서 배편으로 장강 하류의 양주(揚州)나 수운교통의 요지인 초주(楚州)에서 하선한 뒤 장안으로 들어가는 행로가 그것이었다. 구법승들은 견당사(遣唐使) 배를 탔는데 무임승선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배를 탄 뒤에도 무사항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견당사는 대사 등의 관리와 경비병인 궁사, 항해사인 해사, 노 젓는 방인(榜人), 점치는 복인(卜人), 유학생, 구법승 등 수십 혹은 수백 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왕족출신의 구법승들은 견당사에 쉽게 끼었지만 신분이 일천한 구법승들은 어려움이 많았던 듯하다. 진감 혜소 스님은 노 젓는 방인을 자청하여 겨우 입당했던 것이다.

▶19면에 계속

"낙하산 인사 못 참아"

대구BBS, 본사 인사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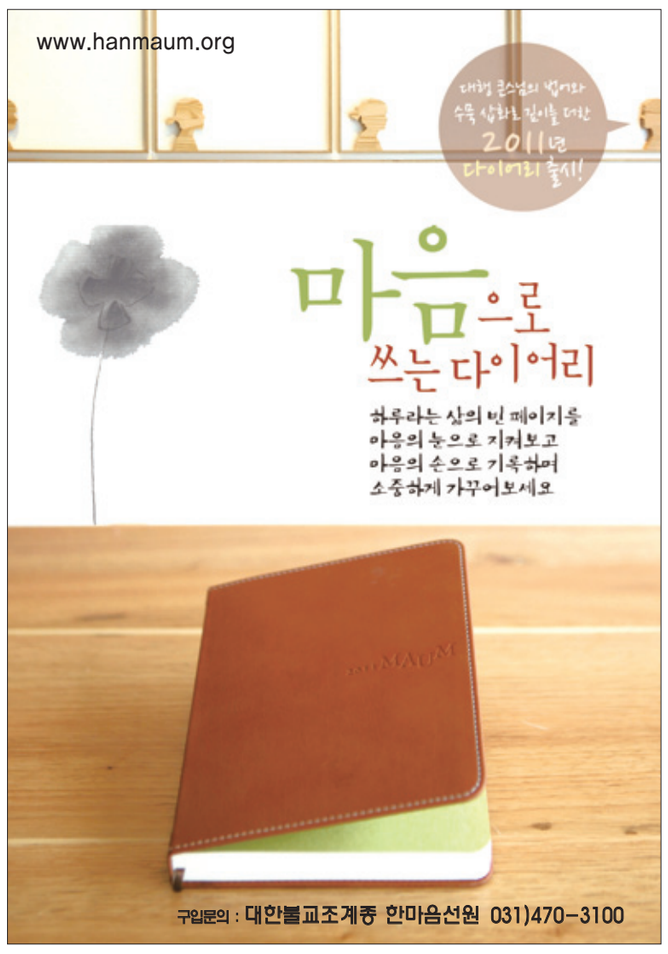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장 호성스님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인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이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총괄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낙하산 인사이며, 명백한 인사 개입"이라며 "독립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불교방송은 1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3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들은 총괄국장에 정우 스님, 본부장에 지도 스님을 추천했다.

인사 추천 공문 발송이 준비 중인 동안 본사는 17일 태관 스님(은해사 종회의원)을 총괄국장에 임명했다.

호성 스님이 "대구불교방송 운영 이사회 회칙 제7조에 총괄국장 추천 등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한데 대해, 불교방송은 "불교방송 인사규정 제3조에 '직원의 인사는 사장이 행한다' 고 맞서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net





제12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2010년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

• 일 시 | 불기2554(2010)년 12월 2일(목) 14:00 ~ 20:00 • 장 소 | AW 컨벤션센터 (구, 하림각)

PROGRAM

제1부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14:00~17:00)

주제 :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 발제1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일반 현황과 과제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프로그램 연구 (조성희,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3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직무인식과 실태 (이혜숙, 금강대학교 초빙교수)
- 발제4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종교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제2부 : 자비나눔 대법회 (17:30~18:30)

- 개 회
- 자비나눔유공자 시상 : 조계종총무원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특별상
- 치하의 말씀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축하의 말씀
- 영상보고 : "한국불교 자비나눔현장 2010"
- 축하공연

제3부 : 만찬 (18:30~20:00)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후원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TEL. 723-5101~2)
후원계좌 : 농협 053-01-263323(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6층 Tel.(02)723-5101~2 Fax.(02)739-2047 www.mahayana.or.kr

[기 고]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 민학기

이제 신도조직 네트워크다

한국의 종교지형에서 불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수승한 가르침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라는 답은 내놓으라는 질문이 아니다. 조계종 2교구(용주사) 신도회장인 민학기 변호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논의를 제안했다. 3회에 걸쳐 민 회장의 제안을 싣는다.



땅밟기 사건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이러저러한 교계 내부의 갈등을 접하는 불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역사적으로 '정교분리원칙'이라는 헌법원칙이나 '종교간 평화'라는 구호는 약자가 큰 세력에 저항할 때 사용되던 용어이다. 이제 불교계가 국가와 다른 종교를 향하여 '정교분리원칙'이니 '종교간 평화'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불교계가 그만큼 왜소해졌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4대강 개발과정에서 낙단보 마애불이 훼손됐을 때 종단의 최고행정수반이 직접 나서서 보호를 호소하는가 하면, 일련의 불교계 폄훼사건에 불자들의 상처받은 감정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더 아리게 한다.

불교계 신도단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였던가.

얼마 전 경기도의회 불자의원모임이 출범하는 자리에서 어느 고위공직자는 "1200만 경기도민 중에 불교신도는 170만명으로 16%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인 수행에 치중해 사회적인 활동에 소극적인 불자라면 16%이더라도 사회적으로 10% 이하의 영향력 밖에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적 활동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법회 참석자의 90% 이상이 여성이고 그것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앞으로 2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몇 명이나 남을 것인가. 남성 신도와 어린이 불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불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종교보다도 광범위한 진리를 설명하여 우주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부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추락했는가. 한때 성철 스님의 열반에 자극 받은 불교계는 신심이 활화산처럼 타오른 적이 있었다. 법정 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 바로 엊그제였건만, 외도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략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고 대중 속으로 전교하였듯이, 부처님 열반 후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승단을 구성해 부처님의 수행, 전교와 보살행을 그대로 이어왔다.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으면 신도들이 직접 나서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스님들은 수행과 전교에 힘쓰고, 재가불자들은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보살행을 실천하고 종단과 스님들께서 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외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이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여유가 없다. 이 땅을 대립과 투쟁의 반목에서 해방시켜 만민이 평등과 평화의 세상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불국정토의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외호해 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 스님들이 직접 외도들을 상대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불자들 스스로 힘을 합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대중사회 속으로 전파해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외도들이 불교계를 무시해가며 '땅밟기'라는 이름으로 사찰 안까지 넘나들면서 짓밟는 행패를 외도들 스스로 자제하게 하려면, 대중사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 사회적인 힘을 갖추어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신도들의 조직화와 연계, 활동적인 운영을 통해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온누리 구석구석에 고루 비칠 날을 기대한다.

불교폄훼 관련법 제정 촉구

불교사회정책硏 법응 스님 공개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에 대한 일부 기독교계의 호전적인 도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국가의 안녕 유지, 국민화합을 위해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십시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11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게 불교폄훼에 대한 공개 제안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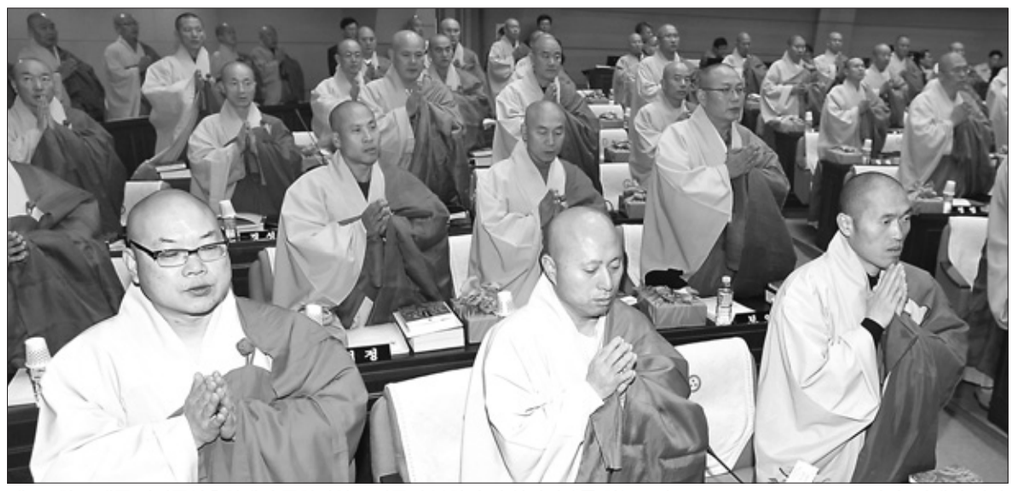
법응 스님은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 봉헌 운운 사태와 사찰이 무너져야 한다는 기도, 청와대 예배, 개신교계(특정 교회 출신) 중심의 인사,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 종교조사,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의 사찰누락 등 현 정권 집권을 전후로 노골적이며 의도적인 종교편향 정책이 오늘의 갈등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여 '기독인들에 의한 역사 퇴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기독교계의 불교폄훼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 것과 △ 일부 기독교계의 호전적 훼불사태에 대해 질타해 종교 갈등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 △바른 신앙 활동을 통한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언 기자

인사검증제도, 불교폄훼 성명서 채택 성과

조계종 제185회 정기중앙종회… 회기 단축 16일 폐회



제185회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본회의 전 삼귀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11월 16일 제15대 중앙종회 개원 종회로 열린 제185회 정기중앙종회가 폐회됐다.

제185회 정기중앙종회는 종회의장, 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외에 인사심의특별위원회 구성과 3년만의 종정감사 실시 및 보고, 불교폄훼 관련 특위 및 성명 채택 등 성과를 이뤘다.

인사 심의 특위 구성

중앙종회는 인사심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번 회기부터 종회에서 추천·선출된 인사를 대상으로 인사특위에서 자격을 심의하기로 했다.

인사특위 위원장에는 종회의장 지명으로 지홍 스님(무소속)이 선출됐으며 주경 일문 덕문 원경 태관 스님 등 각 종책모임 별 종책위원장과, 의장단이 추천한 태연 대오, 비구니 일운스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불교 폄훼 대응 나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계의 불교폄훼에는 중앙종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나선 것도 주목된다.

중앙종회는 이번 정기종회에서 '정부의 종교차별 종식 및 국내 종교평화 확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주경 스님이, 위원은 9인으로 활동기한은 4년이다. 위원은 위원장과 종회 의장단이 위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교폄훼에 대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향적 스님을 위원장으로 불교 규제관련 국가법령 제 개정 및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은 11인으로 활동기한은 2년이다.

회기 단축 관례화 문제

중앙종회는 11월 16일 불기2555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폐회했다. 2011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은 일반회계 218억 4000만 원과 특별회계 105억 4000여 만원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서는 결계와 포살 미필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결계및 포살에관한법 개정안, 독신 군승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강원을 선학 전문대학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교육법 개정안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 밖에 종무원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승려복지법 제정안은 이월됐다.

초선의원들의 대거 입각으로 기대를 모은 185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여전했다. 특히 17~18일 수능기도로 인해 무리하게 회기를 단축시켰다. 회기 단축으로 각종 법안은 이번에도 이월돼 아쉬움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특보단장 정념 스님

불교신문 사장 수불 스님, 주간 장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 단장에 정념 스님(중앙종회의원, 前 낙산사 주지)이 임명됐다. 스님은 재무담당 종책특별보좌관도 겸직한다.(인터뷰 4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종무회의에도 참석해 종단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눠달라"고 말했다. 특보단장은 사서실 설치령에 의해 임명된다. 종무회의 참여시에는 발언권만 있을 뿐 의결권은 없다.

이에 앞선 16일 불교신문 사장에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을, 주간에 장적 스님을 임명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담당특보에 무애 스님, 불교연구소 설립 담당특보에 태연 스님,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담당특보에 성효 스님, 종단 전산화 담당특보에 정범 스님, 승가복지 담당특보에 초격 스님을 임명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소신있게 하겠다"

무소속 의원 각오 밝혀

지홍 스님(직능대표) 지현 스님(고운사) 법안 스님(직능대표) 적천·삼해 스님(월정사) 성우·원혜 스님(금산사) 등 7명의 무소속 종회의원 스님은 11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활동에의 각오를 밝혔다.

무소속 스님들은 이날 '제15대 중앙종회 계파에 속하지 않은 종회의원들의 입장' 제하의 글에서 △종헌종법 준수 풍토 조성 △건전한 토론과 소통, 화합 상생의 문화 조성 △소신 있는 입법활동 전개 등 7개항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봉 행

財團法人 大韓佛教 一鵬禪教宗

第4世 宗正 慧松堂 鵬海 大宗師 49齋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0월 11일 열반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세 종정 혜송당 붕해 대종사의 종단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및 사회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다시한번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어느 덧 큰스님의 49재 회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회향일 : 불기 2554(2010)년 11월 28일(음 10. 23)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호불사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65-2)

❖증 명 : 금봉, 무찰, 청송
❖고 문 : 명종, 원각, 도기, 수암, 송은, 혜천, 법운, 혜성,지산,
❖호 상 : 용암, 법성, 법해, 석성, 해동, 혜광, 법선, 도안 의륜,
❖장의위원장 : 화엄
❖지 도 위 원 : 용운, 지언, 법영, 보월, 무상, 지현, 현암, 김지현, 보해, 동청, 영우, 광은, 승원, 고봉, 용주, 삼주, 지운, 경운, 상원, 광명심, 영수,
❖장 의 위 원 : 덕봉, 재성, 정일, 도정, 만성, 혜일, 자명, 경담, 자견, 지연, 대각, 도허, 경담, 일운, 지우, 일명, 이붕, 대원, 청정심, 보현, 정행심, 불심행, 법연, 령신, 천공, 선행심, 금비 청정심, 무경, 법광, 무상, 보리심, 청호, 자운, 해월, 지산, 법연, 승법, 성각, 도우, 금진, 천도, 문수, 혜관, 현담, 대성, 제법
❖문 도 대 표 : 경원, 대원, 붕원, 청원, 기원, 혜성

(財)大韓佛教 一鵬禪教宗 宗正 慧松堂 鵬海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臨終偈
春山日出照千里
(춘산일출조천리)
秋峯葉盡藏眞心
(추봉엽진장진심)
生死涅槃是虛夢
(생사열반시허몽)
落霞老松孤雁歸
(낙하노송고안귀)

봄 산능선에 해가 떠서
온 세상을 비추고
가을 봉우리는 옷을 벗고
참된 마음 보여주는 구나
생사열반이 허망한 꿈이려니
저녁노을이 노송에 비추고
외기러기는 귀향길 나르네

悟道頌
不知晝夜過日月
(불지주야과일월)
流水啼鳥聞處處
(류수제조문처처)
開戶四山萬花笑
(개호사산만화소)
十方世界光明輝
(시방세계광명휘)

낮밤 모르도록 시간이 지났는데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산새소리 곳곳에서 들리네
문을 열치니 온 세상에
꽃들이 웃고 있고
시방세계에 광명이 비치네

“알면 뭐하나, 실천해야지”

동안거 결제 맞은 법주사 총지선원 월성 스님


범주사 총지선원 선덕 월성 스님이 동안거 결제를 맞아 방부를 들이러온 수좌들을 맞고 있다.

11월 20일 경인년 동안거 입재를 앞두고 운수행각에 나섰던 납자들이 하나 둘 산문으로 모여 들었다. 해제 기간 마음껏 세상을 품고 온 스님들은 이제 시작되는 3개월의 동안거 기간 동안 용맹정진을 통해 ‘나’를 품으며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으리라.

동안거 입재를 이틀 앞둔 18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에서는 안거를 방부를 들인 선객 맞이에 분주했다. 속세의 온갖 탐욕을 멀리 떠나 있다 하여 속리(俗離)라 불리고, 법이 머물러 법주(法住)라 불리는 속리산 법주사는 선지식인 금오 · 추담 · 월산 · 탄성 스님 등이 주석했던 고찰이다.

이번 안거에 법주사에는 큰절의 총지선원에 26명, 복천암 선원에 10명, 비구니선원인 수정암선원에 14명, 탈골암 대류선원에 15명, 공림사 감인선원에 13명 등 70여 납자들이 방부를 들이고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총지선원 선덕 월성 스님과 선원장 덕암 스님이 산문을 들어서는 납자들을 맞았다. 이곳을 찾은 결제대중은 안거 동안 새벽 3시~오후 9시 하루 10시간 참선과 방선을 해야 한다.

총지선원 선덕 월성 스님을 만나 총지선원의 유래를 물었다. 스님은 금오 스님을 13년간 시봉했고, 법주사에 40여 년을 머물며 복천암 선원장을 맡고 있다.

“선방 이름이 다 똑같으면 안되니까 붙여진 이름 일 뿐”이라면서도 “총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 따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월성 스님은 “세간의 공부는 말 · 글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공부이지만 선은 마음을 찾아 부처가 되는 공부”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은 형상이 없어 말 · 글로 표현되지 않으나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놈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좋고 나쁜 것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 마음을 쉬면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그 것이 내 본심(本心, 마음자리)이다”라고 덧붙였다. 길흉화복이 모두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기에 마음은 모든 결과를 만드는 종자라는 법문이 이어졌다.

월성 스님은 “이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남이 무엇이라 해도 진리만 좇아 산다면 진리를 빨리 깨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나’라는 생각조차 던져 버리고 공부에만 매진하라는 말씀이었다.

스님은 “재가자들은 수시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라”면서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으면 괜히 찾아와 나만 괴롭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과거가 우리가 사는 현재 모습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지에 따라 미래 · 내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며 “이 셈법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로 법문을 마쳤다.

11월 20일(음력 10월 15일) 불기 2554년 동안거 입재식이 100여 조계종 선원을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2200여 수좌를 비롯한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퇴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에서 “참선공부는 한 땀 한 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에 온 천지를 불태워버리는 공부법이다. 결제라고 하여 고요한 경계에만 스스로를 묶어두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활발발한 선기(禪機)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썩은 물에 잠겨있는 것과 진배없다”며 치열한 정진을 당부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가 에너지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기업 부른다

☞1면에서 계속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일반인들 중에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수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찾게 됐다고 밝히는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효과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 부족, 전문 특화 프로그램 부재

기업체 차원의 참여가 늘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2010년부터 기업체 참가 현황을 집계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는 타종교계가 지적하는 정부예산 의존, 수익구조 개선, 홍보활성화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명상과 상담 컨설팅 등이 함께 진행되는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해 불교계가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기업체에서의 호응 또한 좋다. 2009년 백양사서 간부직 600여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삼성광주전자 이용윤 인사과장은 “불교문화가 직원 감성회복 및 사기진작으로 창조경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시설 문제다.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현황에 따르면 인제 백담사(300명 수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300명 수준), 김천 직지사(100명 수준)를 비롯한 주요 교구본사(50~70명 수준)를 제외하면 100~1000명에 달하는 기업의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하다.

기업 연수는 100~1000명 규모로 진행된다는 것을 볼 때 일선 사찰에서는 최소 3~5회 씩 나눠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윤영희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팀장은 “보통 기업체는 각기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로 연수를 오는 경우는 전통사찰에서 불교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기 위함인데 전통사찰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는 전문 특화 프로그램의 부재가 꼽힌다. 지난 2009년 3월 개최된 제1회 템플스테이 학술제에서 발표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세부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내국인들에게 가장 낮은 점수(3.83)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백담사가 진행하는 기업형 특화 템플스테이는 눈길을 끈다. 백담사는 6월 11~13일 수입차업체인 ‘더클래스 효성’를 시작으로 11월 4~5일 금융감독원 임직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백담사 특화 프로그램 첫 시도

백담사 템플스테이가 특별한 부분은 자체 연수국과 자회사 격인 연구기관 만해행복아카데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 맞춤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까지 2주가량이 걸린다. 기업 참가비는 1인당 35~50만원 수준으로 일반인 참가비보다 월등히 높다.

템플스테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점 사찰의 대규모 숙박시설 외에도 사업단과 종단 차원의 전문가 양성 및 전문연구과정을 개설하고 컨설팅 등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덕현 기자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⑦



저출산, 비상 걸어야 한다

많은 불교교역자들이 사찰성장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교회에서 하듯이 문 앞에 전단지를 걸어둘까, 길거리 포교를 해볼까 등의 고민도 한다. 그런데 반추해보면, 이러한 고민들은 대개 알게 모르게 신도수의 증가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사찰성장이 양적 성장이라고 여기고 하는 고민들인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사찰성장’이라고 하면 신도수의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을 먼저 연상할 것이다.

나 역시 사찰성장의 기본전제는 신도수의 증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뭇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자 사찰을 일단 찾은 연후에야 비로소 불자로서의 성숙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 나는 사찰을 성장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양적 성장에만 경도되어 기도와 수행 그리고 포교와 봉사 등과 같은 불자로서 보다 본질적인 성장인 질적 성숙을 가벼이 여기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됨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찰성장이라는 용어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먼저, 양적 성장이란 개체 사찰의 신도수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사찰의 외형 규모 확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전입성장으로 인한 단위 사찰 신도수의 증가에 매혹되어서는 안 된다

신도수의 증가는 근본적으로는 기존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세상에 홍포(弘布)함에 따라 새로운 신도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장을 종교학계에서는 생물학적 성장, 전입성장, 회심성장 등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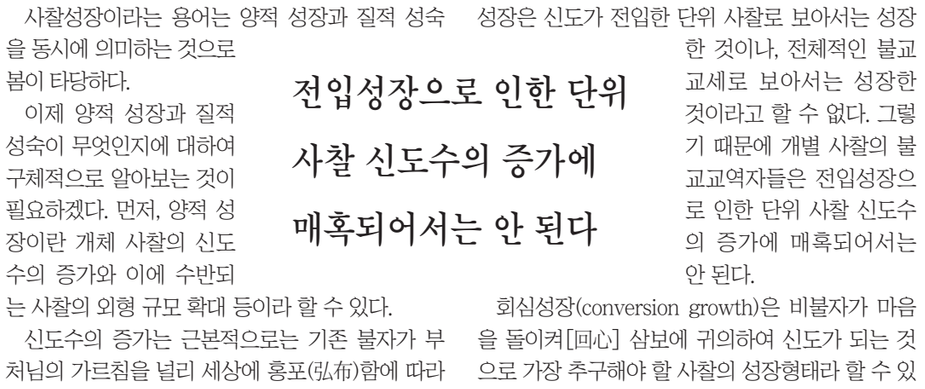
생물학적 성장(biological growth)은 부모의 종교를 계승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불자가 됨에 따라 신도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 출산문제로 비상이 걸려 있다. 평균 출생아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1970년에는 100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53%이었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 2003년에는 1.19%인 49만 3천 명, 2020년에는 38만 명, 2050년에는 22만 9천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균 출생아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향후 불자 수의 감소도 초래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생물학적 성장은 간혹 국가의 정상적인 인구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자녀들은 신심이 두터운 불자가 되나, 일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다른 종교를 갖게 되거나, 결혼을 통해 다른 종교 공동체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찰이 생물학적 성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이 세상에서 불자의 비율은 점점 더 낮아질 여지가 많다.

전입성장(transfer growth)은 다른 사찰의 기존 불자가 이사 또는 특정 사찰에 대한 선호 때문에 사찰을 옮겨옴으로써 신도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입사찰의 신도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전출사찰의 신도수는 감소한다. 전입성장은 일면 다른 사찰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사찰성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필자는 불교계의 전입성장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630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사찰에 다니기 전 종교 배경을 물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다른 사찰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5명으로 43.7%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전입성장은 신도가 전입한 단위 사찰로 보아서는 성장한 것이나, 전체적인 불교교세로 보아서는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찰의 불교교역자들은 전입성장으로 인한 단위 사찰 신도수의 증가에 매혹되어서는 안 된다.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은 비불자가 마음을 돌이켜[回心] 삼보에 귀의하여 신도가 되는 것으로 가장 추구해야 할 사찰의 성장형태라 할 수 있다. 이 회심성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돌이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찰은 포교[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를 통한 성장을 당위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회심성장에 힘써야 한다.

이와 같은 회심에 의한 감소는 주로 깊지 않은 신심 또는 사찰과 스님에 대한 낙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명목뿐인 불자들의 경우 쉽게 회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불자의 33.1%가 연 1~2회 정도만 사찰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22.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조사 자료는 타종교로 전향할 회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불자가 많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일 주 문



진각복지재단 직원연수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혜정 정사는 11월 13~14일 제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전체직원연수를 개최했다.



옹산 스님 국군간호사관학교 수계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11월 23일 대전 호국약천사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일타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다례재

경산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11월 2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일타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로터스월드 후원의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11월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로터스월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광주불교사암연 회장에 성오 스님

마하보리사 주지 성오 스님은 11월 17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창복지관 장수위안잔치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관장 도완 스님은 11월 17일 복지관에서 장수위안잔치를 개최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캄보디아 봉사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12월 22~29일 캄보디아 오도르민쩨이주 삼롱시 카세테뽀띠봉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덕현 스님 맑은세상 특별 강연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현 스님은 11월 26일 대구 프린스호텔 2층 리젠시 홀에서 열리는 '제4회 맑은 세상 한마당 대구 나눔잔치' 에서 특별강연한다.



맑은소리맑은나라 사진전

김윤희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는 11월16일 부산 영과도서 갤러리 에서 사진전을 열고 〈폐사지에서의 발견 여래를 품다〉발간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국악원 영산재 공연

박일훈 국립국악원 원장은 11월 27일 국악원 우면당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를 공연한다. (02)580-3300

"불교 박물관 현실부터 살핀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 선 스님

"성보문화재를 통해 종도들의 신심 고양과 불교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 박물관 현실을 진단·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직지사 성보박물관장·사진)은 11월 15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은데 이어, 16일 불교중앙박물관 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본사는 직지사. 1974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직지사성보박물관장 소임을 12년간 맡아 왔다.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도 지낸 스님은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과 함께 종단의 문화재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흥선 스님은 "출가해 자연스럽게 성보문화재와 지내왔다. 문화재 관련 일들이 전공(동양사)과도 잘 부합됐고, 계기가 주어져 일을 해 왔다"며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전임 관장인 범하 스님이 해왔던 일들을 잘 계승해 나가겠다. 불교중앙박물관 일은 처음이니 만큼 차분히 살펴 신중하게 할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흥선 스님은 불교계의 성보문화재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는 자격과 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종도들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종단의 재정 지원도 인재 확보를 위한 필수요인으로 꼽았다. 스님은 "▷성보문화재 인식 향상과 ▷인재확보 ▷재정 확충 이 세가지는 지방 사찰에서 운영 중인 성보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으로부터 불교중앙박물관장직을 제안 받는 자리에서 박물관에 바라는 점을 묻자 자승 스님은 '좋은 전문가를 발탁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말했다"며 "불교중앙박물관과 성보문화재와 관련한 종단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5일 임명식에서는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도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에서 "보좌진들로부터 10여 명의 인물을 추천 받았으나 흥선 스님만큼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적합한 인물은 없었다. 또, 미등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직을 1년 여 수행하면서 소장직 수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다. 종단의 문화재 관리과 조사·연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1986·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일면 스님이다. 본사는 봉선사. 현재 포천 흥룡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불교학 수준 한단계 높이겠다"

불교학연구회 박 경 준 회장



"'생산적 소통·화합'의 장을 만들어 불교학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11월 13일 한국외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사진)가 만장일치로 7대회장에 선출됐다.

박 교수는 "전공분야(불교학)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것이 학회 존립의 이유인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회의 공식적 모임을 가지는 것 외에도 소모임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주 모여 생산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학연구회는 학회 창립이후부터 정기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자의 논문에 2명의 논평자 가 참여토록 해 논평하도록 하고 해당 발표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대회는 논문발표자의 일방적 발표로 진행되는 데 비해 불교학연구회의 진행은 새로운 시도다. 이후 불교학계에서는 '논평이 없으면 엉터리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교학연구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풍토가 됐다.

박 교수는 "이런 전통을 살려 열린 토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불교학 수준을 높이겠다"며 "해주 스님·이중표 교수·본각 스님 등 역대회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이끌어와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불교사회경제론을 전공한 박경준 교수는 실천응용분야의 학문도 다뤄볼 계획이다. 그는 "개인의 안심입명, 열반·해탈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사회적 실천도 중요하다. 불교의 사회화 이론에 대해 구체적 실천과 방향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설, 윤회설 등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와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기획주제도 다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경준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인하대 강사 등을 거쳐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불교문화연구원장, 에코포럼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평론〉 편집위원장과 '풍경소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불교사회경제사상〉〈아시아의 참여불교〉 등이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원시불교의 사회·경제사사연구' '불교 공업설의 사회학적 함의' 외 다수가 있다. **이나은 기자**

"10년 고생해야 100년 내다볼 수 있어"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정 념 스님

"불교계 발전을 위해 늘어나는 종단 사업을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도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내겠습니다."

1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재정특보 겸 종책특보단장에 임명된 정념 스님(중앙종회의원)은 임명장 전달식에 이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불교가 사회·문화·복지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연구소·사업 등이 필요하다"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히 준비해 종단의 종책이 꾸준히 실천될 수 있는 재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분담금을 인상해 재정을 확충하는 현실은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라며 "종단의 여러 수익사업을 하나로 모아 신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신도의 신심도 깊어지고, 신도교무금 수입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신도 한 사람이 1달에 1만원씩 1년에 12만원의 신도교부금을 내고 연간 500~600만원의 혜택을 종단에서 받아간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념 스님은 대중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아 큰 원력을 이루는 경험을 낙산사 화재 복구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다. 스님은 "낙산사 복원 불사는 어느 한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낙산사를 찾은 불자·국민이 기와 한 장이라도 마음을 모아 이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지금 10년을 고생해야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다"며 "특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미래지향적인 종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장·재무부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설악산 봉정암 주지, 양양 낙산사 주지 등을 거쳐 현재 종책모임 법화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경주캠, 신기숙사·사라림 착공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교내 신기숙사 신축현장에서 '신기숙사 및 사라림 신축 착공식' 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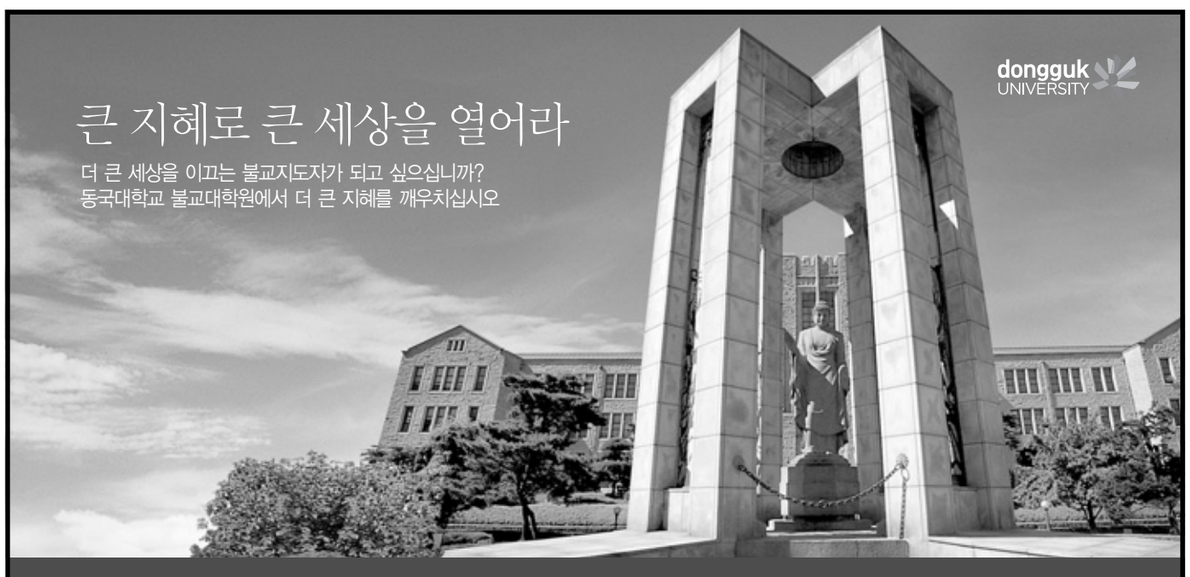
이날 착공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이사 성타·수인 스님과 손동진 경주캠퍼스 총장, 최양식 경주시장, 김일헌 경주시의회 의장, 박병훈 경주동창회장, 시공사인 LIG(주) 강희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기숙사는 면적 1050.63㎡(318평)에 연면적 6666.28㎡(2017평)로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171실(2인 1실)을 갖추고 342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라림 기숙사는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위한 수행관으로 면적 316.24㎡(96평), 연면적 1373.45㎡(416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이며, 1·2인실, 다인실 등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기숙사 착공으로 비구니 스님 수행관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주캠퍼스가 지역의 으뜸 대학을 넘어서 국내 우수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착공된 신기숙사는 내년 8월 말, 사라림은 내년 5월 말 준공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교	차문화컨텐츠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전 공	불교학, 선학	다도·제다	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모집인원	00명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11. 8(월) ~ 26(금)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0. 12. 4(토) 10:0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1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각 불교 종단의 스님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특 전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의 상제례사 인증 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 시 입학금 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96, 3097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생지장도량 철원심원사 49일 특별천도재

〈 유산아(낙태아) 및 자살자 영가 49일 특별천도재 〉

1. 유산아(수자령) 및 자살자 영가 천도만은 꼭 해줘야

유산아(수자령)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중에서 죽은 것이기에 이승의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태아령은 빨리 삼도천을 건너서 불계에 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공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천도해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입니다. 비록 이름 없고 세상에 햇빛을 보지 못한 유산아, 사산아 일지라도 불교적 생명관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한 생명체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성으로 천도하고 영혼을 달래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이란 자신이 받은 소중한 옷을 스스로 찢는 무거운 죄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에 죽지 못하고 미리 죽은 영가들은 극락세계와 단절되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지 않는 한 왕생할 수 없으며 구천을 떠돌다가 자기 명이 다해 죽을 때가 되어서야 환생한다고 합니다. 자살 업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영가 중에 가장 무섭게 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자살 영가님을 천도해 드리면 어떤 조상신보다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막아주고 우리에게 복덕과 지혜를 주는 복 신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생지장도량 철원 심원사에서는 유산아(수자령) 및 자살영가만을 위한 특별 천도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다같이 동참 하시어 이 세상 빛과 이름을 갖지 못한 우리의 유산아 수자령(낙태아)영가님에게 불명(이름)을 지어주어 속세의 한없는 미련을 떨치고 서방정토에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천도공양에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시고 제사에 참석하지 못해도 정성껏 기도합니다.

2. 유산아(수자령) 및 자살자 영가 49일 특별천도재 일정

- **입재 : 2010년 12월 19일 (음 11월14일) 일요일**
- 초재 : 2010년 12월 26일 (음 11월 21일) 일요일
- 2 재 : 2011년 1월 2일 (음 11월 28일) 일요일
- 3 재 : 2011년 1월 9일 (음 12월 6일) 일요일 **(구병시식)**
- 4 재 : 2011년 1월 16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 5 재 : 2011년 1월 23일 (음 12월 20일) **(구병시식)**
- 6 재 : 2011년 1월 30일 (음 12월 27일) 일요일
- **회 향 : 2011년 2월 6일 (음 1월 4일) 일요일**

※ 3재와 5재때 토요일 철야기도 후 새벽 2시 제사에 구병시식을 합니다.

- 행사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철야기도 합니다.
- 기도동참금 : 수자령 1위에 7만원 + 2위부터 1만원씩추가
- 농협 : 238-01-199000. 국민은행 : 324501-04-042961. 농협 : 301-0052-7696-91 (수자령, 예금주 : 심원사)

공양미 5kg이상 올리시면 영가와 가족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 **교통편 〉〉 버 스 편 : 행사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일요일 아침 7시에 조계사 앞에서 심원사행 버스출발**
차량예약 : 장묵기사 011-263-7809 / 홍보살 019-9406-4406 (차량배차관계로 미리 예약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철원 심원사 전화 033)455-5882, 455-3468 팩스 033) 455-0419

탄허 스님 선양사업 본격 시작

기념박물관 26일 개관… 한학전문연구소도 개원

탄허 대종사 기념박물관이 11월 26일 문을 연다. 탄허 대종사 기념박물관은 한국의 고승이자 불교 학자인 탄허 스님의 뜻을 널리 펴기 위한 공간이다.

탄허 스님은 191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22세에 평창 상원사에서 출가했으며 1983년 타계했다. 스님은 역경에 있어 첫 손에 꼽힌다. 스님은 조계종 중앙역경원 초대원장으로 재임하며 불경의 한글 번역에 앞장섰다. 스님은 유·불·선 삼교(三敎)에도 통달한 한국 불교의 대학자로 꼽힌다.

박물관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자곡동 그린벨트 내에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은 직사각형 모양의 외관에 전통 사찰의 느낌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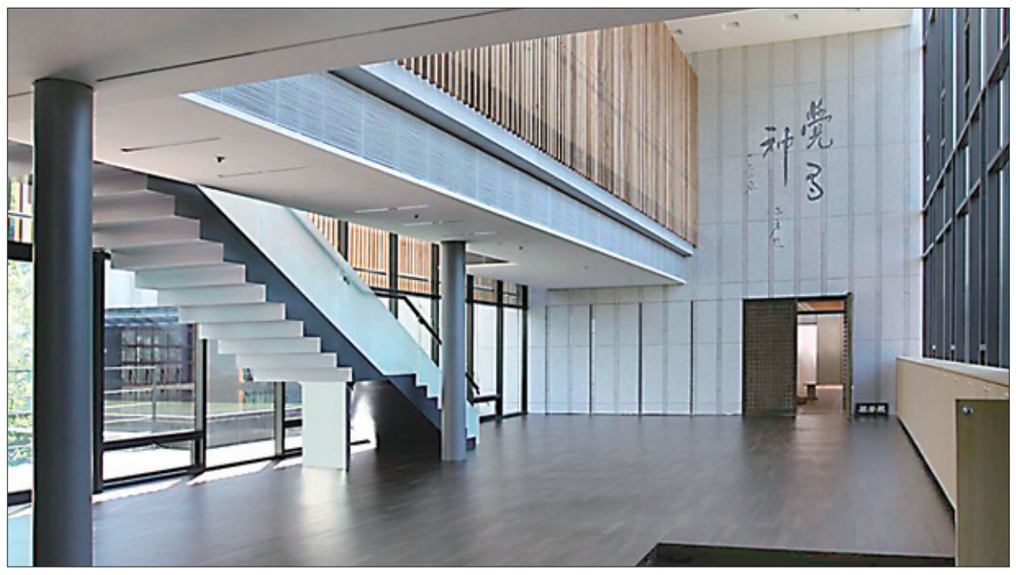
건평 450평에 4층 건물로 된 탄허박물관은 건물 외벽에 금강경을 실크로 한자씩 새겼다. 또 건물 2층에 위치한 법당은 기둥이 없는 구조로 지어졌다. 탄허 스님 법명 가운데 '虛' 자를 표현한 것이다. 기념관 입구에는 108개의 기둥으로 번뇌를 버리라는 의미를 담았다.

안에는 탄허 스님이 출간한 15종 74권의 저서와 140점의 서예, 비명 탁본, 사진, 유물 등과 함께 스님이 소장했던 고서 4000여 권이 전시된다. 탄허 스님의 유지대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박물관 외에도 법당, 교육관, 강사실, 강의실도 마련됐다.

기념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사상적으로 직접 배우고 느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혜거 스님이 박물관 건립을 시작하면서 설계자에게 주문한 것은 전통사찰의 현대적 해석이다. 탄허박물관은 용산 전쟁기념관을 설계한 건축가 이성관 씨가 설계했다. 탄허박물관은 개관 전부터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고 최근 서울시 건축대상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아왔다.

혜거 스님은 50년 전 탄허 스님과 그 제자들이 약속했던 '10년 결사도량'을 설명했다. 스님은 "1958년부터 61년까지 영은사를 3년결사도량으로 삼고 탄허 스님이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후일 다시 모여 10년 결사를 맺자고 약속했다. 결국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박물관 뒤에 결사도량으로 금강선원을 신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11월 26일 서울 개포동에 개관하는 탄허대종사 기념박물관 내부 모습. 탄허기념관은 전통 사찰의 현대적 해석으로 최근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시 건축대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탄허박물관 내에 '한학전문연구소'도 개원할 계획이다. 스님은 "유교에는 지곡서당 같이 좋은 한문교육기관이 있어 그곳의 출신들이 한문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불교계에도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스승의 뜻을 잇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혜거 스님은 1959년 삼척 영은사로 출가한 뒤 탄허 스님 수하에서 직접 경전을 배웠고,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도 함께 했다. 현재는 강남 금강선원 원장과 탄허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정화운동 기념사업회 발기인 발족

24일 정화운동 50주년 기념세미나

왜색불교 퇴치를 주창하며 시작된 제2차 전국승려대회 발발 50주년을 맞아 불교정화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조계종 스님들이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각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 일면 스님(前 군승교구장),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등 (가칭)불교정화운동 기념 사업회 발기인 일동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발기인 일동은 △불교정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기념사업회 설립 △불교정화 기념회관 복원 △불교정화기념일 제정 및 매년 정신운동 전개 등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법산)은 승려대회 발발 50주년을 기념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대회에서는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의 '1960년 승려대회의 참여주체 연구'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근대조계종 성립의 성격'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불교정화운동과 조계종의 오늘' 등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사격장 참변 일본인 천도재

대원불교조계종 불광사, 108정골 친견

경남 양산시 주진동에 자리한 대원불교조계종 불광사(주지 청봉)는 11월 7일 세계 하나뿐인 무가보의 성물 천령정골과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기증받은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성골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천령정골은 열반한 라마승의 다비 전 이마에서 미간의 뼈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 108개의 염주알이 되기까지는 2000년이 넘게 걸렸다고 전해진다.

청봉 스님은 "천령정골염주는 108명의 라마승들이 대를 이으며 열반하기 전까지 한가지씩 원을 세우고 수행정진해 만들어진 것이다. 108대원이 스며있는 세계의 단 하나뿐인 무가보(無價寶)의 성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15일에는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화재로 참변을 당한 일본인 10명의 천도재가 불광사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일본 영사관 고또, 유족 및 친지 일본 취재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봉 스님은 "타국에서 변을 당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재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불광사는 부처님 진신성골사리 및 천령정골 친견을 6개월 여 동안 불자들의 친견을 위해 공개한다. (055)364-4747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조동종 제14차 금강계단 수계법회 및 연수교육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1월 10~12일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제13차 금강계단 수계법회 및 연수교육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덕우 스님, 승정원장 덕주 스님, 부종정 덕룡 스님, 교육원장 광혜 스님 및 원로대덕스님 등이 참석했다.

종정 지명 스님은 "부처님 교법을 잘 받아서 응당히 힘써 복된 일과 중생교화에 앞장서 달라"며 수계자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새로운 포교와 묵조선에 의한 중생제도를 통해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우리의 이상인 정토구현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기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100자 뉴스

포교원 광주호남 어린이지도자 교육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과 사단법인 동련 광주전남지구(회장 도제)는 지역별 연수교육으로 11월 13일 원각사에서 '조계종 전·남북 교구 및 광주·호남지역 불교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에는 60명의 어린이 지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박현숙 교수(대한불교교사대학)의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최미선(동연사무국장)씨의 '불교미디어교육자료의 활용과 실제' 장초희 팀장(어린이법회 교육지원팀)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놀이 명상' 김동욱 강사(동연 찬불가율동팀)의 '신나는 찬불가 율동'이 진행됐다.

도제 스님은 "한국불교의 가장 큰 희망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다"라며, "어린이불교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울구치소 무사고 기원 영산재 봉행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장 최숙희)는 11월 12일 수용불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재를 봉행했다. 영산재는 서울구치소 내 무사고 기원과 수용자들과 인연있는 영가 및 유주무주(有住無住) 고혼(孤魂) 1800영가의 해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50년 만에 개최된 행사는 성불사 주지 혜산 스님이 주관하고 조계종 포교사단 조철주 법사 등이 함께 했다. 이상언 기자

불교전문서점 희귀불서 초판본 전시

조계종 불교전문서점과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11월 22일~12월 2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는 민족사 윤창화 대표의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출간과 불교전문서점 1주년을 맞아 준비됐다.

행사에는 용성 스님의 〈귀원정종〉(1913년 刊)과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1913년 刊), 이능화 스님의 〈조선불교통사〉(1918년 刊) 등 1913~1991년 출간된 희귀불서 29종이 전시된다. 전시 도서들은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10여 년간 전국에서 수집한 것이다.

한편, 불교전문서점은 전시 기간 동안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에 소개된 불서 30여 권을 할인 판매한다. 전시시간은 오전 8시~오후10시. (02)2031-2073 조동섭 기자

대구 반야선원 희망나눔 성품 기탁

송광사 대구포교원 반야선원(선원장 효종) 신도회는 11월 17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저축하세요'를 캐치프레이즈로 불우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성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선원장 효종 스님은 불우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100포를 구청장에게 기탁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구 법장사 적묵당 현판식

대구 법장사(주지 도견)는 11월 14일 대웅전 관세음보살상·지장보살상 점안식과 요사채 적묵당 현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문 스님은 축사에서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식을 계기로 마음 속 청정심을 되찾는 수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이주민 안식처 마하보디사 이전

스리랑카법당 10년만에 조계사 도움받아 보금자리 마련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수행도량인 마하보디사가 양주 광적면으로 법당을 이전했다.

마하보디사(주지 와치싸라)는 2005년 안산에서 월세로 시작해 이번 이전까지 3번 이전했다. 안산에서는 보문선원이 지원하고 와치싸라 스님이 운영했다.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월세는 큰 부담이었다. 2007년 월세가 낮은 양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이번에는 아파트라는 공간이 문제였다. 늘 소곤소곤 말해야했고, 뒤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야 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이 법당을 찾는 시간은 저녁 9~11시. 동네 주민들은 그들이 동네에 오는 것 자체를 불만스러워 했다. 당연히 법회도 보기 힘들었다.

와치싸라 스님과 이주노동자들은 법당을 찾아 편하게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 편히 걸어 다니고 주위사람의 따가운 시선이 없는 공간을 늘 서원했다. 올봄, 조계사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 양주시 광촌면 효촌리에 전세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마하보디사는 11월 6~7일 이전 개원법회 및 카티나 치와라 다나 법회를 봉행했다. 개원 법회에는 300여 이주민들이 모였다. 이튿날 까지 이어지는 카티나 치와라 다나 법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카티나 법회는 스리랑카 스님들이 우기 안거를 마치고 재가불자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봉헌하고 공양을 올리는 전통 법회다. 이 법회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법회라고 한다.

새로 이전한 마하보디사 주변에는 작은 공장이 있었다. 7일 마당에서는 의료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트인 공간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도 연주했다. 그들에게 여유와 자유가 느껴졌다. 법당은 2층 건물이지만 30평이 채 되지 않은 공간이다. 직전에 있었던 아파트에 비하면 공간과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이사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자유롭게 말하고 걸어 다니고, 주위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4년간 마하보디사에서 한국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연옥 국제포교사는 와치싸라 스님을 보자마자 "탁 트인 주변환경과 더 이상 '쉿'이라며 조용히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좋네요"라며 축하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혜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품서식에는 법계위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혜정·인환·지성·설정·종진·무관 스님 등 7명의 법계위원들이 대덕(비구) 50명과 혜덕(비구니) 32명 등 82명의 스님들에게 법계를 전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법당은 이들에게 먼 타국에 와서 문화, 언어, 음식을 느낄 수 있는 의지처다. 또 법률, 여권 등에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호자가 돼 주기도 한다. 특히 스리랑카 사람들은 관혼상제를 비롯한 가정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국인 스님과 기도하고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그리는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였다.

와산데(35)는 "스리랑카 생각날 때면 이곳에 온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지쳐있다가도 여기 오면 좋다"고 했다.

산자야(24)는 얼마 전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가장 고마운 것은 스님이었다. 산자야는 "와치싸라 스님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직접 스리랑카 음식을 해서 가져다주신다. 아플 때에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입맛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가얀가(31)는 "한국에 스리랑카 절이 있어 좋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다가도 여기 오면 마음이 좋아지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처음 한국 음식, 문화, 날씨 모두 적응이 되지 않았고, 말도 안 통해서 힘들 때 마하보디사는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스리랑카 스님인 난다 스님은 "와치싸라 스님 같은 사람은 없다. 나도 그저 조금씩 돕고 있을 뿐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상언 기자 kemichino@gmail.com

와치싸라 스님 "갈 곳 없어 교회에 간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항상 언제 이런 공간이 생길까 하고 고민했다. 이제는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하면서 좋은 쉼터가 될 것 같다.

과거에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어도 갈 곳이 없어 교회를 갔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쉬는 날 혼자서 기숙사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쉬는 주말까지 회사사람을 만나겠는가.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도 했다. 때로는 출국하는 날까지도 한국에 스님이 있고,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아직도 부처님 오신 날 축제를 보고서야 한국이 불교국가라는 것을 안다. 최근 신심 깊었던 청년이 교회에서 결혼 후에 집을 준다고 하자 그만 개종을 하고 말았다.

이주노동자의 개종은 스리랑카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들이 한국에서 개종을 하면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 모두 개종해야 한다. 가족들은 돈을 버는 가장의 종교를 따라가게 된다. 또 스리랑카의 불교문화까지도 뒤바꿔 놓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반올림'은 산업사회 그늘에 핀 연꽃

제16회 불교인권상 수상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지관, 이하 인권위)은 제16회 불교인권상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선정·시상했다.

인권위는 1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수상선정 이유를 "고도 산업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어루만지며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제공에 일익해 왔다"고 전했다.

'반올림'은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제작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암과 백혈병에 걸리는 원인을 전자제품 공정에 쓰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일터 제공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전자산업 노동과정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스로 건강 주권을 찾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또 피해노동자의 산재신청, 치료비후원, 전자산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도 펼쳐왔다. 인권관련 서적인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을 번역 출판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5명의 이야기를 담은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집필에 참여해 노동자 건강권이 짓밟히는 현실을 고발하고 반도체산업 작업 현장의 위험성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서도 알리는데 힘써왔다.

2010년 3월에는 '전자산업 피해 노동자의 추모주간'을 진행하면서 미국, 대만, 홍콩 등에서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년 3~10월에는 '삼성의 직업병 책임 인정과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 제공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운동'을 벌여 7000여 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서 직업병으로 100여 명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들의 고통에 대해 아직도 삼성과 한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100만인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시상식에 대표로 참석한 이 활동가는 "수상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을 바꾸고,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개선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89701-01-479168 국민은행 김재천(삼성반도체대책위)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이상언 기자

평화재단 6주년 심포지엄

북핵문제 접근법 제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북핵문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평화재단은 11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이라는 안보자산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이해당사국들이 직접 적절한 안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G20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낙관만 할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의 한반도에서 비롯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안정화에 필수인 북한 비핵화에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윤여준 원장은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청소년 자살예방 나선다

생명나눔, 내년부터 센터 운영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이 불교계 2011년 청소년들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보급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다.

생명나눔은 11월 12일 제27차 임시총회에서 신규사업으로 201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국역 장기기증희망안내소의 지속 운영과 청소년들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보급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확정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청소년 자살예방센터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문화보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의식 고취로 자살률을 줄여간다.

그밖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증대 △실기증자 저변확대 △홍보역량 강화 △업무역량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의 활성화, 조직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 가족의 지속적인 후속 조처를 통한 유대감을 강화하고,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생명나눔운동 활성화, 특별후원금, 환자돕기 후원금, 자비의 쌀 확대를 통한 재정의 활성화를 꾀한다.

2011년도 사업예산은 안국역 장기기증안내소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따라 2010년에 비해 37% 증액된 16억 789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밖에 장기 기증 희망자 모집을 활성화해 장기기증·조직기증 희망자 2500명 등록, 조혈모세포기증희망등록 35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상언 기자

노인 미디어 심포지엄

서울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관(관장 가섭)은 11월 16일 3년간 진행해 온 서울노인영화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2회 노인 미디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선희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사무국장은 "노인들이 서울노인영화제의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프로그램, 홍보, 초청 등 행사 진행에 이르기 까지 직접적인 참여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대 간 소통 기회를 위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창우 대중평론가는 "영화의 내용을 문제 해결의 의지와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을 맞추고, 제작주체를 노인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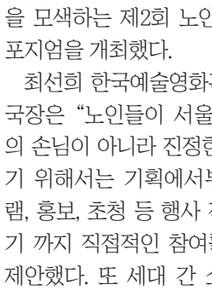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문화원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않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 2009년 3월 3일 〈MBC-TV 특종 놀라운세상〉「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日정부 주도해 미국에 불교 전파

이민용 대표, '서구불교의 탄생' … '책방불교도' 등 신앙행태 다양



이민용 교수는 "미국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미국화 · 서양화 하고 있다"며 미국 불교의 특징을 살폈다. 사진은 명상수행 중인 서양인들의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이민용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불교의 미국 전파 의미와 이후 미국 불교신자들의 신앙행태를 분석하는 논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대표는 11월 5일과 13일 열린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와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서구불교운동의 전개와 서구적 불교의 탄생'과 '미국의 일본 불교 수용의 굴절'을 각각 발표했다.

두 논문은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서구의 불교 유입과 정착과정을 살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미국의 일본 불교 수용의 굴절'을 통해 "메이지(明治)정부와 일본불교계의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일본불교가 미국에 전파됐으며, 이와 함께 당시 미국의 사회 분위기와 정신적 취향이 일본불교를 수용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일본불교가 전해지기 이전에도 미국에 불교가 존재했다. 1850년대 중국인 이민, 1890년대 일본인 이민, 그리고 1970년대 한국 · 베트남인 이민 급증으로 미국 내에서도 불교는 낯선 종교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소수민 이민그룹에 국한될 뿐이었다.

이 대표는 미국에서의 불교사상 · 신행 및 불교전도의 절대적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의 임제종이었으며,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가 일본불교의 미국 진출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이 회의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을 동아시아의 대표로 정치적으로 드러낼 준비를 했다. 동아시아적인 것, 일본적인 것의 대변으로 불교를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일본 측이 문화 · 예술의 총화로서 일본식 건물을 그대로 시카고 박람회 전시장 중앙에 설치한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그들 문화의 고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려 했고 일본의 독립적이고 유니크한 국가이미지를 심어주려 했다"며 "일본은 서구와는 분명히 다르나 서구와 동등하게 문명화된 나라이고 더 이상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구불교운동의 전개와 서구적 불교의 탄생'을 통해서는 미국에서의 불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 서구사회에서 불교신자의 기준과 유형, 불교신자의 새로운 범주 등에 대해 조명했다.

이민용 대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누가 불교신자냐'는 질문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 마디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불교신자가 되고, 유대인이면서도 불교신자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소위 '아직은 아닌 불교신자(Not-just-Buddhist)'인 이들은 오계를 받고 참선 수행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일정한 불교단체에서 9년 반이나 활동하면서도 자신을 불교신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한 사람이 어느 종교의 신자냐고 할 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는 미국 불교신자의 다양한 형태에서 비롯된다"며 미국의 불교 신자유형에는 다양한 명칭이 붙는다고 소개했다. 한 그룹의 참선 수도회에서 다른 형태의 명상그룹으로 옮기는 '법 메뚜기(Dharma-hopper)'와 불교수행과 신앙에 대한 인기 있는 책을 읽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책방 불교도(Bookstore Buddhist)' 또는 '침실 조명등 밑의 불교도(Night-Stand Buddhist)'로 일컫는다.

이 대표는 또 "이제 불교는 서구에서 새로운 틀로 자리잡고 있다"며 "발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 따라서는 정체적(停滯的)이기도 하다. 선(禪)은 불황기에 들어왔다고 농담이 나올 정도로 사회변화와 기호, 유행을 따른 부침(浮沈)현상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구불교운동의 문화사적 조명'을 주제로 열린 한국불교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가 '지구촌 시대의 한국불교와 세계불교',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서구 속의 불교, 불교의 서구화'를 발표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미등 스님, 〈국행수륙대재〉 펴내

최대 규모 삼화사 수륙대재 전과정 소개



'국행수륙대재' (조계종출판사 刊)

수륙재에 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가 나왔다.

미등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국행수륙대재-삼화사 수륙재를 중심으로〉(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해 수륙재의 실제적 이론과 방법을 고찰했다.

미등 스님은 〈국행수륙대재〉에서 △수륙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소의경전 △수륙재가 거쳐 온 역사 △수륙재의 의례문과 현존하는 의례문 △현재 전해지고 있는 수륙재의 의미와 형식 등을 차례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지내는 수륙재는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삼화사의 국행수륙대재다. 미등 스님은 이 책에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라는 조선시대 수륙의례문에 근거해 3일 동안 치러지는 삼화사 수륙대재의 전 과정인 준비의식, 본의식, 회향의식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륙재는 불교 의례인 만큼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다. 시련의식, 대령의식, 괘불이운의식 등의 의식 절차 못지않게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등의 단과 시련소, 관욕소 등의 의식 시설 역시 중요하다. 〈국행수륙대재〉에서는 각 단과 소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방법 및 진설의 내용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단방과 방문, 번 등의 내용도 예시로 보여준다.

또한 〈국행수륙대재〉는 구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식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현장 사진 100여 컷을 의식 절차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미등 스님은 "수륙재는 '물과 뭍에서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의식'이라고 정의 내려지나 정확하지는 않다. 수륙재라는 말 속의 수륙은 물과 땅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스님은 "수륙재는 성인과 범부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수륙재는 성인과 범부, 깨달은 자와 미혹한 중생, 성스러움과 속스러움,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모두가 둘 아닌 하나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법식을 베푸는 재회"라고 정의한다.

미등 스님은 책을 통해 수륙재의 방법론에만 주목하지 않고 수륙재가 갖는 의례의 내면에 있는 상징과 의미를 고찰해 수륙재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나은 기자

궁금했던 선사들의 일상

원공 스님, 〈중국인물선종사〉 펴내

중국 선종사의 역대 선사들을 차례로 다룬 학술서가 출간됐다.

원공 스님(동국대 선학과 박사)은 〈중국인물선종사〉(토방 刊)을 펴내 일반적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나열하는 선종사가 아닌 선사가 살아온 생애와 행적, 깨침을 얻은 기연, 학인들을 제접하는 방편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원공 스님은 "학문적인 면을 근거로 선사들의 독특한 사상과 일상의 다양한 일화 등을 소개해 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 인물 선종사' (토방 刊)

이나은 기자

'불교와 정신치료' 27일 학술대회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임상전문가 초청 발표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불교와 정신치료'를 주제로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영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브레이저(David Brazier)가 '불교심리치료와 상담'을 주제로, 이죽내 경북대 명예교수가 '불교와 정신치료'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발표자는 심리학 · 심리치료와 불교를 통합해 현대 불교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공헌한 임상전문가이다. 데이비드 브레이저는 국내에도 소개된 〈선치료 Zen Therapy〉의 저자이며, 이죽내 교수는 스위스 융연구소와 현존재분석연구소를 수료했으며, 현재 부산 대동병원의 진료고문을 맡고 있다.

토론에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미산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서광 스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김재성 교수, 전현수 정신과전문의, 윤호균 온마음상담원 마음향기 대표, 서동혁 밝은서울정신과 원장이 참여한다.

참가비는 회원 · 학생 · 성직자는 3만원, 일반은 5만원이다.

이나은 기자

한국선학회, 종밀선사 조명 추계학술대회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한국선학회(회장 송묵)는 11월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종밀선사의 시대인식과 선사상'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박인석 교수(연세대)의 '종밀 知 사상의 문헌적 기원과 전개' △김진무 교수(동국대)의 '불교비판에 대한 종밀선사의 대응과 시대인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종밀선사에 대한 발표에 나선다.

단청분야의 대혁신 !!!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2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12월 2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다문화·저소득 자녀 '희망 선물'

"관광으로 문화이해 어렵다"

다문화자녀 "은따" 가슴앓이, 놀면서 하나돼

〈은근히 따돌림〉

희망법당
글로벌리더 꿈꾸는 다문화 아이들

11월 13일 서울 회기동 연화사(주지 묘장)에 김천지역 다문화 가정 어린이 19명과 동대문구 용두동 희망만들기 방과 후 교실 어린이 2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연화사에는 종일 어린이들이 웃고 떠는 소리가 가득했다.

장기자랑 시간.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은혜(김천 중앙초3) 어린이가 일본노래인 '사쿠라(벚꽃)'를, 필리핀 어머니를 둔 엄정대(김천 중앙초5) 어린이는 'LOVE'라는 곡을 영어로 멋지게 소화했다. 엄정대 어린이의 모습에 반했는지 몇몇 여학생은 "오빠, 이름이 뭐야?"라며 적극적인 관심도 보였다.

장기자랑 시간은 계속 이어졌다. 리코더와 피아노를 연주하고, 가발을 쓰고 최신 유행곡에 맞춰 춤추며 숨은 장기를 뽐냈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이 진행한 첫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경희대학교 박물관을 구경하고, 캠퍼스를 구경하며 대학생이 된 미래를 꿈꿨다.

연화사 법당에서는 바구니에 공 넣기, 풍선 게임, 판뒤집기, 스피드 게임,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어린이들은 '왜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박수정 강사(자연주의 교육연구소)는 "글로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머니의 나라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지현)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상임대표 법등, 이하 경불련), 직지사(주지 성웅)와 함께 'FUN한 만남 & 약속' 행사를 열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였다. 주최측은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고,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 정착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과 문화, 피부색에 대한 분별 대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이튿날, 서울팀과 김천팀 어린이들이 다시 놀이동산에서 만났다. 아찔한 놀이기구 속에서 우정은 싹텄다. 헤어질 시간, 서먹했던 첫 만남과는 달랐다. 아쉬운 작별 인사가 오갔다.

"안녕, 다음에 또 봐."

인솔자 선생님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법등 스님은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계층 등 소외된 어린이들이 글로벌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체험을 통해 잠재력과 창의력, 인성이 개발돼 꿈을 갖고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은 2011년부터는 장기진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일반 가정 어린이들의 교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kemichino@gmail.com

다문화2세 숨은 고통

한국인 20명중 1명은 다문화가족이다. 다문화 2세 자녀(행정안전부 2010.3.31기준 12만 1935명)는 6세 이하 7만 5776명, 12세 이하 3만 587여 명, 15세 이하 8688 명, 18세 이하 6884명으로 증가 추세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2개 국어 구사, 2개국의 문화에 익숙하다는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과 언어, 정체성 혼란으로 다문화 2세들은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2008년 10월 국감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10명 중 2.5명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 16~18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정규 교육권 밖에 있다. 같은 연령대의 한국 청소년의 미취학률(8.7%)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부진으로 이어진다. 의사소통은 가능할지 몰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읽기, 이해력, 쓰기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또 두 나라의 혼재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 집단 따돌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불련 오용승 사무총장은 "다문화 어린이들이 가장 원망하는 사람은 어머니다. 학교에서 외모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거나, 학교숙제도 봐주지 못하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멸시와 차별,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이주민 정책과 행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천 지역 다문화 가정 어린이 19명과 동대문구 희망만들기 방과후교실 어린이들이 서울 나들이중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 포즈를 잡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승려 되라 권유하는 아버지가 싫습니다
지구 멸망 두려워… 위빠사나 도움될 것

Q 저는 현재 나이가 40입니다. 아버지는 승려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인생의 모든 일을 아버지가 결정했고,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아버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40살이 다 된 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 고민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 말을 듣지 않으면 10년이건 20년이건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 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승려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80살이 다 되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하면서 존경받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승려집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남들 앞에 쉽게 나서질 못했습니다. 혹여나 그릇된 행동이 집안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입니다. 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입니다.

A 아버님의 뜻에 의해 불편한 점이 많았나 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재자처럼 언행하는 아버지와 승려가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80살이 다 돼도 승려가 안정적이고 편하다'라고 한 것에는 삶의 한 부분에서 큰 의미를 두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또한 아버님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전을 따지기보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현실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삶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점검해볼 기회라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독재자처럼 말씀하지만 아드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크리라 생각됩니다. 40살이란 나이는 충분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만큼 고민도 많이 되고 결정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허수아비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에다 지금까지의 인생경로를 한 번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린 시절부터 나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 중에 아버님과 연결된 일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허수아비 인생처럼 비춰진 나를 벗어나 좋은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나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Q 아이가 하나 있는 31세 주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구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구요. 밤12시가 되기 전에 잠이 들면 내가 내일을 못 볼 것 같은 이상한 강박관념에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는 버릇을 가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고, 꽤 신빙성 있는 과학적 논거들도 제시되고 있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 잠도 못자고,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학교도 한번 못가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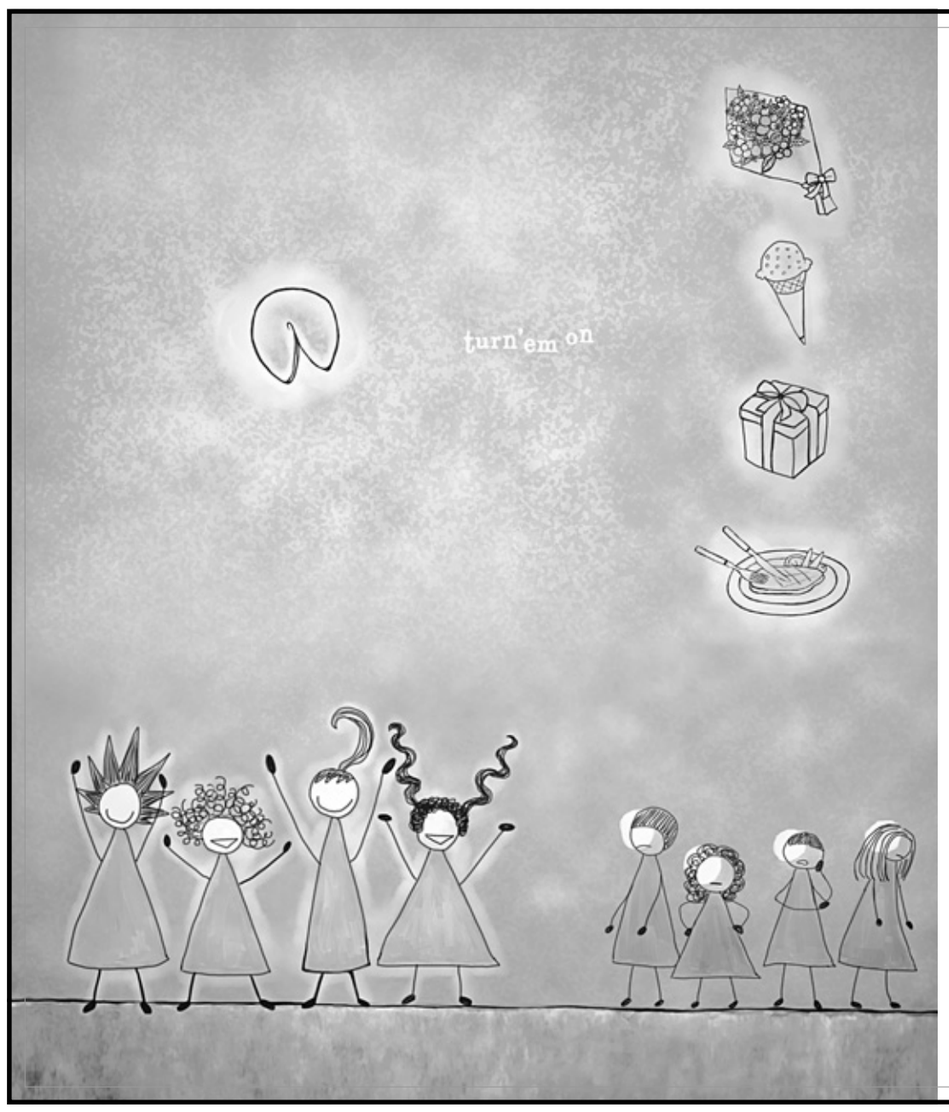
제발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A 불자라면 불교적인 방법으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와 명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은 내담자께서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완시키면서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명상에 관한 서적은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빠사나 명상은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수행 방법이니 한번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What is Buddha Cookie!!

법 法 과 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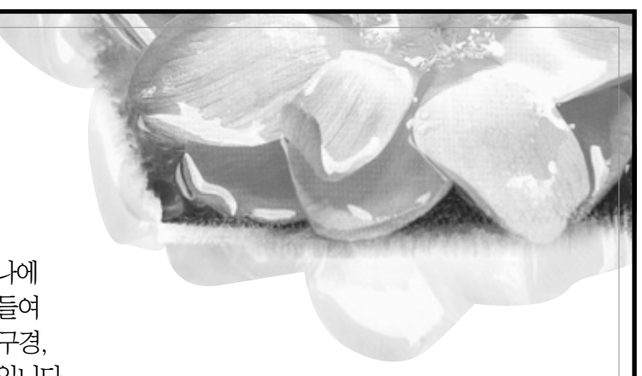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끌벅적 요리 체험…
“음식 투정 안할래요”

전남파라미타,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 만족 건강캠프’

심향사에서 가장 맛있는 ‘자비의 피자’







어린이 · 청소년들이 저마다 장갑을 끼고는 호미를 들고 밭에 쭈그려 앉았다. 푸대자루를 들고 여기저기를 종종 걸음으로 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300여 평의 고구마 · 무 밭에서는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오이를 잘라줘. 홍당무도 잘라줘야지.”

“오노기야, 너 주먹밥 만들기 전 손은 씻고 온거야?”

“고구마를 잘게 부숴줘. 너무 크게 썰어서 빵이 합쳐지질 않아.”

어린이 ·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시끌벅적했다.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30명씩 조를 지어 음식을 만들고 있다.

고구마샌드위치를 만든 김다혜(부영초등 3년)양은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땅콩,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 식빵, 고구마 등이 들어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더욱 즐거웠어요.”

윤희성(이수중학교 2년)군은 “고구마 캘 때와 만들 때 힘들었는데, 만든 것을 먹어보니 뿌듯한 생각이 든다”며 “음식을 직접 만드니 소중함을 알겠다. 이제 집에서 음식투정은 안하겠다”고 말했다.

주먹밥 만들기를 한 전완기(영강초등 5년)군과 박지인(효광초등 3년)양은 “오이, 홍당무, 단무지, 고구마,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었다. 잘 만든 것은 기분이 좋고, 잘못 만든 것은 모두 먹어버렸다”며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고구마피자에 ‘자비’라는 글자를 새겨넣어 ‘자비의 피자’가 되어버린 김지현(부영초등 4년)양이 속한 조에서는 “고구마는 몸에 좋다. 우리 것이 가장 맛있을 것이다”라고 자랑이 끊이질 않았다.

전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종삼, 지부장 김재기, 이하 전남파라미타)는 11월 13~14일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에서 ‘채소과일 365, 가족건강 365’를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五感)만족 건강캠프를 개최했다.

행사는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된 청소년의 위험한 건강과 자연주의적 사찰음식 체험을 목적으로 직접 건강 식재료를 채취해 요리 · 시식하는 실습이 진행됐다.

13일 열린 입재식에는 원광 스님(전남파라미타 부회장), 대요 스님(사무총장), 지용현 회장(광주전남신도회)을 비롯한 250여 어린이,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이 참여했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심향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자연 속 식재료로 만든 사찰음식을 통해 마음의 향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식자재 채취, 식재료 정리(세척과 선별작업), 문화놀이, 우리집 식탁 자랑 퍼포먼스(다문화가족과 함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심향사 문화재 보기, 교리퀴즈, 요리실습 및 경연대회, 마음나누기 등이 열렸다.

행사 시작에 앞서 아이들이 심향사에 도착할 무렵이었다. 운영진,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며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토요일 오전 11시. 아이들과 학부모를 가득 실은 버스들이 속속 도착했다.

불교세가 가장 열악하다는 전남지역에서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행사를 하면 ‘40~50명이나 모이려나’하는 생각에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를 기획한 실무진들이 조바심을 내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기우였다.

1대, 2대 그리고 이어서 도착하고 버스에서 아이들이 밀려 내려왔다. 어느새 심향사 앞뜰에는 250여명의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들로 가득찼다.

최대 참가자 200명을 생각했던 실무진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이러면 행사 준비하는 맛이 나지요. 하하하.”

1개월 가까이 행사를 준비한 김재기 지부장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행사장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심향사는 담양공업고등학교와 담이 필요없는 한 울타리 속에 있다. 학교의 운동장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학교의 체육관은 어린불자들에게 충분한 법당의 공간이 된다.

캠프에는 전남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찰에서 참여를 했다. 청소년 · 어린이 법회는 호남지역 최대의 대도시인 광주에서도 1~2군데만 운영할 정도로 대부분 사찰에서 외면하기 쉬운 분야이다.

이런 면에서 나주 심향사, 순천 흥선사, 금당절은 전남지역 보배들을 키우는 사찰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들 사찰의 어린이회, 청소년 법회의 회원들이 참여를 했다. 여기에 일반 파라미타회원과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까지 함께했다.

입재식이 끝난 참가자들은 나주 봉황면의 농장으로 가 고구마 무 등을 캤다. 어린이 · 청소년들이 저마다 장갑을 끼고는 호미를 들고 밭에 쭈그려 앉았다. 푸대자루를 들고 여기저기를 종종 걸음으로 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300여 평의 고구마 · 무 밭에서는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신기하기도 해요. 땅속에 이렇게 고구마 있는 줄은 처음 알았으니까요.” 밭에서 캐낸 무를 들고 흙을 툭툭 털어내 즉석에서 베어 무는 청소년도 있다. “쌉싸름한 것이 맛있네요.” 참가자들은 뽑아온 고구마 · 무 등 음식 재료들을 일일이 닦아냈다.

저녁 7시. 대강당에서는 왁짜지껄 놀이마당과 세계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펼쳐졌다. 80여 다문화가족이 함께 한 행사장 한켠에서는 필리핀, 몽골, 중국에서 온 이주여성 20여 명이 자신의 나라의 음식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필리핀에 온 리리베스씨는 생일잔치와 회갑 잔치날에 먹는 음식인 엠부띠도, 룸비아 상라이를 선보였다. 몽골에서 온 임성애씨는 호슈르, 당근샐러드를, 중국에서 온 이취란 · 백미경씨는 만두, 건두부냉채를 선보였다.

둘째 날, 농장에서 정성껏 캐낸 고구마 · 무들로 음식 만들기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5~30명이 한 조가 되어 전체 20개 조가 음식자랑 참가에 나섰다.

“고구마는 이렇게 자르는 게 맞아요? 소금은 얼마나 넣죠. 호박은 어떻게 넣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익는거죠?” 아이들의 쉼 없는 질문과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도움을 주는 학부모의 손은 즐거워 보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구마 맛탕, 호박범벅떡, 건강김밥, 고구마샌드위치, 고구마샐러드, 고구마튀김, 고구마주먹밥, 고구마피자 등을 주제로 음식만들기와 경합을 벌였다.

90분 동안의 정신 없는 요리시간이 끝나고 각 조별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중앙 단상으로 올라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원광 스님은 심사평을 통해 “아이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 좋다. 특히 ‘卍’자와 ‘자비’, 사찰이름을 새겨 넣은 음식은 아이디어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1등상은 ‘卍’자를 새겨 넣은 호박범벅떡이 수상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재기 지부장은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올해의 좋은 경험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 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④ 악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⑥
한밀납 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관음성지 복원하고 동안거 백일기도

선운사, 관음전·극락전 복원 낙성법회
370년만에 옛모습 찾아 지역민에 회향


고창 선운사는 11월 14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관음전 및 극락교 복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 관음전이 새 단장을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관음전(觀音殿)에 맞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도 새로 모셨다. 붉은 단풍과 국화향기가 어우러지는 고창 선운사. 11월 14일 5000여 불자가 관음전 낙성법회와 관세음보살 점안식에 동참했다.

대웅보전의 뒷편 동쪽에 위치했던 관음전은 오랜 세월 풍상 속에 심하게 훼손됐었다. 내부에는 보물 제279호 금동지장보살좌상과 최근에 조성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탱화가 있었다. 주존불(主尊佛)이 지장보살이라면 전각의 이름이 지장전(地藏殿) 또는 명부전(冥府殿)이 맞는데도 특이하게 관음전에 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있었다.

선운사는 관음전을 해체 보수하면서 보물로 지정된 금동지장보살은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했다. 대신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새로 조성해 봉안했다. 드디어 현판에 맞는 불보살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극락교 준공식도 진행됐다. 극락교는 1977년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통사찰방식에 맞지 않아 사찰 풍경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심한 부식과 유량을 감당하지 못해 자주 범람하는 등 위험에 처해있었다. 이에 길이 22m, 폭 6m로 확장하고 전통방식의 쌍홍교(쌍무지개 모양의 다리) 형태로 지어졌다.

법회에는 선운사 주지를 역임했던 군산 관음사 재곤 스님, 익산 대용화사 혜산 스님이 자리했다. 그 밖에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본·말사 스님과 김춘진 국회의원, 이강수 고창군수, 이만우 고창군의장과 지역불자 낙산사 성지순례단 등도 함께했다.

법만 스님은 "370여 년 만에 관음성지 선운사로 복원하기 위해 원력을 세운 많은 불자들의 수희동참으로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린 불사가 이루어졌다"며 "선운사 사부대중은 수행과 기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복지와 문화, 뭇 생명과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새로 복원한 관음전에서 동안거(11월 20일~2011년 2월 27일) 백일기도를 봉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사랑 화쟁에 달렸다

화쟁문화 시민포럼(회장 김재운) 창립 1주년 기념 행사가 11월 17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화쟁문화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문화부문에 통도사 서운암 회주 성파 스님과 실업 부문에 류진수 대흥 R&T회장(前 부산불교방송사장)이 선정됐다.



화쟁문화 시민포럼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성파 스님이 화쟁문화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화쟁문화 시민포럼은 원효 스님의 화쟁철학을 근본이념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화합을 이끌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2009년에 창립했다.

올해 5월에는 '국민화합 대강연회' '부산 시장 후보 초청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화합의 중요성과 부산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최근에는 진주와 울산 등의 모임까지 발족하며 다른 지역까지 화쟁의 실천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어린이 생태학교 '나무숲' 설립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나무숲 대표 무등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1월 13일 자비신행회 교육장에서 '2010정기총회 및 회원 한마당'을 개최하고, 부설 어린이청소년 생태학교 '나무숲'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을 나무숲 대표 및 당연직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총회에는 현고 스님(불교환경연대 본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을 비롯해 지용현 회장(광주전남신도회) 등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2011년 △조직의 외연확대 및 회원사업 강화 △어린이 청소년 부설기관 설립 △생명평화상 제정 △상근활동가 채용 및 처우개선 △불교NGO센터 건립을 위한 모연활동 지속 △제2회 맑고향기로운 노래이야기 개최△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강화 △대사회적 참여활동 확대 등을 결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정 스님 〈禪墨〉 출간

법정 스님의 글씨와 그림이 책으로 엮어졌다.

엮음집 〈선묵〉은 평소 지인들에게 보내셨던 계첩, 편지, 묵적, 원고, 도자기, 편액 등을 통해 일상 속 스님의 모습과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이웃과 교감하는 스님의 면목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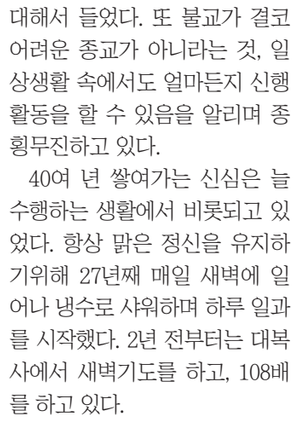
이 책을 엮은 현장 스님은 "스님께서 붓장난(법정스님 표현)으로 남기신 소중한 유묵들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스님을 가까이 모셨던 벗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에는 이해인 수녀, 현묵 스님(송광사), 현장 스님, 덕현 스님(길상사), 정찬주 작가, 피상순 박사, 도예가 김기철, 고현 교수, 윤청광 씨와 묵담을 나눈 작품을 태마별로 분류하여 200여점이 넘게 수록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신행단체 연합회 윤 평 호 회장

"빚 갚는 심부름꾼"



남원지역에는 크게 남원불교대학 동문회, 산악회, 청년회, 포교사회, 불인회, 보현회, 심우회 등의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남원신행단체연합회 윤평호 회장(법명 지선. 68세, 사진)을 남원 선원사에서 만났다.

그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한사코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다. 남원사암연합회와 남원 신행단체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남원 시내를 관통하는 요천 한가운데 수중무대를 설치했다. 무대에는 대형 탑장엄물을 설치하고, 연등을 달아 지역 대표 축제인 춘향제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윤 회장은 "진주 유등축제를 참관해 밴치마킹하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총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평호 회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지역축제인 춘향제와 부처님오신날 연등측제를 연계하는 복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며 "구례, 곡성, 임실, 장수 등 인근지역과도 연계해 불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에 남원불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각 사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기 성지순례도 연합 성지순례로 추진해 남원지역의 불자들이 모두 함께 하는 성지순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그를 남원 지역의 부루나 존자로 만든 것일까?

윤평호 회장은 40년 전 우연히 전주에서 볼일을 보고 남원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실상사 스님을 만났다.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다.

"정원 스님이셨어요. 법명이. 그 날의 일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스님 덕분에 불법에 의지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정원 스님이 저를 참불자로 이끄신 거죠."

그 후 그는 실상사를 거쳐 대복사에 적을 두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했다. 평소 "남원불교대학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 불교도 발전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윤 회장은 남원불교대학 공동집행위원장의 소임을 맡으며 학생의 감소로 위기를 맞은 남원불교대학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학비를 감면하고 20기 동안 배출한 동문들과 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들이 원하는 불교에 대해서 들었다. 또 불교가 결코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신행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리며 종횡무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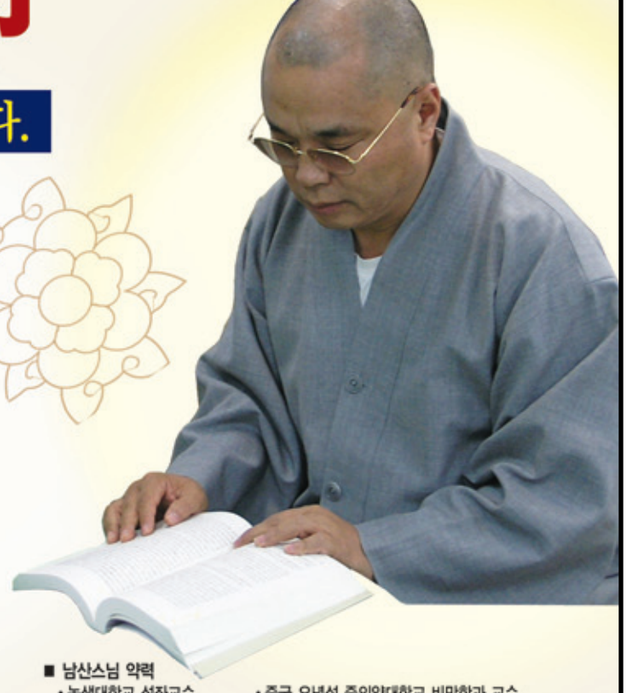
40여 년 쌓여가는 신심은 늘 수행하는 생활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위해 27년째 매일 새벽에 일어나 냉수로 샤워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2년 전부터는 대복사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108배를 하고 있다.

"여전히 스님들을 제대로 외호하지 못해 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쌓이면 쌓일수록 교만만 늘어가고, 지혜는 쌓일수록 겸손해진다는 생활신조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지극 정성으로 서원(誓願)을 세워 밝힌 작은 등불 하나가 장자가 매일 밝히는 등불보다 못지 않다는 말처럼 작은 도시 남원에서 밝히는 서원 가득한 작은 등불의 힘을 기대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기혈수비법으로 잘 알려진 남산스님 관세음보살님과 감응
남산스님의 영험한 맹귀부목 符
영험한 신통력을 가진 '맹귀부목'은 남산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감응을 받아 만들어진 기물입니다.


남산스님 영험보시
파스 한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병약자들에게 어느 곳이든 인연이 닿는 곳이라면 달려가 무료로 치료해 준지도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 스님이 겪고 있는 2급시각장애의 고통을 오로지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삶의 일대사 인연으로 생각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스님께서는 참선기도 중 관세음보살님과 감응하게 되면서 다문화 처녀총각들에게 인연을 맺어주고, 어렵고 힘든 불자님들의 길흉화복을 알려주어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등 종전의 대체의학 보시와는 달리 영적세계와 불자님들을 이어주는 영험보시를 하고 계십니다.
맹귀부목(盲龜浮木)이란?
행운목인 대추나무에 맹귀부목과 광명진언을 새기고 윗면에 황금거북을 아로새겨 놓아 맹귀부목인장의 영험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맹귀부목은 하는 일이 좀체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뜻밖의 행운을 만나 사업에 성공하고, 취업이나 진학의 뜻을 이루며,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맹귀부목도장을 소장하신 분들에게는 81영동수 비법으로 스님께서 직접 이름을 무보시로 감명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맹귀부목을 받으신 분에게는 남산스님께서 직접 무보시로 감명을 해드립니다.
*삼원 오행상 상생이 되지 않는 이름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자신의 일간과 조화가 이루어진 이름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무보시 감명하실 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생시 :
이런분들은 남산스님의 맹귀부목을 소장하십시오.
부동산 자영업 취업 승진 시험 혼사 건강 등의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분들
■ 남산스님 약력
• 녹색대학교 석좌교수 • 중국 요녕성 중의약대학교 비만학과 교수
• 몽골 칭기스칸대학교 교수 • 부산 부광맹인불자회 지도법사
■ 남산스님 저서
〈남산스님의 기혈수 비법〉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남산스님의 기적의 파스요법〉 〈남산스님의 테이핑요법〉 〈잔주름 확펴고 군살 쭉 빼고〉외 다수
■ 언론사 방영
•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 MBC 휴먼TV 공감
• MBC 모닝와이드, TV 아름다운 가게 • BTN 불교방송 우리절 우리스님
• 마산 MBC 매거진 세상 • SBS 호기심 천국 외 다수
남산스님 자비사 080-714-3030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⑬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2) 주지(住持)

주지 역량에 총림 성쇠 달려

주지는 선원총림을 대표하는 직책이다. 총림의 최고 어른으로서 한 산문(山門)을 통솔, 운영한다. 또 주지는 상당설법과 소참법문 등 모든 설법과 수행승들의 참선 지도 및 교육도 담당한다. 따라서 주지의 임무와 역할은 크게 총림 운영과 수행자 지도, 이 두 가지로 압축 할 수 있다(물론 수좌도 참선지도를 하지만 그것은 주지 다음이다).

당송시대 주지는 곧 방장이었다. 본래 '방장'은 직함이 아니고 주지가 거처하는 당우의 이름이었는데, 점점 직함이 된 것이다. 중국 선종의 중요한 청규서의 하나로서 가장 후대에 성립된 〈칙수백장청규〉에도 방장이라는 직함은 없다. 다만 '방장화상' 또는 "방장이 특별히 수좌와 대중을 위하여 차(茶)를 공양하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차츰 직함으로 쓰여진 것 같다.

근대 청말의 고승인 래과선사(來果, 1881~1953) 연보에는 "1919년 사(師) 방장의 자리에 오르다(一九一九年 師升座方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미 이때는 방장이라는 용어가 당우 겸 직함으로 쓰여졌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에 해인총림이 설립됨과 동시에 직함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1928년에 나온 〈조선승려수선제요〉 송광사 선당편에는 조실화상을 열거한 다음 괄호( ) 속에 '방장화상'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여전히 주지가 거처하는 당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직함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당송 시대 주지와 오늘날 주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크게는 3~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지가 곧 방장으로서 총림의 최고 어른이라는 것이고, 다음은 주지가 참선승들에게 공안(화두)을 제시, 지도하고 선문답(법거량)도 전개했다는 것이다. 또 상당법어 등 모든 법어는 주지가 했으며, 그 밖에도 제창(提唱, 조사어록 강의)과 개별 면담인 독참(獨參), 입실(入室) 등도 직접 했다. 즉 오늘날 행정만 담당하고 있는 주지와는 다르다.

'주지(住持)'란 그 어원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한다'고 하는 구주호지(久住護持)에서 따온 말이다. 그 말과 같이 주지는 단순히 한 사원을 이끄는 최고 통솔자 뿐만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존속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각 사찰의 주지스님이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원청규〉 7권 '존숙주지'장에는 "(주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펴니, 지사(知事, 사무, 행정 담당 요직으로 6명이 있음. 이것을 6지사라고 함)와는 현격하게 다르다. 고(故)로 '전법(傳法)'이라고 한다. 각처(各處)에서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주지라고 한다(…) 위엄이 있어야 하며, 재목을 헤아려 소임을 맡겨야 하며 총림의 법도를 준수하여 용상(龍象) 같은 고덕을 배출하되, 아침저녁으로 지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 〈칙수백장청규〉에서는 주지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400년, 달마에 이른다. 달마로부터 8대 백장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도(道)만 전수되어 왔다. 선승들은 암자에서 혹은 율종사원에서 더부살이로 살았는데, 그 때까지 (선종 사원에는) '주지'라는 것이 없었다. 백장화상 때에 비로소 선종이 점차 흥성하여 위로는 군주와 왕공(王公)·재상들로부터, 아래로는 유가(儒家)의 학자들까지 바람에 나부끼듯 모두 와서 도를 물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백장화상을 받들어 주지로 삼고 이를 존중하여 장로(長老)라 하였다. 인도에서 사리불과 수보리를 장로라 칭함과 같다."

〈선림승보전〉 '황룡조심'장에는 "마조와 백장 이전에는 주지가 없었다. 그 후 비로소 주지가 있어서 왕과 신하들이 존경하여 인천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선종사원에서 최초로 주지를 역임한 백장선사.

이 두 기록을 본다면 선종사원에서 최초로 주지를 역임한 선승은 백장화상(720~814)이고, 그 이전에는 주지를 역임한 선승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백장선사 이전에는 독자적인 사찰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장선사에 의해서 비로소 청규(규칙)가 제정되고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기치 아래 체계적인 선종사원이 창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백장선사 시대를 '선종교단(총림) 건설시대'라고 한다.

백장화상의 법제자로서 중국 선종의 5파(5가) 가운데, 위앙종을 만든 위산화상은 제자 앙산에게 대위산 동경사(同慶寺) 주지를 물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훈도한다.

"한 지역에서 법당을 세우고 불법의 종지를 펴자면, 외호연(外護緣, 권력자의 외호)·단월연(檀越緣, 신도들의 협조)·납자연(衲子緣, 훌륭한 수행자)·토지연(土地緣, 명산)·도연(道緣, 도의 인연), 이렇게 다섯 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또 처음으로 조주무자를 화두화했던 송대의 선승 오조법연(1024-1104) 선사는 제자 불감(佛鑑, 무준사범)이 태평사(太平寺) 주지로 천거되자 가사를 주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첫째 복을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된다. 둘째, 권세를 다 사용하지 말라. 권력이 다하면 반드시 시기와 모함이 따른다. 셋째, 말을 다하지 말라. 말을 다하면 기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넷째, 규칙대로 다하지 말라, 규칙대로 적용하면 대중이 머물기 어렵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주지가 되어 한 산문을 개창, 유지하자면 복(福)과 지혜(智慧)를 모두 갖추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주지를 선임, 임명하는 과정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초창기에는 입적·열반·사임 등 어떤 연유로 궐석일 경우는 대체로 해당 총림에서 대중회의를 거쳐서 결정했고, 정부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을 때는 해당 총림에서 추천하면 관부(官府)에서 인준, 임명하는 형식이었다. 또 어떤 때는 태수나 절도사 등 지방장관들이 해당 사찰이나 총림과 상의하여 선임하기도 했다.

예컨대 남송시대에는 오산십찰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전국 사찰을 관장했는데, 다섯 개의 중요한 본산(5산)과 그 밑의 10찰의 주지는 황제가 임명했다. 칙명에 의해 이동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권력의 예속이었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예우했다는 것이다. 그 밖의 갑찰과 말사는 모두 5산의 주지가 제청하고 관부에서 임명했다.

주지는 해당 총림에서 나오기도 하고 적임자가 없을 때는 타사에서 모셔 오기도 했다. 해당 총림에서 새로 주지가 선임되거나 임명 될 경우는 절차는 같지만 과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관부의 여러 가지 서류와 관행상의 요건을 갖추어 감원과 유나·수좌 등이 함께 방장실로 가서 주청한다. 승낙이 이루어지면 준비 기간을 거쳐 취임하면 대략 끝이 난다.

그러나 만일 주지가 타사(他寺) 스님 가운데서 선출, 임명될 때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절단(使節團)이 구성된다. 사절단에는 지사(知事)를 대표하여 감원이나 유나 가운데 1인, 두수 가운데 1인, 전임 지사나 두수 가운데 1인,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명이 선임되어 승낙 겸 주지를 모시러 간다. 갈 때는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관청과 승관(僧官), 총림의 소문(疏文)과 첩지(帖紙, 임명장), 그리고 타 총림이나 주지의 청원문, 단월(거사 신도)의 청원문, 양쪽 주현(州縣)에서 발행하는 문서, 관원의 서신, 다례(茶禮) 등을 갖추어 가지고 간다. 물론 일차는 능력이 없다고 고사하지만, 재청, 삼청이 이루어지면 "미력하나마 힘을 다하겠다"는 말로 승낙한다.

주지(방장)로 선출, 임명되면 반드시 거행하는 일정한 의식이 있다. 이것을 진산식(晉山式)이라고 한다. '산문(총림)으로 나아가다'는 뜻에서 進山式(진산식)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취임식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주지 취임식을 진산식이라고 한다.

진산식의 하이라이트는 취임법어이다. 이것을 법좌에 올라가서 설법한다는 뜻에서 '승좌설법(升座說法)' 또는 '개당설법(開堂說法)'이라고 한다. '법당의 문을 열고 법을 설하다'는 뜻인데, 개당설법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넓게는 종교계에, 좁게는 불교계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와 불교의 관계가 밀접할 때는 정치, 사회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주지에게는 5명의 시자가 배속된다. 이것을 '5시자(侍子)'라고 한다. (1)시향(侍香, 燒香시자)·(2)시장(侍狀)·(3)시객(侍客)·(4)시약(侍藥)·(5)시의(侍衣)시자이다. 이 가운데 시향시자가 비서실장격인데, 상당법어, 소참법문, 게송 등을 기록하며, 주지의 향화(香火)와 의례(儀禮) 등 일체를 담당, 지휘한다. 시장시자는 서간문 등 문건을, 시객시자는 빈객 접대를, 시약시자는 차·공양·탕약 등을, 시의시자는 의발(衣鉢) 등을 담당한다. 무착도충은 〈소(小)총림약(略)청규〉에서 "시향시자는 주지 우측에서 수행한다.(중략) 주지의 법어 등을 잘 서사(書寫), 보관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주지는 힘든 자리이다. 개인적인 역량이 없이는 한 총림을 지탱하게 할 수 없다. 대혜선사 연보에는 대혜선사가 항주 등지로 화주하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경산사 주지로 있을 때는 대중이 무려 1700명이나 되었는데, 하루 식량만 해도 쌀 10여 가마 이상이 소요되었다. 신도들이 내는 공양미 가지고는 태부족했다. 그래서 직접 당시 수도인 항주 등 도시로 나가서 능력 있는 고관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면 신도들이 나서서 각출한다. 어느 정도 식량이 모이면 수레에 실어 오곤 했는데 주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지가 아니다. 법력과 능력을 다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복혜구족(福慧具足)이라고 한다.

주지를 '방장' '방장화상' 또는 '당(堂)의 우두머리(頭)'라는 뜻에서 '당두화상(堂頭和尙)'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취임하는 것을 선원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입원(入院), 주지 직인(職印)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 준다는 뜻에서 시전(視篆)이라고도 한다.

총림의 당우 가운데 동당(東堂)과 서당(西堂)이 있다. 동당은 전임 주지가 거처하는 곳이다. 건강 등의 이유로 주지직을 사임하면 주지는 방장실을 비우고 거처를 동당(東堂)으로 옮긴다. 그리고 서당(西堂)은 타사(他寺), 타 총림에서 주지를 역임했던 이가 거처하는 곳이다. 주지라는 직함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여전히 그대로 쓰고 있다. 다만 일본은 주직(住職)이라고 쓰고 있다.

총림은 주지(방장)의 역량 여하에 따라 성쇠가 좌우된다. 달마 이후 선의 역사를 일별해 보면 사상적으로 선이 가장 발흥했던 시기는 당 중기에서 당말 오대이고, 선종이 하나의 교단, 종파로서 가장 흥기했던 시대는 송대였다. 특히 대혜종고(1089~1163)와 굉지정각(1091~1157)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사회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주지로서 이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지대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후에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서 소위 남송 5산 가운데 청대 말기 '동남의 4대 총림'에 들어가는 곳은 겨우 천동사 하나뿐이다. 이는 곧 주지의 역량이 한 총림의 성쇠를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단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주지는 한 사원을 이끌고,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존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은 고운사 주지실.

당송시대에는 주지가 지금의 방장

오늘날의 주지와 개념 많이 달라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운악산 바람이 전해오는 함허 스님의 호불정신

〈護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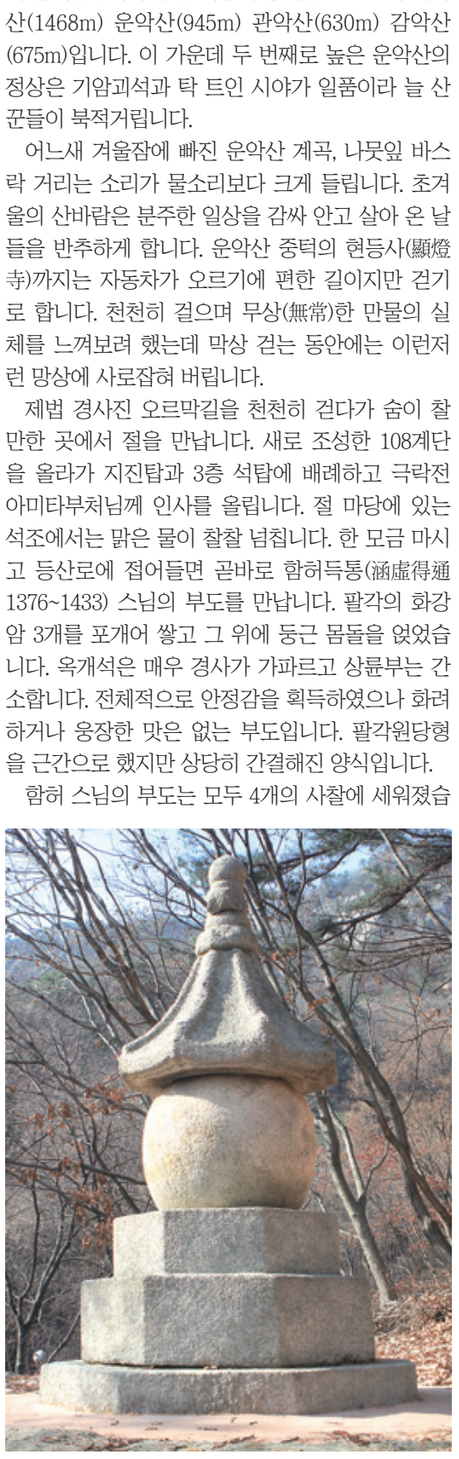
㊺ 호불(護佛)의 기운 어린 현등사

경기도에서 산세가 크고 경치가 빼어난 산 5개를 경기오악(京畿五嶽)이라 합니다. 신라 때부터 그렇게 불러온 5개의 산은 개성의 송악산(489m)과 화악산(1468m) 운악산(945m) 관악산(630m) 감악산(675m)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운악산의 정상은 기암괴석과 탁 트인 시야가 일품이라 늘 산꾼들이 북적거립니다.

어느새 겨울잠에 빠진 운악산 계곡, 나뭇잎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물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초겨울의 산바람은 분주한 일상을 감싸 안고 살아 온 날들을 반추하게 합니다. 운악산 중턱의 현등사(顯燈寺)까지는 자동차가 오르기에 편한 길이지만 걷기로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무상(無常)한 만물의 실체를 느껴보려 했는데 막상 걷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망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제법 경사진 오르막길을 천천히 걷다가 숨이 찰 만한 곳에서 절을 만납니다. 새로 조성한 108계단을 올라가 지진탑과 3층 석탑에 배례하고 극락전 아미타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절 마당에 있는 석조에서는 맑은 물이 찰찰 넘칩니다. 한 모금 마시고 등산로에 접어들면 곧바로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스님의 부도를 만납니다. 팔각의 화강암 3개를 포개어 쌓고 그 위에 둥근 몸돌을 얹었습니다. 옥개석은 매우 경사가 가파르고 상륜부는 간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획득하였으나 화려하거나 웅장한 맛은 없는 부도입니다. 팔각원당형을 근간으로 했지만 상당히 간결해진 양식입니다.

함허 스님의 부도는 모두 4개의 사찰에 세워졌습니다. 황해도 평산의 자모산 연봉사와 문경 봉암사, 강화 정수사와 운악산 현등사입니다. 연봉사는 이름만 남았을 가능성이 크고 봉암사에는 부도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등사와 정수사 두 곳에서 함허 스님의 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은 함허 스님이 만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강화 정수사 능선에 서 있는 함허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전통을 따랐고 장엄한 맛도 훨씬 더 풍깁니다.



운악산 현등사의 함허 스님 부도.

잎을 다 떨어 버리고 맨 몸으로 서 있는 나무들처럼 간결한 몸매를 드러내고 있는 함허 스님의 부도 앞에서 그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고려 말(우왕 2년)에 태어나 조선의 하늘아래 살다 입적(세종 2년)한 함허 스님의 시대, 불교에서 유교로 사상적 기반이 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려말기의 불교는 그야말로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승단이나 권력집단이 불교를 빙자하여 온갖 추악한 욕망 채우기에 급급했고 결국 왕조를 패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함없이 빛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심에 먹구름이 끼어 혼탁한 세상을 밝힐 등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속의 학문에 열정을 쏟았던 청년 시절, 그는 천재적 기질을 발휘해 유학의 경서들을 섭렵합니다. 그러나 21세 되던 해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무상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고 '인(仁)'을 가르치는 유가에서 살생을 금지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가사에서 만난 노스님에게 "불교에서는 '불살생계'를 가장 처음으로 꼽는다"는 말을 듣고 출가하게 됩니다. 태조 4년(1396) 관악산 의상암에서 머리를 깎고 다음 해 봄에 회암사에서 무학대사에게 가르침을 받아 지공-나옹-무학으로 이어져 오는 조계의 선맥을 잇게 됩니다.

이를 〈조선불교통사〉(이능화 편)에서는 '함허청허부종수교(涵虛淸虛扶宗樹教)'라는 제목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해동의 불법에는 두 감로문이 있었으니, 태고국사와 나옹왕사이다"라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나옹이 무학을 얻고 무학이 함허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허 스님은 선종의 정맥을 이었지만 교학에 두루 밝아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설의〉 〈선종영가집과주설의〉 〈현정론(顯正論)〉 등 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현정론〉은 억불숭유의 사상이 자리를 다져가는 시기에 불교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리려는 스님의 정성이 세세밀밀하게 담겨 있는 글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정도전은 건국 초기의 조선을 유학의 이념으로 무장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불씨잡변〉 등의 저술을 통해 불교를 지탄의 대상으로 몰고 갔는데 그에 대한 반박문이 바로 〈현정론〉입니다. 유가에서 불교를 향해 문제 삼은 사항들에 대해 불교적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현정론〉의 내용은 6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선초기의 억불은 자연스런 사상의 변화가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려의 불교가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권력화 된 점들은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유생들이 전개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공격은 반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화 정수사의 함허 스님 부도.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심찮게 종교편향 사례가 터져 나오는 단계를 지나 조직적인 훼불과 왜곡이 자행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개신교계통의 일부 청년들은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경내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땅 밟기'를 하는 그들에게는 종교의 사회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종교만이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척결의 대상일 것입니다.

선종·교종 통달하며 조선초기 억불 주장에 반박
훼불 심한 오늘날 불교 이해시킬 '현정론' 필요

함허 스님이 〈현정론〉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절처럼 오늘의 불자들도 불교의 바른 지침을 분명하게 알고 참다운 불자의 삶을 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람끝이 차가운 운악산 계곡, 함허 스님의 부도 옆에 앉아 〈현정론〉의 내용을 더듬어 봅니다.

-지금 불제자는 부모께 아뢰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을 나가며, 한 번 나간 뒤로 종신토록 돌아오지 않는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맛있는 음식을 드리지도 않고 돌아가신 뒤에는 정성껏 장례를 모시지도 않는데 어찌 불효가 아닌가?

"충성과 효도를 다해 그 직책을 조심스럽게 지키며 바른 도를 지키고 재계를 극진히 하는 것을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서는 좋은 이름을 잃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는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서 좋은 이름을 얻었을 뿐, 애욕을 끊은 사람은 거의 드물며, 죽었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뿐 윤회를 면하기는 어렵다. 애(愛)는 윤회의 근본이 되고 욕망은 생명을 받는 인연이 된다. 보통 사람들은 처자(妻子)의 번뇌도 면하지 못하는데 어찌 애욕을 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애욕을 끊지 못하는데 어찌 윤회를 면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불제자는 천자에게 조회 하지도 않고 왕과 제후를 섬기지도 않는다. 고상하게 깃들고 멀리 떠나 일의 성패를 앉아서 바라보기만 한다. 어찌 충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출가한 이들이 모두 아침에는 향을 사르고 저녁에는 등불을 켜 임금과 나라를 위해 축원한다. 어찌 충성이라 말하지 않겠는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권세와 형벌의 위엄을 빌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모두 교화에로 나아가게 한다. 어찌 임금과 나라에 도움이 없다 하겠는가?"〈후략〉

(〈현정론 간폐석교소〉 김기영 역주 한국불교연구원)

모두 13항목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현정론〉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시주의 근본적 의미, 영혼불멸설에 대한 입장과 화장풍습의 의미, 삼세인과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불교의 입장만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관점과 현실적인 인식의 입장 등을 두루 살피면서 불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있어 함허 스님의 도량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합니다.

유생들이 불교를 오랑캐의 것이라 핍박하고 불자들을 재앙을 초래하는 무리이고 무위도식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했듯이 오늘날에도 불교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폄하하여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허 스님의 〈현정론〉이 다시 출현해야 할 때입니다.

글 사진=임연태 (시인, 본지논설위원)

관음태교원 개원기념 무료 태교강의

동서양의 의학 전문가들과 불교 대수행자가 관음태교를 통해 만났다
대수행자와 동서양의 의학박사들이 현장강의를 통해 증명하는 과학적 태교법



누구든지 쉽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태교
태교는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구입한 수많은 태교 서적들과 음반들이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금도 방한 구석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고 재밌는 현장강의를 통해 습득된 관음태교는
여러분을 10개월간의 자연스러운 태교로 이끌 것입니다.

24시간 어디에서도 가능한 돈 안드는 태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태교
오직 정성스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음태교를 통해 성장한 아이는 건강하고 성품이 바르며 총명하여
사교육비 부담과 성장기 자녀와의 다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태교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극대의 효과를 지닌 태교
법화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태교법이며
삼매 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까지 하신 희유한 타력 태교로
세상 그 어떤 태교도 관음태교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요일 3시간의 강의만으로 아이의 운명과 한 가정의 미래가 바뀝니다.

단 한 시간의 강의만이라도 듣고 평가해보십시오.
현지사 관음태교원에서 정말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아이의 평생을 위해 단지 일요일 3시간씩만 투자하십시오.

1. 모집인원 : 00명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 · 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시간 : 일요일 3시간 강의 (2010년 12월 5일 ~ 2011년 1월 9일)
4.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5. 강의 주제 및 강사 :
-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윤윤수 (의학박사)
-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김병기 (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원종식 (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 산모건강체조 – 이영미 (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성) –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 혜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관음태교 저자)
- 관음태교사례 (관음태교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 덕산스님 특강 (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문의 : 현지사 대전분원 ☎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2>

선사는 잠든 부처를 깨울 뿐

학승이 물었다.
"부처나 조사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부처나 조사가 전해 주셨습니다. 부처나 조사가 입멸한 후에는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노승 같은 사람의 일이다."
학승이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나하나 모두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말들이다."
학승이 물었다.
"불조의 뜻을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전한단 말인가?"

問 佛祖在日佛祖相傳 佛祖滅後 什麽人傳
師云 古今總是老僧分上
學云 未審傳箇什麽
師云 箇箇總屬生死
云 不可埋沒卻祖師也
師云 傳箇什麽

진정한 선사라면 아무리 좋은 방·할·기연언구라 해도 모두 생사의 업을 짓는 것들이라고 말해야 옳다. 중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득이 그것들을 쓰는 것이지 그것들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중생의 병을 고치면 약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야 참다운 스승이다.

도대체 무엇을 전한다만 말인가? 선사가 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중생은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깨어나면 부처이고 못 깨어나면 중생이다. 선사는 잠들은 중생을 깨우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은 중생 스스로 한다. 깨우는데 쓰이는 방편은 한낱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가 진리는 아니다. 따라서 선사들이 무엇을 전하는 것은 없다. 다만 잠들은 부처를 흔들어 깨울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멀리서 조주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스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나의 죄과(罪過)인걸."

問 遠問趙州到來 爲什麽不見
師云 老僧罪過

본 〈조주록〉에는 간혹 수준 높은 선승들이 등장한다. 여기서도 수준 있는 질문이 나왔다. 조주 스님을 앞에 두고 스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런데 이 표현은 진실이다. 이 객승이야말로 〈금강경〉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 실체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르러 사상(四相) 중에 무아상(無我相)의 설법이다.

그런데 그에 맞추어 조주 선사의 대답도 걸작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적인 죄과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나는 없는 것이니 그야 말로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누구든지 나(我)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끝없이 '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잠들은 사람의 잠꼬대일 뿐이다. 무엇이 나이던가. 나는 없고 대자연만 있다. 나는 없고 대우주만 있다. 자연이 나이고 우주가 나이다. 모두 한 덩어리일 뿐 개별적인 나는 없다. 나가 없으니 손해도 이익도 없는 것이다. 한마음 평온하면 세계가 평온해진다.

학승이 물었다.
"밝은 달이 허공에 걸려있을 때[朗月當空] 방안의 일은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출가한 이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일은 짓지 않아."
학승이 말했다.
"그러면 화상께서는 현 시대를 위한 일은 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기 병(病)을 구할 수 없는데 어찌 남의 병(病)을 구하겠느냐?"
학승이 말했다.
"그러하시면 학인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의지하려면 땅을 밟아서고, 의지하지 않으려면 동서를 자네 맘대로 다니게."

問 朗月當空 未審室中事如何
師云 老僧自出家不曾作活計
學云 如麽即和尚不爲今時也
師云 自疾不能救 焉能救諸疾
學云 爭奈學人無依何
師云 依即踏著地 不依即一任東西

낭월당공(朗月當空)은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보름달이 밝게 떠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 경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이 훤하게 밝아진 상태를 말한다. 즉, 깨달음을 얻어서 일점 망상도 없고 잡념도 없는 밝은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조주 선사와 같은 해맑은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어떠한가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 스님은 출가한 이래, 깨달음을 얻은 이래, 앞으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계획하는 일 같은 것은 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의 병을 구한단 말이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조주 스님은 백여 세나 되는 관음원의 방장이고 남전 스님에게서 분명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이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도 아직 부처의 경지와 같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럼없이 밝힌 대목이다. 물론 겸손의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고 조주 스님의 선적 사상을 그대로 내비춘 대목이다.

조주 스님은 그동안 본 〈조주록〉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전통 돈오(頓悟) 사상을 선양하는 선승이다. 당시 임제 스님과 함께 중생이 원래 부처라는 뜻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는 자들을 신랄히 비판했다. 육조 혜능스님이 〈육조단경〉에서 말한 중생이 스스로 부처임을 즉시 자각하고 곧바로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선법(禪法)을 적극 실현했다.

따라서 저 앞에 나온 문답에서도 조주 스님은 스스로 아직도 '점검한다'했고 한 객승에게 '수행해야해'라고 했다. 현재 여기서도 조주 선사가 '자기 병(病)을 구할 수 없는데 어찌 남의 병(病)을 구하겠느냐?'라고 한 말은 평생 부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경지가 부처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내용이다. 사원의 방장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것인데도 조주 스님은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또한 스스로 부처라는 당당한 자세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조주 스님은 또 가사 밑의 일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총림의 방장이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방장은 두고두고 역사의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답 말미에서도 조주 스님은 그 특유의 돈오 사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스스로 부처이고 완벽한데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것이냐고 학승에게 일갈을 날린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모두 한 덩어리 개별적 '나'는 없어
한마음 평온하면 세계가 평온해진다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㉘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선종 제파의 가치체계 확립

〈선나이행제전집(禪那理行諸詮集)〉라고도 하는 〈선원제전집도서〉는 줄여서 〈도서〉라 불리운다. 저자인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은 7세부터 16~7세까지 유학을 공부했고, 18~9세부터 21~2세까지 3년 동안은 재가의 신분 그대로 불교의 경론을 공부했으며, 23세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유학을 연구했다. 25세 때 도원(道圓) 화상을 만나 출가했다. 사미시절에 〈원각경〉을 보고 깨침을 터득했다고 한다. 이후로 유식, 화엄, 선 등을 두루 섭렵하고 그에 대한 연구 및 저술활동에 크게 공헌했다. 50대 중반에는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 및 〈도서〉를 저술해 당시 선종의 각 파의 주장과 더불어 선교일치설을 주장했다.

〈도서〉의 저자인 규봉종밀이 살았던 시대는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로서 당조의 지배체제가 느슨해지고 절도사의 권력이 증대해 강대한 지방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토지지배의 형태가 생겨나는 등 큰 변혁의 시대였다. 불교사에서도 수(隋)대부터 당(唐)초에 걸쳐 성립된 제종 가운데 정토, 밀교, 선 등의 실천불교가 크게 전개되는 시기였다.


조선시대 사찰본(寺刹本)인 〈선원제전집도서〉 순천 선암사 소장.

〈도서〉는 달마의 선과 교학의 주장을 융합하고 통일하려는 저술로서 본래는 100권 혹은 160권이었다고도 한다. 때문에 선종 각파의 가치체계를 내세운 일종의 선상판석(禪相判釋)의 성격과 교학의 위상을 내세운 교상판석(教相判釋)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나아가서 경시불어(經是佛語) 선시불심(禪是佛心)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10가지 이유를 언급하여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했다.

첫째는 스승에도 본(本)과 말(末)이 있어서 본(本)에 의거해야 말(末)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선에도 제종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경은 승묵(繩墨)과 같아서 사(邪)와 정(正)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경에도 권(權)과 실(實)이 있어서 모름지기 요의경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세 가지 인식방법은 판단에 있어 모름지기 계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많은 의심에 대해 모름지기 깨끗이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비록 법(法)과 의(義)가 다르지만 모름지기 그것을 잘 변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덟째는 마음이 성(性)과 상(相)에 달통하면 명칭은 같더라도 뜻이 다름을 알기 때문이다. 아홉째는 오(悟)와 수(修)에 돈(頓)과 점(漸)이 있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열째는 스승이 방편을 구사할 때 모름지기 약과 병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서〉가 지니고 사상사적인 의의는 당대 선종 각파의 역사와 종지를 설명해주는 데 있다. 이에 종밀은 기존의 교상판석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화엄의 오교판에 입각해 새롭게 삼교판을 수립했다.

첫째는 밀의의성설상교(密意依性說相教)인데 여기에는 다시 인천인과교(人天因果教)·단혹멸고교(斷惑滅苦教)·장식파경교(將識破境教)로 분류했다. 둘째는 밀의파상현성교(密意破相顯性教)이다. 셋째는 현시진심즉성교(顯示直心即性教)이다. 그렇지만 종밀이 화엄의 오교판에 입각하면서 교의 삼종의 체계를 만든 것은 실은 교상판석 그 자체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의 삼종의 가치체계를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당시에 남종, 북종, 우두종, 홍주종, 하택종 등 각파는 서로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있던 선의 각종 교의를 정리하고 하나의 기준에 근거해 선의 각종의 가르침의 가치체계를 만들려는 것이 종밀의 의도였다. 그 때문에 필요한 것이 교의 삼교의 체계였다. 이에 교의 삼교와 선의 삼종을 배대하면 각각 (1) 장식파경교와 식망수심종(북종) (2) 밀의파상현성교와 민절무기종(우두종·석두종) (3) 현시직심즉성교와 직현심성종(홍주종·하택종)에 해당한다.

이것은 종밀이 교학의 판석에 빗대어 자파에 선에 해당하는 하택종의 우위를 확립하려고 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곧 〈도서〉를 통해 북종, 우두종, 홍주종, 하택종의 순서대로 각각에 대하여 심천고저(深淺高低)를 매겨서 당시 선의 각 종파에 대한 선상판석(禪相判釋)을 의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수대부터 당초에 걸쳐 성립된 중국불교 제종이 경전의 가치체계를 수립한 것에 비해 종밀은 선종 제파의 가치체계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다.

선주교종(禪主教從)의 그 구체적인 접근으로서 불어(佛語)의 교와 불의(佛意)의 선을 일미(一味)임을 주장해 본각의 자성으로 귀일시키려 한 것이다. 때문에 그 경증(經證)으로서 권말에서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의 교리를 인용하면서 중생심의 일심진여가 수연·생멸하는 차제를 10단계로 나누어 흑백의 원으로 도시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누워하는 참선 + 와선체조

와 臥禪 선

호흡 초월, 몸뚱아리 초월, 공(空)삼매 즉석 체험
머리에서 잡생각 망상이 개미떼 벌떼처럼 빠져나감
엄청난 오로라 전신에 꽉 찬 황홀경 누구나 체험
진짜 달콤한 감로침! 행복감 체험
피로회복 · 면역력증대 체험 100%
발 무릎 꼬리뼈에서 냉기, 병기, 나쁜 기운 빠져나감
스트레스해소, 우울 · 불안 · 고민해소체험 100%

▶대상 : 템플스테이 운영자, 출가예정자, 참선, 위빠사나 고시생, 수험생, 유능한 CEO, 사회지도자

- 아나빠나사띠 수행이 잘 안 되시는 분
- 심장박동, 생각, 마음 보기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
- 참선, 염불, 절, 명상수행의 진전이 없으신 분
- 목, 뒷골, 어깨, 명치, 단전이 저절로 풀리고, 뚫림 체험
- 꿈 많고, 자다깨다 반복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분
- 스트레스지수 면역력 콜레스테롤 엔돌핀, 토파민, 세로토닌 검사해 보시면 100% 놀라운 확신

♣ 청견스님 직접 교육 수행지도 ♣

☎ 02)456-0035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법당)
www.법왕정사.kr (와선특강)

▶매주 화요일: 절교육, 2011년 1월부터 수행템플스테이 운영

사주명리 통변술을 밝힌다

무료 공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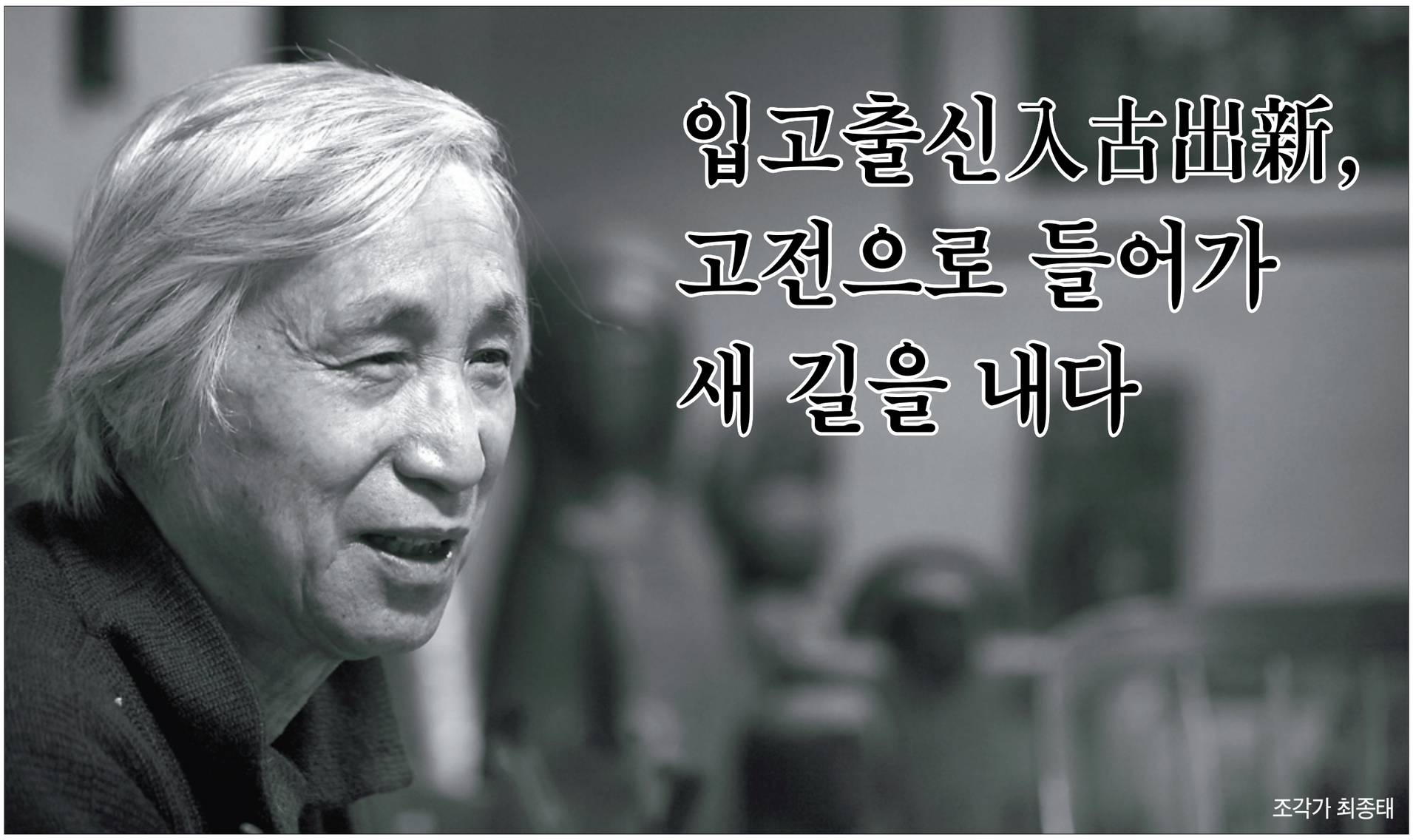
■ 일시 : 11월 27일(토) 오전 11시 - 13시
12월 4일(토) 오전 11시 - 13시
■ 과목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관상 수상, 타롯카드, 성명학 (무료공개 강의는 명리학 위주)
■ 대상자 중점강의 :
· 공부에 맥을 잡지 못해 고민 하시던 분
· 여러해 공부했으나 통변이 시원치 않으신 분

단기간에 일가를 이루고 싶은 분
역술업의 취업을 희망 하시는 분

■ 강사 : 전, 호서대 명리 · 기문학 주임교수 직강!
■ 장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채널 안경점옆 홍삼대리점 안골목

정 운 철 학 원
전화 : 010-7154-8835 / 011-241-9681





선생의 백발은 고왔다. 눈웃음과 미소역시 그랬다. 일흔을 넘긴 나이지만 드러난 모든 것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세파를 구도의 열정으로 넘었기 때문이리라. 백발,눈웃음,미소들은 선생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나타내주는 것들이었다.

"올해, 추사가 연경(베이징)에 다녀온 지 200년째 되는 해라서 올초에 전시회가 많았는데, 추사가 입어유법入於有法, 출어무법出於無法, 아용아법娥用娥法 이 세 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여?" 반어. 일깨워 주기 위한 물음이다. 연남동 작업실에서 만난 길상사에 관세음보살 석상을 조성한 최종태 선생(79)은 아직도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다. "그 땐 중국이 세계였으니까. 세계미술사를 공부하러 들어가서 이걸 다 졸업을 하고 무법으로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법으로 그린다. 이게 제주도 가서 한 얘기에요. 추사 글씨가 거기서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게 그거에요. '아용아법娥用娥法',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세계미술사를 다 봤는데 이걸 다 소화하고 없어져야 돼. 그런 연후에 내 그림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나 이걸 관찰하는 거지. 조금 덜 됐나? 어느 정도 된 건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된 사람이 없어요."

조각을 하다 보니. 늘 서양 사람들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청년 최종태는 당당히 내발로 서기 위해 조선미술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역사를 배웠다. 순전히 혼자 힘으로. 1965년 무렵 어떤 조각을 할 것인가? 고민을 거듭하는 청년 최종태 앞에 반가사유상이 섬광처럼 나타난다. "거기서 작품방향이 딱 섰어요. 아! 나는 이 길로 간다." 법정 스님은 반가사유상에는 거리낌 없는 무애無碍 미가 담겨 있다며, 작품에 깃든 아름다움이 거리낌 없을 때 감동을 주는데, 거기에 작가 혼이 서려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어르신들 만남이 늦었을 뿐, 절대 미감으로 일찍부터 통했다.

한국미술사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레 중국을 보게 되고 중국을 보다보니 인도, 파키스탄과 이어지고 그리스와 연결되었다는 최종태 선생은 이집트, 그리스, 중동을 두루 살핀다. "서양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었어요. 본디 야만인데 그리스를 업고서 서양문명이 시작됐지. 실은 그리스도 중동이에요. 그리스가 이성이라면 이집트는 영성이라고 해야지." 그 밖에 에스키모, 멕시코, 아프리카 조각, 남태평양 미술을 두루 섭렵한 선생은 "지금도 내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더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미술대학 나오고 쉰 해가 더 지났는데, 아직도 방황을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방황을 하더라도 열어야지 어떻게. 그게 무서워서 닫으면 되나?"

- 떴다 감았다 못하면

71년 불혹 나이에 미술 자취를 더듬어 세계를 돌던 선생은 이집트 미술을 대하곤 눈물바람을 했다. "돌덩어리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게 이집트에요. 그리스는 너무 깎아가지고 생명이 약화됐어요. 설명하면 약해지잖아. 우리나라 불상이 좋은 건 근육, 힘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눈길이 그리 가고 정신이 팔려서 불상이 주는 숭고함이랄까. 철학이고 뭐고가 안 돼요. 내가 처음 그리스 조각을 보면서 '하, 이 사람 힘들겠다.' 싶었어요. 맨날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저기 내 작품. 저 안엔 뜨고 감은 게 다 있어요. 저걸 감았다고 볼 수도, 떴다고 볼 수도 없어요. 부처님 눈 같이 그냥 있는 것이지. 감았다 떴다를 못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반가사유상 눈을 떠올리지 못해요.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눈에 눈길이 안간 거죠." 이 어른에겐 조각품도 살아있는 존재다. 김홍도나 신윤복 그림을 봐도 그냥 점을 쿡 찍거나 쿡 눌러서 추슬렀지 세세하게 눈동자나 눈꺼풀, 눈썹을 그려 넣지 않았다. 그래서 은근하고 정겹다. 법정 스님도 말씀했다. "아름다움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은 그 그림 격을 좌우합니다. 덜 채워진 부분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 그립고 아쉬움이 따라야 합니다."

- 입고출신

24살 때 연경으로 건너가 첩학帖學과 금석 대가인 옹방강 서법을 따르던 추사는 서법 원류를 거슬러 당에서 남북조 다시 위진에서 한예漢隸에 이르고, 예隸 뿌리가 전篆이라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침내 추사는 예隸를 쓰기 시작했고, 동한東漢 예서가 파임과 비짐으로 외형미가 두드러진데 아쉬워하며 다시 서한예西漢隸에서 본령을 찾으려고 애쓴다. 추사는 그 과정을 이렇게 풀어놓는다. "내 팔뚝엔 308개나 되는 중국 명비문이 들어 있다."고. '입어유법入於有法' 추사는 이렇게 기본, 틀을 익혔다. 고전으로 들어가 기초를 다진 추사는 타고난 기량에 집념어린 열정으로 자신을 불살라 '출어무법出於無法' 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예서 그쳤다면 '단군 이래 으뜸가는 예술가는 그래도 추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제주도로 귀향 간 추사는 늘 주장하던 청고고아淸古高雅한 서법에서 벗어나 "내 70평생에 벼루 열 개를 구멍을 냈고 내가 써서 몽당붓이 된 붓이 천 자루는 된다."고 외칠 만큼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써오던 글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또 쓴 끝에 기굴분방奇?奔放, 자유로워졌다. '아용아법娥用娥法'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착主着. 그 경지를 추사는 스스로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는 '불계공졸不計工拙'이라고 했다.

"추사가 조선 역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당시 중국은 세계인데. 그걸 다 훑었어요. 하지 말라는 불교공부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대성된 거예요. 아까, 입고출신? 그래 이걸 해야 해요. 지금 불교미술이 入古는 생각하는 데 出新이 안 되는 거야. 그거하려면 세계미술사를 다 봐야 해요.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중국, 인도까지 두루 훑어서 나온 건데. 지금은 서양현대미술도 봐야 해요. 가슴을 열고 다 받아들여야죠. 목적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지난 얘기만 자꾸 되풀이해서 되겠어요? 현대미술을 다 꿰뚫은 불상이 나와야 해요. 김수환 추기경은 자유로워요. 재미나는 게 여러 해전 성균관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성균관 선생님 묘소 참배를 하러 가야했어요. 모든 눈길이 김추기경에게 쏠렸어요. 추기경이 절을 할 것인가? 조마조마해했어요. 그런데 이 어른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절을 다 하시냐는 물음에 추기경은 '내가 존경하는 큰 선생님한테 절하는데 뭐가 어떠냐?' 면서 되레 의아해 했어요. 법정 스님 법회에 가보면 말이 아주 편하게 들려요. 서양 철학을 비롯한 책을 많이 읽어서 사물이치를 두루 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운 말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신부님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장난삼아 '신부님들 좀 설교를 조선말로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부님이 '왜 조선말로 하는데 그러냐?' 더라고. 그 말끝에 저쪽에 앉아있는 양반이 빙긋 웃던데, 그 양반, 알아들은 거여." 이 어른, '지금 여기'에서 새 길을 열라는 말씀이다. 入古出新.

- 아시아 빛!

1971년 이곳저곳 세계 미술들을 두루 돌아보면서 반가사유상과 석굴암 부처님생각이 간절했던 최종태 선생. 돌아오자마자 반가사유상을 보러 국립박물관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리곤 다음날 석굴암으로 날다시피 내려갔다. "표 받는 스님이 어떤 서양 사람이 표를 사가지고 네 번을 다시 오더래. 또 한 번은 어떤 서양 사람이 나오면서 '내가 분명 모자를 쓴 채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모자가 손에 들려 있으니 무슨 조화냐?' 고 묻더래요. 조각 앞에서 저도 모르게 모자를 벗다니. 그게 뭐냐 이거에요." 백제, 신라 사람들 불법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유명한 금관도 만들지 않고 크게 짓던 고분도 자그맣게 줄이고 오로지 부처님을 위한 사리탑과 사리함,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불국토 조성에만 열을 올렸다. 그 공력, 그 정성이 천년 세월을 뛰어 넘어 서양에서 온 나그네 발걸음을 묶어두고 모자까지 벗겼으리라.

석굴암 불상, 반가사유상, 일본 호류지에 있는 백제관음은 처음부터 중국이나 인도 불상과는 다르게 독특한 우리 빛깔을 드러냈다. 그랬기에 삼국시대 불상과 고려불화는 지금 세계미술사에 우뚝 서게 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이 로마에서 우연히 어떤 책에서 봤는데 석굴암 불상이 '아시아 빛이다.' 고 나와 있더래요. 참. 누가 잘 쓴 거야. 아시아 빛!" 신라, 백제가 한국다운 불상을 그려냈잖아요. 당나라, 인도, 파키스탄 불상을 다 보고 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처럼 오늘날에는 서양미술을 다 봤잖아요. 그 속에서 나와야 해요." 관음상이 다 깎여진 뒤 법정 스님과 류시화 시인이 관음상을 처음 만나러갔을 때 관음상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서있었다. 그 불상을 본 법정 스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하

가족의 건강지킴이! '휘나핫 반신욕기'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피가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 02-875-0600
www.hwinahot.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셨단다. "대개 보면 형태가 커질 적에 종교 심성은 낮은 거예요. 속이 허할 때 포장하려드는 거죠. 반가상 조그마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고려 후대로 와서 불상이 커져요."

- 화관, 정병, 구고!

선생에게 관음보살상 조각은 오랜 숙원이었다. "반가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어요. 흙을 붙여놓고는 부리나케 국립박물관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닮았으면 어쩌나 해서. 다행히 그렇지는 않더라고." 선생말씀을 들으면서 "난 나이고 싶다."던 법정 스님이 떠올랐다. 길상사에 관음상 만들기 위해 선생 댁을 찾은 법정 스님에게 묻는다.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뭡니까"

"화관花冠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병은 뭐죠?"

"정병淨甁입니다."

"손바닥을 펼쳐 올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구고救苦입니다."

짧은 선생 물음에 법정 스님 또한 토씨 하나 안 붙이고 외마디 답으로 일러주셨다. '꽃 관, 맑은 물, 세상고통을 구한다.' 는 세 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 작품이 다 그려졌다는 선생은 이튿날 흙일을 일사천리, 세 시간 만에 다 끝내고나서 길상사로 전화를 했다. 뜻밖에도 법정 스님이 직접 받으셨다. 다 됐다 하니 그럼 지금 가보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선생은 관음상 조성을 돌아본다. "스님과 내가 뜻이 맞아 길상사 절 마당에 관음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억겁 시간 속에서 우리 두 손이 잠깐 하나로 만나서 한 형상이 태어났습니다." 점안식 날 법정 스님은 관세음보살과 성모마리아는 그 상징성이 같다는 말씀을 했다. 그 자리에서 불모 최종태 선생은 짧은 인사에서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울타리를 허물면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고 했다. 이 일이 비록 작은 일긴 하지만 결코 작은 일만은 아니라면서 당신 생각과 모든 바람을 다 쏟았으니 모든 이야기는 형태가 말할 것이라고. 우리나라 불상은 우리 소녀를 그려냈다는 선생은 평생 소녀상만 조각하고 그렸다면서 한국 조각가 가운데 당신처럼 불상 영향을 크게 받은 이가 없다고 힘주어 말씀한다.

71년 일본 호류지(法隆寺) 툇마루에서 처량하게 비 맞고 서있는 나무로 깎은 백제관음을 보고 가슴 아려했던 선생은 그 백제관음이 당신이 가장 아끼는 관음상이라고 말씀한다. 언젠가 프랑스 앙드레 말로가 일본을 보고 돌아갈 적에 공항에서 만난 기자가 '만약 일본이 바다로 가라앉는데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고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백제 관음이다.' 고 답을 했다는데. 앙드레 말로가 길상사 관음을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 눈이 열렸다!

쉰 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조각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팍 들어오는 거여. 뭐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선생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소녀상과 최선생의 얼굴은 겉에서 대비되지만 속마음은 다르지 않다. 신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최선생, 세상을 보는 맑은 마음의 소녀상은 그 본류에서부터 닮았기에 선생은 선생대로 조각은 조각대로 세상을 정화시킨다. 법정 스님과 선생의 인연의 산물인 길상사의 관음석상은 정화에 더해 법을 향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던 스님의 '무소유' 를 보는 이들에게 스스로 물어보게 하는 표지로 세상에 남아있다.

선언했다.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모른다는 걸 알고 날듯이 기뻤다는 이 어른, 하늘 뜻을 알았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알아. 그림에 대해서 내가 몇 만분지일을 체득한 것뿐이지, 그림세계라고 하는 건 여전히 미지 세계에요. 이따가 내가 어떻게 그릴 지도 모르는 건데 뭐."

시공간을 버리고 우레 같은 침묵으로 돌아간 법정 스님과 인연을 돌아보는 최종태 선생. 오래전 선생이 아직 젊었을 때 불경공부를 하고 난 뒤 성경이 하룻밤 새 다 읽혔는데 그 까닭을 몰라 오래도록 궁금해 하다가, 법정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스님은 "경을 읽는 눈이 열렸다."고 했다. 40년 묵은 숙제가 단칼에 풀렸다고 말씀하는 선생 눈이 그윽하다. "법정은 맑아요. 맑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맑음이 옮아요. 가슴속이 눈 쌓이는 밤처럼 시원해요. 좋은 그림 앞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선생은 지난 2월 하순 스님을 마지막 뵈었다. 스님은 보자마자 원願은 여전한데 한계가 있다며 당신은 다 내려놓고 떠날 차비를 하시면서도, 마치 '당신을 뵈면 가슴속이 눈 쌓이는 밤처럼 시원하다' 는 선생 말씀이라도 들은 듯이 "퇴원하면 강원도 눈 보러 갈 것"이라며 농을 던지셨다는데….

대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이 연못에 들어도 물에는 흔적 없네.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0**

민간 정토교의 시조 쿠야(空也)

교토를 중심으로 1100여 킬로미터를 40여 일간 영험한 관음을 모신 사찰을 참배하는 서국(西國) 33개소 순례는 일본의 인기 있는 순례코스 중의 하나이다. 이 순례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관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실 때, 33응신으로 나타나 이 생의 모든 죄업과 고통을 소멸했다는 것에 유래한다. 이 순례의 17번째 코스는 교토 동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육바라밀사라는 사찰이다. 고대 및 중세에 조각된 많은 불상과 인물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 절은 민간 정토교의 시조로 불리는 쿠야(空也, 903~972) 스님이 세운 절이다.

육바라밀사의 보물관에는 유명한 쿠야의 목조 초상조각상이 있다. 진지하고 헌신적인 얼굴과 함께 평범한 백성에게는 친근하고 소박한 옷을 걸친 그는 목에 징을 걸고, 오른손에는 채를 잡고 있으며, 왼손에는 사슴의 뿔이 달린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다. 짚신을 신은 강인한 다리는 대지를 굳게 딛고 있다. 무



육바라밀사 소장 쿠야의 목초상조각상

역병돌자 관음상 태운 수레 끌며 중생구제
신자들에게는 차 공양, 사자에는 염불 공양

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입에서 나온 가는 철사 위에 6구의 아미타 불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열려진 입에서 막 튀어 나온듯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6자 명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후 만들어진 쿠야상이나 그림은 모두 이러한 모습을 띈다. 민중들은 그가 염불을 한 번 할 때마다 입에서 6구의 아미타 불상이 나왔다고 믿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 너무나도 사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쿠야를 '아미타 히지리(聖)' 또는 '이치 히지리(市聖)' 라고 하는 이유를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다. 히지리는 국가의 관승에 대해 반승반속의 민간 승려를 지칭하는 말이다. 스스로 히지리라고 칭했는데, 중세 민간불교의 전파에는 이들 히지리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염불 히지리, 유행(遊行) 히지리, 권진(勸進) 히지리 등으로 불렸다.

쿠야는 민간 속에서 구제행을 펼친 염불 히지리였다. 당시에는 역병이 나돌아 시신을 거둘 방도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쿠야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과 사자들이 공존하는 도시의 한가운데를 관음상을 태운 수레를 이끌며, 한편으로는 징을 치고 염불의 외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차와 더불어 소금에 절인 매실(우메보시)을 공양했다. 교토 동쪽으로 흐르는 카모 강에는 버려진 시신이 산을 이뤘다.

그는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염불을 멈추지 않고 시신들을 화장했다. 그 시대는 제어할 수 없는 유행병으로 인한 무기력과 죽은 자의 혼령에 대한 공포가 도시를 덮고 있었다. 소위 어령(御靈) 신앙이 유행하여, 조정에서는 여러 사찰의 능력 있는 승려들을 모아 혼령들을 조복받는 가지기도(加持祈禱)를 행하기도 했다. 쿠야의 불법에 바탕한 실천행은 마음으로부터 민중의 두려움을 없애며, 더욱이 사자를 손수 거두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외에도 쿠야는 11면 관음상, 범천, 제석천, 사천왕 등을 조각하거나, 〈대반야경〉을 필사해 불력을 기원했다. 그의 이런 원력으로 염불포교 도량인 서광사(西光寺)가 세워졌으며, 이 절이 훗날 육바라밀사가 됐다.

쿠야는 일설에는 당시 다이고 천황의 왕자라고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는 948년 히에산 천태종 좌주(座主) 엔쇼(延昌)로부터 수계를 받고, 코쇼(光勝)라고 하는 불명을 받는다. 학문이 뜻에 맞지 않음을 깨달은 그는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민간포교자로서의 행보를 결심, 스스로 쿠야라 이름 지었다. 그 시대에는 왕족 또는 귀족이 출가해 대사찰을 장악, 불교와 정치권력의 야합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불법의 인연은 멀기만 했다.

그는 앞서 교키(行基)의 전통에서 보듯 도로나 다리를 보수하며, 사찰을 세우고, 가난과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구제했다. 또, 염불행을 하며 면면촌촌을 유행하다가 길섶의 시신을 보면 거두어 화장하기도 하고, 도시의 저자거리에서는 민간구제에 온 힘을 쏟았다. 쿠야의 상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징소리를 울리며 암울한 시대의 공간을 가르는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집집마다 불음(佛音)을 전파하는 자비보살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포교 방식과 관련, 쿠야에게 가탁해 그를 춤염불(踊念佛)의 개조로 보기도 한다. 우란분절에 쿄토를 중심으로 행해진 이를 6재(六齋) 염불이라고도 한다. 매달 8, 14, 15, 23, 29, 30일을 악귀가 출몰하여 목숨을 앗아가는 날로 보고 이날은 징을 치고 춤을 추며 염불을 외웠다. 지금도 민속예능의 형태로 발전되어 전해지고 있다. 쿠야는 이후 14년간을 더 전국을 돌다가 71세로 열반에 들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00% 순수 국내산 !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께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 (고혈압, 저혈압),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년,120년 외 자연 산삼 보유.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 20년근 이상 장뇌산삼 보유.

30년 전통의 산삼취급 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검정필 (분석 51160-150)

“법당의 부처님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제4강 도법 스님

11월 17일 광주 동구 KT 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는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 중인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도법 스님이 ‘〈화엄경〉과 인드라망 무늬 그리고 보현행원으로서의 생명평화운동’을 주제로 〈화엄경〉을 강의했다. 다음은 도법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도법 스님이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에서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도법 스님은 〈화엄경〉이 인생 제일의 화두를 가장 깊고, 높고,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아있는 부처는 응답하고 영험 보인다
화엄경 요체는 본래부처 깨달아 보현행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화엄경〉에 관한 것입니다.

당나라 때 계셨던 청량 국사를 떠나서는 화엄사상과 철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문의 첫머리는 청량 국사가 〈화엄경〉을 찬탄하는 내용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청량 국사는 1200여 년 전 당나라 때 인물인데, 일곱 임금의 스승 역할을 했습니다.

스님은 〈화엄경〉을 “아침 해가 떠오르니 뭇별들이 빛을 잃고, 수미산 우뚝 솟으니 높은 봉우리들이 빛바래네”라고 극찬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밝아지면 별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화엄경〉은 불교의 모든 경전 중에서 태양과 같은 경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청량 스님 화엄경 극찬

왜 〈화엄경〉을 그렇게 극찬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내가 살고 싶은 생명평화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런 물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화두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인생 제일의 화두인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일 먼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대승경전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오게 되면 ‘본래 부처’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선불교로 오게 되면 ‘본래 면목’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물론 여래장사상, 자성청정사상 등 다른 개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했던 것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아독존, 본래부처, 본래면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부처행 또는 유아독존행 또는 본래면목행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하면 그 즉시 생명평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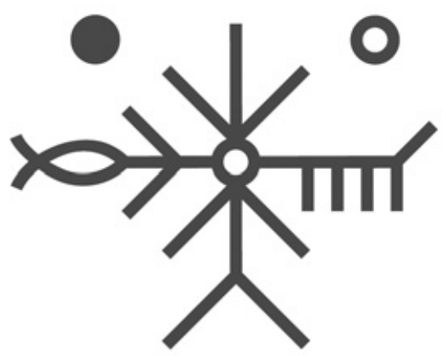
〈화엄경〉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인생 제일의 화두에 대한 설명을 가장 깊게, 가장 높게, 가장 풍부하게,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중무진연기의 세계’와 ‘동체대비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연기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그냥 연기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중중무진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중중이라는 말은 겹겹이란 말이고, 무진이란 말은 무궁무진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겹겹으로 무궁무진하게 서로 관계 맺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중중무진연기법의 세계관과 동체대비행, 또는 인드라망 세계관과 동체대비행, 〈화엄경〉은 이 두 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아독존 본래부처 본래면목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본래부처사상과 보현행원, 본래부처정신과 보현행원 이렇게 표현됩니다.

〈화엄경〉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화엄경〉을 만났을 때 지레 겁먹던가, 아예 허황된 이야기라고 불신하던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단순화 시켜서 누구나 쉽게 만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기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서 〈생명평화경〉을 만들고 인드라망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이 생명평화무늬는 ‘화엄의 사상과 정신, 중중무진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는 ‘중중무진연기법으로 태어난 지금 여기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저 그림 속에



인드라망 무늬

담겨있는 사상과 정신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살고 싶은 생명 평화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내 생명은 내 안에 있지 않다

보통 우리는 내 생명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해 보면 그런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내 안에 있고, 네 생명은 네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상일 뿐입니다. 실상은 그렇게 분리돼 따로 따로 존재하는 생명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연기법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인간적이든, 자연적이든 분리 독립돼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도 분리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 연기법의 사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없는 지금 내 생명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태양과 내 생명처럼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시간, 공간, 정신, 물질, 내면, 외면, 유형, 무형, 인간, 자연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참여하고 관계 맺어서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유 들자면 온 우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낱낱 존재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인드라망세계, 인드라망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중무진연기법의 사유방식으로 또는 인드라망 사유방식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나와 무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 생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생명의 진면목, 내 생명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나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유기적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우주는 한 몸, 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 생명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 것이라는 기득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의지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연기무아’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존재의 실상을 긍정적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본래부처 이런 개념으로 표현 되어 지는 것이고, 부정적 표현 방식으로 하면 연기무아, 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명의 진면목, 내 생명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온 우주는 한 몸, 한 생명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 우주가 동체임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가 내 생명 아닌 것이 없으니 생명은 당연히 소중하게 다뤄야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 하나 하나가 내 생명의 모체들이죠. 그들을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보호하는 것 고마워하는 것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를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고맙게 잘 모시고 섬기는 마음 씀을 동체대비라 표현합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이라 표현합니다. 〈화엄경〉은 언어로 표현하자면 중중무진연기법의 세계와 동체대비행 또는 인드라망 존재와 동체대비행 또는 본래부처의 정신과 보현행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실천해야 불교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기경전에 “출생으로서 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으로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본인의 행위에 의해 천인이 되고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내가 행위하는 대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연결시켜서 만들어보면 부처 행위가 있을 뿐 그 밖에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즉, 행을 하지 않는 한 불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천 있어야 불교

어떤 것이 부처행인가? 초기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을 이야기합니다. “보현행을 하면 그게 곧 부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수행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부처되자 이런 가르침이 아니고, 본래 너는 부처이니 그것을 네가 제대로 써라, 바로 부처로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삶은 자유로워진다, 평화로워진다, 행복해진다는 매우 단순 명쾌한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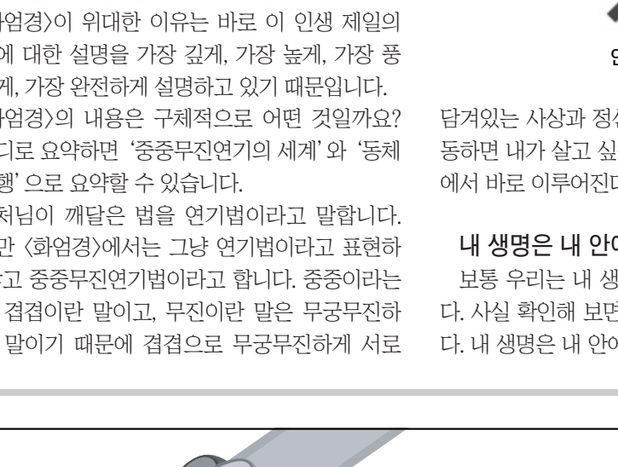
부처란 목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활발하게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 쉬는 존재입니다. 부처는 매우 신비한 존재, 영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의 행위를 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바로 영험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목석이 아니라 매우 영험한 존재, 펄펄 살아있는 존재, 매우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부르면 즉각 대답합니다. 여러분 법당에서 부처님 열심히 부르죠. 대답하던가요? 대답 않지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부처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부처는 즉각 대답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또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부르면 즉각 반응하지요. 부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영험이잖습니까? 바로 바로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습니다. 내가 인사하면 상대도 인사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영험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바로 대답하는 부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도 하고 염불, 참선, 수행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날마다 좋은날입니다.

이게 자비행이고, 보현행이고, 이것이 본래 부처행인 것입니다. 불교를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본인에게 좋고 두 번째 나와 관계 맺은 사람도 좋고 세 번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좋아서 이렇게 마음을 내게 됩니다. 불교가 바로 바로 영험이 나타나는데 즉각 즉각 효험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저는 불교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 당사자도 좋고, 불교도 소위 잘 발전해가고 또 이 세상에 불교가 반드시 있어야 할 종교로 모든 대중들로부터 공감받고 지지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불교를 보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을 하십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요절복통 여래네 집

#35. 유년일기③
〈알람시계〉



스튜디오 돌













이주일의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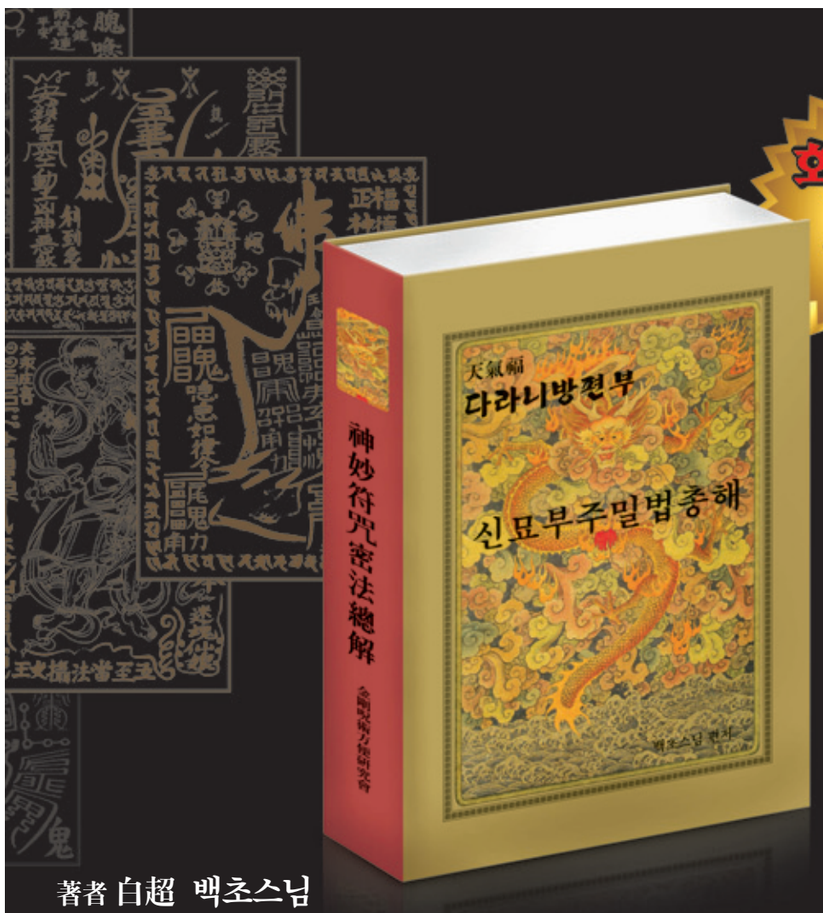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그대 마음 속에….

– 육방예경 –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삶, 그후’ 내년 1월 16일까지



(좌로부터) 불교중앙박물관 지장보살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는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상, 목조지장반가상, 무량사 금동관음보살상

불교중앙博 지장보살 특별전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지장보살 기획특별전 ‘삶, 그후’를 연다. 특별전은 11월 23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16일까지 계속된다. 보물 제279호 선운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동지장보살좌상 등 보물 6점 등 76건 85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제1부는 ‘명부세계, 죽은 자들을 심판하다’를 주제로 육도윤회를 거듭하는 죽음의 세계를 시왕도에 표현되어 있는 지옥관을 통해 보여주도록 했다. 시왕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지은 죄를 죽은 후 최초의 7일에서 일곱 번째 7일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 죽은 지 100일째, 1년째, 3년째 되는 날, 10번에 거쳐 심판해 죄를 씻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육도윤회를 결정하는 심판자이다.

전시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받는 3년간 10번의 재판, 그 곳을 관장하는 시왕들, 심판 이후 받는 각각의 지옥들을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서 관람객들이 불교의 사후세계를 이해하고, 지옥에 대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기림사·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한 시왕도와 동국대 박물관 소장 금동대왕상,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업경대 등 26건 26점이 전시된다.

제2부는 지장보살과 지장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전시관으로 ‘지옥중생 모두 성불할 때까지’를 주제로 마련됐다. 관문사 성보박물관 소장 보물 제966호 〈지장보살본원경〉, 동국대 박물관 소장 목조지장보살반가상 등 지장보살과 관련된 말씀을 담은 경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장보살의 모습, 지장보살과 여러 권속들을 관련된 유물 14건 14점을 전시해 지장보살의 의미와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3부는 ‘죽음, 남은 자들의 이별의식’을 주제로 개인소장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 천도의식과 관련한 의식집과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감로왕 여래도 등 유물 18건 18점이 전시된다. 특히 재의식을 재현해 관람객이 좀 더 쉽게 재회의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4부는 ‘지옥에서 극락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전시는 지장보살이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이라는 데 천착해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매곡동탑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및 불감,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반야용선도 등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이 결합된 유물 18건 27점을 전시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불교의 죽음관은 죽음이 생의 끝이 아닌 다른 생으로의 준비기간으로 인식하는데 있다”며 “지장보살을 주제로 불교의 사후세계관과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쉽게 소개하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올해가 가기 전 꼭 읽어야 할 ‘베스트 10’







〈불교미술의 해학〉(권중서·불광출판사)이 제7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 가장 우수한 불서로 선정됐다.

1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효탄)는 불교출판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권의 도서를 ‘올해의 불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불교미술의 해학〉이 수상했고, 〈그대가 보는 적은 그대 자신에 불과하다〉(고미송·푸른사상)와 〈왜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박금표, 박선영·자음과모음)는 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새롭게 ‘특별상’을 신설했는데, 특별상에는 〈역주 조선불교통사〉(법산, 효탄, 김진무, 한상길, 김치온 외·동국대 출판부)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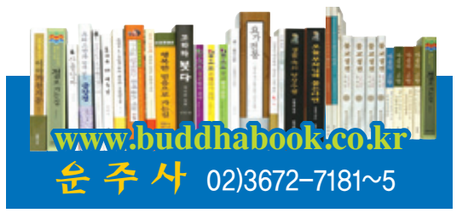
대상에 선정된 〈불교미술의 해학〉은 사찰을 방문하면서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미술작품 속에 깊은 상징적 의미가 숨어 있음을 일깨워준다. 특히 해학적 요소를 소개하면서 불교 대중화를 위한 공헌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대가 보는 적은…〉은 불교의 중관 사상이나 선사상을 받아들여, 대립적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교적 인식론을 보여준다. 〈왜 석가모니는…〉은 사리불과 제바달다의 재판이라는 형식과 가상의 역사법정이라는 장 속에서 진행되는 변론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헌
5	행복한 출근길	법륜	김영사
6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멘크론	하얀연꽃
7	번뇌 리셋	코이케 류노스케	불광출판사
8	정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선원
9	불교성지순례(인도 네팔)	대연	이스트워드
10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윤남진 리뷰

‘플랫폼의 사고’가 필요하다

지면을 통해 독자들을 만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첫 만남에서 필자의 근황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의 격변에 대한 필자의 이해와 그런 변화에 교계가 능동적으로 적응해가기 위해 어떤 발상과 행동이 필요한 것인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전략〉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 이 정도에서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것도 독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 생각된다.

문제의식과 출발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간추리자면 디지털혁명, 집단지성, 지식생태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일반적 예상치를 뛰어 넘었고,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PC는 이제 막 출시되었으니 아직도 디지털 혁명은 계속 중이다.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이 융합하는 미디어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서점가에는 애플, 스티브잡스,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 같은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급기야 〈아이패드 쇼크〉라는 제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두르면 안 된다. 특히 스스로 초보라고 생각되는 조직이나 사람일수록 행동은 빨리 적응하려 움직이되 생각은 뜸을 많이 들여야 한다. 다시 출발의 키워드로 돌아가 보자. 집단지성. 그렇다. ‘다수가 참여해 서로 협력,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새로운 지적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집단지성의 특성은 개방성, 수평성, 공유성이라고 한다. 필자는 집단지성이 발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용이성과 신뢰성을 추가로 들었다. 이용하기 쉬운-이용자가 필요한 것은 대강 알아서 해주는-방식의 서비스이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종교)적으로 당파적이거나 편협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신뢰성을 우선해야 하며, 상업성이 눈에 거슬릴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운영규칙이 중요하고 도구(툴)가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생태계라는 것. 특정한 지식분야가 특정한 집합을 형성하게 되어 독립적인 순환구조가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수준까지 발전,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지식의 집적과 유통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해둬도 무방하겠다. 이 정도가 우리가 출발한 발상지점일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디지털-모바일 혁명에 조응하는 소셜한 구상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볼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플랫폼’이란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 ‘플랫폼’이란 ‘다양한 용도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유무형의 구조물’을 뜻한다. 쉽게 기차의 승하차지역인 철도플랫폼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작업을 하거나 대상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물’로서의 플랫폼 개념이다. 그 외에 상품거래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판매하는 인프라로서의 플랫폼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운영체제(OS), 앱 스토어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구조라는 의미의 플랫폼이 있다.[이상 위키백과 참조]



이처럼 플랫폼은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용한 시스템으로 출발해서, IT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영역의 플랫폼 구축이 용이해지면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필자가 플랫폼 이야기를 꺼낸 것은 플랫폼 사고(platform thinking)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교계의 좁은 틀과 사고를 벗어나서, 적어도 ‘불교적인’이라는 범주를 스스로 넘어서서 ‘종교적인’이라는 수준으로, 더 나아가서 ‘창의발상’을 고양하는 종교적(심적) 훈련시스템이라는 ‘(미래)사회적 수준’으로 사고를 확장해 보자.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공통된 논리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입각하여 가능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공통된 논리와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다. 필자의 학습이나 연재하고 있는 ‘리뷰’는 이처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 어떤 독특한 플랫폼을 구상하기 위하여 사고를 구조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의 맥락(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는 독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자. 이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과거 종교의 독무대였던 ‘죽음’의 세계, 거꾸로 생각하자면 ‘삶의 의미’의 세계로 여행할 때가 되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내생의 일 알려하는가 자작작수만 있을 뿐이다”

☞1면에서 계속

산문 좌우에 쓰인 육조고찰(六祖古刹), 칠조도량(七祖道場)이란 글씨가 복엄사의 역사성을 한 마디로 설명해주고 있다. 육조 혜능대사의 법이 남악회양으로 이어진 도량이 복엄사다. 회양의 제자 마조에서 태동한 마조선(馬祖禪)이 백장에서 황벽으로 흘러가 임제가 임제종을 이루고, 백장에서 위산으로 흘러가 앙산이 위앙종을 이루게 된 것이다.

복엄사는 가람들이 산문, 지객청, 악신전(岳神殿), 대웅보전, 조당(祖堂) 순서로 배열돼 있다. 악신전에는 남악신인 남악성제(南嶽聖帝)가 봉안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자면 산신각의 의미를 띠고 있다. 악신전이 우리나라 산신각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대웅보전 바로 앞에 자리한 것으로 보아 부처님과 남악신이 호형호제하며 동거하고 있는 느낌이다.

마침 복엄사 대중스님들이 대웅보전에서 저녁예불을 시작하고 있다. 상호가 우리나라 부처님과 흡사한 낯익은 삼존불이다. 가운데가 석가모니불이고 좌측이 아미타불, 우측이 약사불이다. 순례자 일행은 중국스님과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예불에 동참하지 못하고 법당 밖에서 합장만 하고 조당으로 향한다.

조당 안에는 복엄사에 주석했던 역대 조사들의 위패가 세워져 있다. 여섯 위패 위에는 개산조사(開山祖師)인 혜사(慧思)와 개법조사(開法祖師)인 회양의 영정이 걸려 있다. 최근에 그려진 영정 같은데 회양의 자비롭고 온화한 성품과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위로 올라간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이 강골의 장수 같다. 정수리가 튀어나온 혜사는 천태종 개조인 천태지의 대사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복엄사 조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혜사의 제자가 된 백제 위덕왕 때의 선승 현광의 자취 때문이다. 현광의 영정이 〈송고승전〉에 남악혜사 영당의 28분 가운데 한 분으로, 또한 국청사 조사당에도 현광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는데, 지금 참배하고 있는 복엄사 조당에는 없다. 혜사선사가 입적하기 10년 전에 진(陣)나라 광대(光大) 원년(567)에 남악으로 와 남악 최초의 절인 반야사(현 복엄사)를 창건하고, 이후 백제승 현광을 맞아들였으므로 남악혜사 조사의 영당이라면 당연히 복엄사 조당을 가리킬 텐데, 현재의 조당에는 현광의 영정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훗날의 마조도 없고, 신라의 본여나 현성도 없지만.

내가 현광 선사의 행장을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이능화가 편찬한 〈조선불교통사〉였다. 〈송고승전〉 권18 감통편(感通篇)은 현광의 득법과 감통, 그리고 백제에서의 교화 얘기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현광 스님은 해동의 웅주(熊州, 공주)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영리하였는데, 문득 세상에 염증을 느껴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 오로지 범행(梵行)을 닦았다. 성장하여서는 바다를 건너 중국에 들어가 선법(禪法)을 구하고자 했다.

이에 진(陣)나라를 두루 살펴보고 형산에 가서 혜사 대화상을 찾아뵈었다. 두 사람이 만나자 만물이 열리고 변화가 이루어져 신해(神解)가 참구되니, 혜사대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은밀히 법화안락행문(法華安樂行門)을 주었다.

현광은 예리하기가 신(神)의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견고해도 다 물리치며, 새롭기가 마치 영겁과 같아 어떠한 더러움도 다 녹였다. 본받아 행하고 부지런히 쉬지 않더니, 문득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증득하고 인가를 청하였다. 혜사가 증명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증득한 바는 진실하여 결코 헛됨이 없다. 마음에 간직하여 법을 증장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거든 좋은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라’ 고 하였다. 현광이 예를 올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강남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해안을 떠나려 할 때 구름이 덮이고 해가 혼란스러웠다. 아름다운 소리가 공중에 퍼지더니 그곳에서 이르기를, ‘천제(天帝)가 해동의 선사를 부른다’ 고 하였다. 현광이 합장하고 사양하였으나, 푸른 옷을 입은 이가 앞을 인도하였다. 얼마 있다가 궁으로 들어갔다. 거기는 인간 세계가 아니었으며 관청의 고방(庫房)과 시위하는 것들이 모두 새로웠고 또한 온갖 귀신을 참례하였다. 또 이르기를 ‘오늘 천제가 용왕의 궁에 내려왔으니, 청컨대 스님은 친히 증득한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부(水部)들도 대사에게 이로움을 입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현광이 보전(寶殿)에 올라가 차례로 높은 대를 밟고 물음에 답하고 담론하기를 대략 7일이 지난 연후에, 왕이 친히 송별하려고 배를 띄웠으나 나아가지 못하였다. 현광이 다시 배에 오르니, 뱃사람이 한 나절을 지났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현광이 옹산(翁山; 계룡산)으로 돌아와 띠풀로 당을 지었는데, 이에 범찰(梵剎)이 이루어진바 메아리가 서로 호응하는 것과 같았다. 법을 얻은 자는 칩거하던 문을 열고, 소승을 즐기던 자는 마음을 돌이켰다. 흠모하는 자들이 개미처럼 연이어 재빠르게 도달했는데, 그 당에 올라가 기별(記別)을 받은 이가 1인,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든 이가 1인, 수광삼매(水光三昧)에 든 이가 2인이었다. 서로 이종(二種)의 법을 좇아 얻어서 삼매의 명칭을 빛냈다. 그 나머지 문생들은 비유하자면 수많은 새가 수미산에 깃든 것처럼 다 한 가지 색이었다.

현광은 말년에 입멸하였으니 왕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악혜사의 영당 안에는 28명이 봉안되어 있다. 그중에 현광이 있고, 또한 천태산 국청사 조사당에도 현광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송고승전〉은 현광 선사가 백제로 귀국하려고 할 때의 신통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제 사신들이 배를 타려고 할 때 현광 선사의 역할이 상징적이고 격조 있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 흥미롭다. 그 무렵 대다수의 구법승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광 선사도 무사항해를 위해 선상법회를 주관했던 것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배가 해안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백제 사신들을 전송하기 위해 행차한 황제의 청으로 현광선사가 배에서 법문했으리라. 황제가 머무는 배는 용왕이 사는 용궁처럼 화려하고 새롭게 꾸며지고, 7일 동안 황제와 용왕, 그리고 수부들을 위해 법문하고 나니 때마침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내용을 감통의 얘기로 환치시키기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복엄사를 나와 혜사 선사의 삼생탑(三生塔)이 있는 곳으로 순례자 일행은 이동한다. 마경대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제법 산행을 했는데도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은 없다. 비구름은 축융봉 정상으로 올라가버리고 형산이 비로소 진경을 드러낸다. 순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사를 쏟아낸다. 혜사 선사도 형산의 비경에 반하여 삼생을 윤회하면서까지 이곳에서 살았던 것일까. 복엄사 구전이지만 삼생탑에 혜사의 해골이 묻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어느 날 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전생에도 나는 이곳 반야사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지. 내가 이곳 반야사로 온 까닭은 전생이 그리워서 온 것이야.”



복엄사 조당에 봉안된 남악혜사 영정(왼쪽)과 남악회양 영정(오른쪽).

혜사는 제자들을 형산의 경치 가운데 가장 빼어난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다시 말했다.

“이곳이 내가 전생에 공부했던 터다. 지금은 아무 흔적도 없지만 내가 토굴을 짓고 공부했던 곳이지. 이곳을 파보면 알 것이야.”

과연 혜사가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땅을 파보니 기왓장 파편들이 나왔다. 혜사는 놀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큰 바위에 이르러 말했다.

“토굴을 짓고 공부하기 전, 전생에는 이 바위에서 공부했지. 그런데 공부하다 죽어 시체가 바위 밑으로 굴러 떨어져 땅에 묻히게 됐지. 파보면 내 뼈가 나올 것이야.”

역시 제자들이 땅을 파보니 해골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바위를 삼생석(三生石)이라고 불렀다. 스승의 금생이 반야사 주석이라면 전생은 토굴 터 정진이고, 또 그 전생은 바위에서 공부했기 때문이었다. 훗날 문도들은 깨친 혜사의 영겁불망(永劫不忘)을 잊지 않기 위해 해골이 나온 그 자리에 삼생탑을 세웠다. 선문의 조사들도 ‘활구 아래서 깨치면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活句下薦得永劫不忘)’ 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혜사는 당나라 때에 이르러 원관(圓觀) 스님이 된다. 원관이 12살 때 이원(李源)거사를 만났을 때 소를 타고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며 불렀다는 노래가 〈당서(唐書)〉에 기록되어 있다.

삼생석 위의 옛 주인이여
달구경 풍월을 말하지 말라
부끄럽다, 정든 사람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전생 내생 일이 아득하여 알 수 없는데
인연을 말하려고 하니 창자가 끊어지려 한다
오나라 월나라 산천은 이미 다 보고
도리어 배를 돌려 구당으로 간다.
三生石上舊情魂 賞月吟風莫要論
慙愧情人遠相訪 此身雖異性長存
身前身後事茫茫 欲話因緣恐斷腸
吳越山川尋已遍 却廻煙棹上瞿塘

이 시의 첫 구절 ‘삼생석 위의 옛 주인’ 이란 혜사 선사이고, 원관은 그 인연을 말하고자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려 한다고 노래한 것이다. 혜사의 삼생탑에 이르니 실제로 혜사선사의 삼생 얘기처럼 세 개의 묘탑이 조성돼 있다. 전생의 모든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영겁불망(永劫不忘)의 경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 마침 복엄사 대중스님들이 대웅보전에서 저녁예불을 시작하고 있다. 상호가 우리나라 부처님과 흡사한 삼존불이다.

삼생탑을 천천히 돌면서 내가 좋아하는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읊조려본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하는 그것이다(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오늘 내가 괴롭고 힘들어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 그런 것이니 금생에 그 업을 반드시 씻어내야 내생에는 편안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니 공부인은 금생이 바빠야 한다. 전생의 밀린 숙제도, 금생의 할 일도 마치고 나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영원히 사라진다. 인과에는 공짜나 요행이라는 것이 없다. 스스로 짓고 받는 자작자수(自作自受)만 있을 뿐이다. 행복이란 절대로 그냥 굴러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계속)

글 정찬주, 사진 유동영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퇴계의 수제자인 서애 유성룡의 위패를 모신 병산서원.

소백산 지나며 영남·호남 가르다

조선조 지역 따라 기호학파·영남학파 양립

백두산에서 남으로 줄달음쳐 온 백두대간(白頭大幹)은 소백산(小白山)을 지나면서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다시 서남쪽으로 향하며 300여 km를 달려 남쪽 바닷가에 이르는데, 그 뻗어내린 산줄기가 영남(嶺南)과 호남(湖南), 호서(湖西)로 갈라놓았다.

율곡 이이(李珥)를 종(宗)으로 하고 사계(四溪) 김장생(金長生)을 조(祖)로 하며 계룡산 주변에서 명문세가를 이루며 살았던 기호학파는 선조 8년에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눠진 이후부터 1910년 망국(亡國) 때까지 335년간 계속된 사색당쟁(四色黨爭)에서 300여 년 간이나 집권당 노릇을 한 서인, 노론(老論), 소론(小論)을 일컫는다.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에서 석학(碩學) 대유(大儒) 수십 명이 나왔는데, 그중 9명이 문묘에 배향되어 유현(儒賢)의 소리를 들었다. 그 9명이 모두 기호학파에 속한 이들이다.

반면에 야당에 해당되는 남인(南人)들은 퇴계 이황(李滉)을 종장으로 하는 영남학파다. 퇴계의 고향인 안동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거지가 당연히 소백산 자락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 27왕 519년의 역사에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자리인 영의정을 모두 164명이 지냈는데 그중 영남학파에 속하는 이는 둘뿐인데, 선조 18년에 65번째 영의정이 된 경북 상주 출신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과 선조 25년 68번째의 영의정에 오른 안동 출신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다.

이것은 조선시대가 기호학파의 노론 중심의 권력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말에 대원군(大院君)은 조선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을, 첫째는 호서지방 즉 충청도의 명문세가 양반들이고, 둘째는 호남지방의 아전들이고, 셋째는 평안도 강계지방의 기생들이라고 했다.

충청도 양반은 기호학파의 집권당으로서 권력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충청도의 내포평야(예당평야)와 평택평야 등 기호지방의 토지를 거의 독점으로 소유하며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어 이것이 나라의 살림을 좀먹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호남지방에 부임하는 관리(官吏)들은 하루빨리 중앙관직으로 가려고 한양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있었다. 고을의 살림은 팽개친 상태여서 아전들이 관리와 백성 사이에서 가렴주구(苛斂誅求)의 행태를 일삼았다. 이 또한 나라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강계미인(江界美人)이 기생이 되어 평양감영(平壤監營)에 소속되면 그 미색에 넋이 나간 관리들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주지육림(酒池肉林)에만 빠져 지내 이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평양기생 이야기는 강계미인이 평양감영에 소속된 기생이라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영남학파인 남인의 거점인 소백산 남쪽 영주, 안동, 상주지방은 대부분의 땅이 험준한 산이다. 들판이라고는 상주평야와 안동의 풍산들 정도이다. 안동사람들은 호남과 호서지방의 너른 들에 비하면 한 뼘도 못 되는 풍산들을 세상에서 제일 넓은 들로 인식할 정도였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4대강 개발사업으로 마구 파헤쳐져 병산서원과 하회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풍산들이 반도 남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계속 파헤쳐지고 있다.

기호학파의 태두 율곡과 영남학파의 태두 퇴계는 학문적 입장도 달랐다. 율곡은 기발이승설(氣發理乘設) 즉 주기설(主氣設)을 주장하고, 퇴계는 이발기수설(理發氣隨設) 즉 주리설(主理設)을 주장하였는데, 여러 학자들의 논평을 종합해보면 우열심천(愚劣深淺)이 백중세(伯仲勢)라는 게 결론이다.

한국전쟁 때 납북된 사학자 현상윤은 그의 저서 〈조선유학사〉에서 퇴계와 율곡을 다음과 같이 비교 평가했다. "연구의 독실한 것과 조예의 심오한 것은 율곡이 퇴계에 못 미치는 것이고, 관찰의 명민한 것과 논리의 직재(直裁)한 것은 퇴계가 율곡에게 사양치 않을 수 없는 점인가 한다. 그러기에 양현의 학문을 건축에 비하면 퇴계는 기초를 닦고 각양 재료를 준비한 이요, 율곡은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장려한 건물을 세워 놓은 이라 볼 수 있다."

학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용호상박(龍虎相搏)이었으나 현실의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 엄청난 세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소백산 남쪽에서 퇴계를 중심으로 학문을 한 영남학파는 기호학파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영남학파라는 것은 경북지방의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인 남인을 말하고 경남지방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명 조식의 북인(北人)은 영남학파와는 다르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손

읍내에 나갔다가 밤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 급히 배추밭에 가보니 배추들이 얼은 채 굳어있다. 포장으로 덮고 방으로 들어오니 겨울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난 가을은 오는 지도 모르게 오고 가는 지도 모르게 갔다. 빠른 흐름 가운데서도 세상은 시끄러웠다. 유별나게 많이 오가던 쥐 이야기보다도 내 시선을 오래 붙잡았던 한 장면이 있다. 아마도 지금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을 사진의 모습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한 장. 난간을 넘어간 아버지와 아들이 막 뛰어내리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방범 카메라에 찍힌 모습이어서 선명하진 않았지만 형체만큼은 분명하게 잡혔다. 사진에서 유난히 내 시선을 잡은 것은 손 하나였다.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똑바로 서 있었고 아들로 보이는 아이는 비스듬히 다리 쪽으로 상체가 기운 상태였다. 기울어진 상체 한편에 난간을 붙잡은 손이 보였다. 난간 너머로 팔을 뻗어내려 밑부분을 꽉 잡은 손 하나.

대학에서 아동발달이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의 과제물 중에 아기가 무엇인가를 꽉 잡고 있는 사진을 찍어오라는 게 있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손에 무엇인가 닿으면 꽉 붙잡는다. 살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는 아이의 행동은 본능적인 행동으로 보였다. 살기 위해 잡을 수 있는 걸 잡은 상태였다. 아버지가 함께 죽자고 할 때 아이도 동의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순간 아이는 죽고 싶지 않았다. 살려고 본능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죽었다. 어떻게 죽었을까?

인터넷신문 기사엔 아들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내리고 아버지가 뒤를 따랐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의 내용이 어떠하든, 아들이 잡았던 손을 스스로 놓은 것 같지는 않다. 먼저 가신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해도 아들은 끝끝내 놓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체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유전자라는 형식으로 구축해 놓았다. 인간은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지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에 자살도 살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요즈음 죽는 사람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이가 자랄 때는 물론이고 다 커서까지 뒷바라지를 하여 사회 내에서 웬만큼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나라의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다. 부모가 없이는 제대로 자라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나가는 데도 불리하기 짝이 없다. 한편으론 사회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기만 하다.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죽는 사람들을 욕하기 어렵다. 죽으려면 자신만 죽지 왜 아이까지 생으로 죽이냐고 탓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죽어간 아이들의 얘기가 더욱 쓸쓸한 여운을 남기는 까닭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나라이건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말을 높이면서도 죽어가는 아이들은 바라보지 않는다.

어쩌면 이 사회 내의 인구는 너무 많은 지도 모른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선 하나의 자식도 많다. 가진 이들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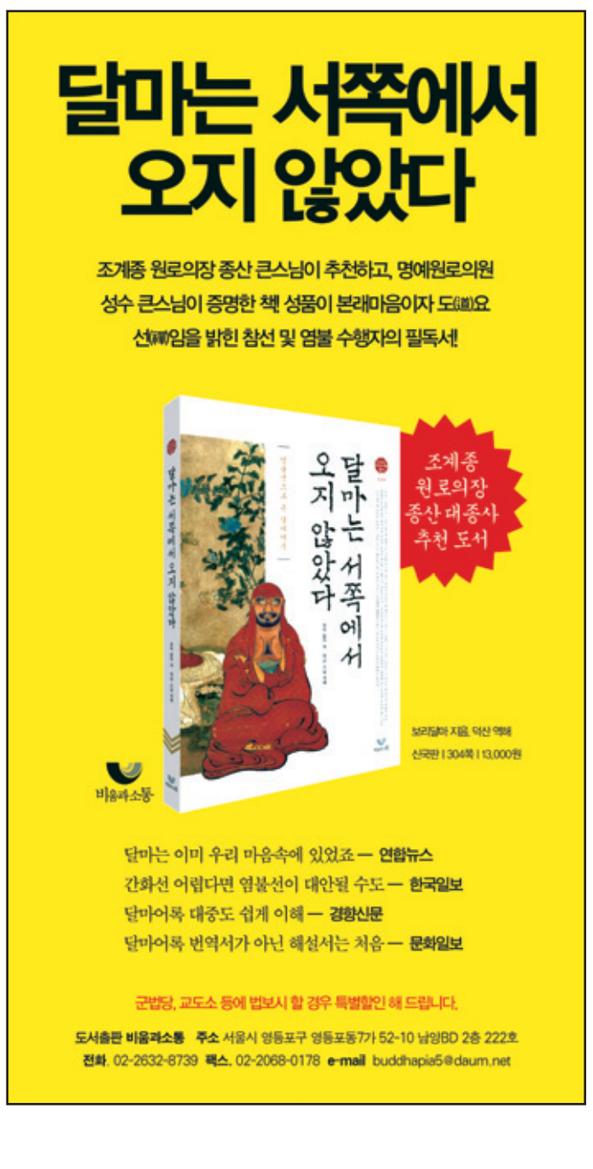
난간을 놓지 않고 있던 아이는 지금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아이도 아니다. 한때 사람이었고, 인간사회의 어린 아이였던 존재. 지금은 산산이 흩어져 이 세상 천지간으로 나아간 사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의 한 알갱이라도 어쩌면 그 아이의 몸일 수가 있겠다. 잘 자라는 말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살고자 하는 아이를 죽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다.

온난화로 겨울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데, 해가 갈수록 겨울이 점점 더 춥다.

시인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당 주지스님 모십니다

- 50세 전후 (법랍 20년 이상)
- 조계종 (승려증 지참)
- 승가대, 동국대 출신스님 환영
-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52-23
- 보수 : 면담 시 결정

051)782-0033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범 음 범 패
실제위주 교육도량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 나비무, 명리풍수
각종 불공 행사전문
1학년 무료강의, 학인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예술원)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각종 불사 상담
단청, 탱화, 개금, 신축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문화재청 화공 기능 보유자
011-9387-1518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할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형편이 어려워 부처님을 못 모시는
스님, 불자님께 은행나무 목불,
지장보살님 좌대 포함, 넉자세치
좌측 도명존자, 우측무득 귀왕 세분,
고급 후불탱화 40평.
어려운 불자님께
조금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010-3650-84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산청 지리산
50-60대, 부부도 가능, 숙식제공
010-3837-8198

공양주 보살님
구 함
▷경남 양산
055)375-01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393-0013
033)461-72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1-9318-3230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053)981-0664
010-2515-066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9308-9919

찾는 사람 : 해남 삼산
석당리에서 출가한 스님
스님 시봉하면서 절 운영할
사부대중. 공양주 행자 포함
시내접한 2500평중 작은 처소
010-4512-4248

60대 초반 비구스님입니다
천년고찰이나 규모가
큰 사찰이나 포교원이 있다면
무보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겠습니다
010-3131-10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보시금 상담 후
010-3188-51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일광
011-553-09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토함산
010-9214-0561
054)776-6005

전통범패 배우면서
함께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마산
016-428-6665

공무원 36년 정년퇴직,
운전면허 1종 소지,
사찰근무 경력 3년
신심으로
근무 하겠습니다
011-716-5885

신기하고 묘한 인연
병원에 가도 치료는 안되
고 본인도이해가 안되며
고통의 시간만 보내는 분
무료체험 : 스님 봉사
송파구 卍 보광사
010-2065-7304

'선서화' 처분합니다
큰스님 선서화 및
희귀작품 다수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052)254-5125

암자, 포교당 구함
종단에서 포교하며
불사가능한 도량을 찾습니다
중부권을 원하니 연락주십시오
한국불교금강선종 포교원장 진오
011-669-925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훌륭한 도량에서
함께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기다립니다.
대중스님 4분
보시 : 월 120만원
02)2658-3100

원력불사 (대웅전)
도반, 반려자 구함
• 50~60세 사이의 불사
능력이 좀 있으신 불심
깊은 보살님
• 무속인 사절, • 산촌 토굴
010-5486-127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40~65세이하, 보시금 최상
거제 사찰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7169-9878

수 행 자 모 집

물질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신의 조화와
안정을 위한 선무도와 무극 봉술,
전통예술 (대금,단소,호적, 학춤 등..)을 연마하고
전통의식 (범패,바라무)을 배우면서
종합심신 수도도량을 같이 가꾸어 나갈 수행자를 모십니다.
동선사 주지 합장
010-9314-095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학력 : 아무 상관없음(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한의원 사무실 051)802-0661 /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불교의식 및 사주(명리) 수강생 모집 [스님, 교임, 포교사]
11월 30일(화요일) 개강
■ 범패, 의식과정 (6개월)
• 불교의식강의 : 오후 4~6시 (화,토) • 사주강의 : 오후 6시30분~오후 8시30분(화, 토)
• 사물 다루는 것부터 바라, 작법까지
■ 사주(명리)과정 (6개월) - 사주 기초부터 전문분야까지
010-8678-6151 무불선원 일산 서구 대화동 하성프라자 701호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지원사
- 법 명 : 지공 (엄외출)
- 법 명 : 혜정 (김성순)
- 주 소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61(60)번지

위 사찰과 위 2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일붕법왕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명리)는 정보다 (명리강의)

인생의 조언자가 되시길
- 속성으로 확실하게, 통변가능하도록
- 주지스님 직접 지도.
- 기간 : 3개월 ~ 5개월 / 주3일 : 월, 수, 금
- 인천 모래내 시장내
032)467-0317

불교문화복지타운 여래원 2011년도 가족모집
- 위빠사나 명상지도자 일반인 모집 (태국 스님 지도)
- 행자(예비스님)모집, 남녀 (현대식 수행방법)
- 기도하시며 절에 지내실 분 (남.여)
055)354-0398, 010-7178-3411
e-mail : skpmt@hotmail.com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규격 가로 7cm 70,000 / 규격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 031)677-995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55평
- 부지 : 8,000평
- 가액 : 9억 5천
  고찰(200년)터에 자리 잡은 전통양식 사찰

- 위치 : 경남 양산
- 법당 : 12평
- 요사 : 20평
- 부지 : 84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경북
- 법당 및 요사: 30평
- 부지: 234평
- 가액: 2억 5천
- 문화재 보유사찰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340평
- 법당 목조 30평, 산신당 1동
- 요사 2층 건물 1동 각 30평
- 주차가능. 심야전기, 바다보임
- 보증금 2억. 월 67만원
- 전세가능 3억

010-6862-1250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군위
- 토지, 임야 638평
- 바로 등기됨
- 가액: 1800만원

011-9585-4908

절(사찰)요양시설
복 지 시 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암 자 안 내
석조여래문화재 있는 암자

- 위치 : 경북
- 삼존불, 법당 및 미륵불 기도실
- 사찰종교부지, 약 300평 외 공유부지
- 가액 : 2억 5천만원

010-6474-5903

사 찰 및 토 굴 안 내

해운대 송정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바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1억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 절

- 대지 : 150평
- 법당(전통양식) 30평, 요사채 50평 2동
- 산신각, 용왕당, 아름다운 연못
- 앞: 바다, 뒤: 공원, 전망 최고
- 가액: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요사채 건물 이전해 가실분

- 목조 한옥건물(홍송)
- 60평
- 10년된 목조건물
- 가액은 답사후 절충결정

010-8731-2758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사 찰(급) 안 내

- 위치 : 김해시 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큰스님 직
- 은행대출가능 4억가능 4억에 몽땅 인수

011-869-860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010-9247-0180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시내
- 법당1(2층), 주방, 방1
-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512-6368

사 찰 안 내

- 위치: 원주
- 대지 3,500평 • 건평 : 300평
- 법당, 요사채, 황토방
- 사회복지 요양원 가능
- 양도, 전세 가능
- 가액: 상담 후 절충

010-2003-3944

사 찰 안 내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 2000여평
- 법당 :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건물 1동, 1층건물 3동(방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 13억
- 꼭 사실분만 전화 주세요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시내인접)
- 대지 약 265평
- 건물 2동, 공양실 별도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 3, 주방, 거실, 화장실 3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3-66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소재
- 부지 : 약 100평(대지)
- 법당 : 25평
- 요사 : 3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 부지 : 800평(대지)
- 법당 : 35평(욕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기타 : 석탑, 석등
- 가액 : 4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터키산 최고급 카페트 글로리아

2010년 신상품으로 정통유럽황실의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불자님의 가정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 고밀도 카페트를 만들기 위해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파일 원사의 두께를 가늘게 제작하여 터치감이 부드럽고, 초고밀도의 카페트로 이물질이나 미세먼지가 끼지 않아 청소가 용이합니다.

· 최고밀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탄력성과 원사 복원력이 뛰어나면 섬유와 섬유사이에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 보온의 효과가 크고 열전도율이 낮아 에너지의 절약과 실내 습도조절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 소재 : 파일 Heatset P,P100%, 뒷면 – 마 100%
· 파일높이 (두께) : 약 9mm · 원산지 : 터키
· 규격 및 가격 : 200 x 290cm / 430,000원
240 X 330cm / 560,000원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0억. 꼭 하실분만 절충가능

011-419-3714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거창 토굴터, 1017평
- 가액 : 1억 2천만원 (대출 4,500만원)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 4층건물의 3층, 50평
- 법당, 삼존불, 방2, 공양간
- 모든 시설완비,몸만 오시면 됨
- 시내 도로변 1, 2층 병원
- 유동인구 많음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는 상담후 절충

010-8315-21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정문 앞
- 3층상가 건물에 2층 법당
- 평수 50평. 방2,주방1,화장실,욕실
- 최고시설, 도심속에 최고위치좋음
- 가액 :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소재
- 부지 : 약 100평(대지)
- 법당 : 25평
- 요사 : 3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포교원 인수하실분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지하철 3번출구 앞 (바로옆 롯데마트에 무료주차 가능)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전세 보증금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절충 및 운영방안 협의가능
- 모든시설완벽하며즉시법회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9230-3097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천호시장 입구
- 6층중 4층 6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흙탱화
- 방3개, 주방, 세면장 에어컨 2대, 전기보일러
- 시설비 3000만원(조절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함

010-9767-41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화명동 신도시A급
- 8층 중 6층 56평
- 법당 27평, 방2, 공양실1, 창고1, 세면실1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이전 불사관계로 급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51)361-1868
010-9105-07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9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A급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
- 대지 105평(텃밭 포함)
- 건평 200평(3층)
- 2층 법당, 주방, 거실,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83-35호
- 평수:54평 (평당 300만원)
- 건물 25평(법당 1, 산신각1, 거실,주방,방2개)
- 시내 중심가에 위치. 깨끗함

011-436-92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 4층건물 중 3층 75평
- 1000/75 시3000 =합 4천만원 버스정류소앞 재래시장30M
- 대명5동 지하철역 30M
- 서울 포교원과도 맞교환원함

053)657-0151
010-2237-763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 2층 총평수 90평
- 법당 30평, 방 6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시설완벽,몸만들어오시면됨
- 주차완비

010-8837-4843

주 택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운전학원에서 북쪽으로 500M지점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천호시장 입구
- 6층중 4층 6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흙탱화
- 방3개, 주방, 세면장 에어컨 2대, 전기보일러
- 시설비 3000만원(조절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함

010-9767-41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화명동 신도시A급
- 8층 중 6층 56평
- 법당 27평, 방2, 공양실1, 창고1, 세면실1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이전 불사관계로 급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51)361-1868
010-9105-07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9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A급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
- 대지 105평(텃밭 포함)
- 건평 200평(3층)
- 2층 법당, 주방, 거실,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83-35호
- 평수:54평 (평당 300만원)
- 건물 25평(법당 1, 산신각1, 거실,주방,방2개)
- 시내 중심가에 위치. 깨끗함

011-436-92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 4층건물 중 3층 75평
- 1000/75 시3000 =합 4천만원 버스정류소앞 재래시장30M
- 대명5동 지하철역 30M
- 서울 포교원과도 맞교환원함

053)657-0151
010-2237-763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 2층 총평수 90평
- 법당 30평, 방 6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시설완벽,몸만들어오시면됨
- 주차완비

010-8837-4843

주 택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운전학원에서 북쪽으로 500M지점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하도읍 경춘46번도로인접, 북한강주변
- 대지 130평, 건평 한옥기와 35평
- 산신각1동, 주지실1동, 요사채, 일주문 목조단청, 목조법당. 지장단, 부처님 동금불3자단
- 일체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됩니다
- 절 경내 은행나무, 비구니스님 적합
- 보증금 5천, 월30만원. 시설비2천만원

011-289-27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단양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
- 평수 : 323평
- 법당 16평, 요사채 46평, 산신각
- 탑, 전망 좋고 운치있는 곳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1억 6천

010-3500-087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당진군
- 대지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신도숙소, 창고, 차고
- 가액: 2억 5천만원

016-417-47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 4층건물 중 3층 75평
- 1000/75 시3000 =합 4천만원 버스정류소앞 재래시장30M
- 대명5동 지하철역 30M
- 서울 포교원과도 맞교환원함

053)657-0151
010-2237-7631

대 사찰 안 내

- 위치: 부산
- 대웅전 108평, 무량수전 50평 외 강당, 요사
- 부대시설 현대식 완비
- 부지 3800평, 주차 동시 80대
- 가액 : 37억
- 가능자 면담

010-9580-371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포교활동 적지
- 대지 : 149평
- 법당 : 20평 단층기와
- 요사채 기와(2동)
- 가액: 4억 7천만원 (개인사정으로 양도)

011-811-5466



김경현 원장의 **몸·마음 이야기** 보약과 보법

내 몸에 맞아야 진짜 보약

보약이란 한방의 특수용어로, 막연하게 몸이 좋아진다는 개념의 술어가 아니다. 인체의 생리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병은 없지만 허약한 상태를 도와주는 약이 바로 보약이다. 보약은 전신세포의 동화작용에 관여해 그 작용을 항진시키고 온 몸의 영양 상태를 향상시켜 떨어진 체력을 회복시켜 준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보약은 드물다. 체질과 병의 증상,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이 요구된다. 체질과 몸의 상태에 맞게 보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보기(補氣) 보혈(補血) 보음(補陰) 보양(補陽)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네 가지가 보법(補法)의 기본이 돼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구성하게 된다. 권태가 쉬 오며, 말하기도 싫고 움직이기조차 귀찮으며, 숨이 미약하고 땀을 잘 흘리는 사람은 보기법(補氣法)을 쓴다. 대표 약재는 인삼 황기 마 삽주뿌리 꿀 대추 감초 등이며 처방으로는 사군자탕이나 보중익기탕 삼령백출산 삼기건중탕 육군자탕 등이다.



안색이 누렇고 말랐으며, 손발톱과 입술이 창백하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을 잘 타는 사람, 귀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 심장이 잘 두근거리고 여자의 경우 월경 양이 적거나 불규칙적인 사람의 경우 보혈법(補血法)을 쓴다. 대표 약재는 숙지황 백작약 당귀 하수오 용안육 등이다. 처방으로는 사물탕 대영전 쌍화탕 십전대보탕 고진음자 인삼양영탕 당귀보혈탕 등이 있다.

몸이 마르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며, 피부가 몹시 건조하고 작은 일에도 잘 놀라며, 잠이 잘 안 오고 마음이 허전하며, 잘 때 땀 또는 정액이 흐른다거나, 기침을 잘해 해소증·객혈증 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음법(補陰法)을 쓴다. 약재로는 구기자 사삼 맥문동 석곡 별갑 구판 황정 등이 있고 보음처방으로는 육미지황탕 자신환 가감보음환 자음대보환 등이 있다.

허리 밑의 아랫부분이 한랭하고 허리와 무릎 등이 마르고 약하며,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고 아랫배 쪽이 가끔씩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며, 정력 감퇴, 조루증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양법(補陽法)이 적용된다. 약재로는 녹용 녹각 해구신 합개 자하거 육종용 파극 보골지 음양곽 익지인 두충 토사자 사상자 등이 있고 처방으로는 팔미환 우귀음 용부탕 녹용대보탕 등이 있다.

밥을 먹지 않고 군것질을 주로 하는 어린이, 각종 유행성감기에 잘 걸리고 감기를 앓고 난 후에도 열은 없으나 기침을 연발하며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는 어린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귀룡탕이 좋다. 귀룡탕은 녹용과 당귀만을 배합한 것으로 보혈효과를 얻을 수 있어 어린이 체력보강을 위한 강장보약으로 가장 좋다.

그러나 전신기능을 활발하게 해 주고자 할 때는 체질과 부족한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약재를 더해 복용해야 한다. 온갖 경쟁 속에서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 열심히 일해 기반을 굳혀 놓고 보면, 어느새 육신은 마음과 다르게 노화된 것을 느끼게 된다. 이때 보약은 세포의 분화작용을 촉진시켜주고 쇠퇴해가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며 각 기능이 산화되는 작용을 방지하는데 탁월한 반응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삼이 바로 이런 작용을 한다.

남자의 경우 기(氣)를 보하는 기본처방으로 사군자탕(四君子湯)이 좋다. 장수를 한다는 것은 정력 또한 뛰어남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면 진기(眞氣)를 잘 다스리고 북돋워줘야 한다. 진기란 바로 신기(腎氣)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보약이 연령고본단이다. 연령고본단은 토사자 육종용 천문동 맥문동 생지황 숙지황 산약 두충 등 많은 약재가 들어간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나 수험생에게는 육미지황탕과 귀비탕 청뇌탕 등의 종류가 좋다. 신경을 많이 쓰고 체력소모가 가중돼 영양상태가 좋지 못할 때, 피로를 이기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체력보강과 신기에 도움을 주는 보약이다.

보약을 장수의 목적으로 쓰자면 동의학적인 원리에 따라야 하고 나이, 양과 기간을 옳게 정해야 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을 통한 올바른 생활태도와 마음가짐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정미화 원장의 **건강한 구강 관리법**

교정·미백 땐 라미네이트 등 시술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미치료라 하면 예쁜 치아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심미치료는 단순히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만드는 목적의 치료가 아니다.

보철치료, 교정치료, 잇몸치료, 수복치료, 신경치료, 외과치료, 방사선학, 심지어 젖니 치료까지도 환자의 심미적 치료를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만큼 치아의 아름다움을 넘어 전체적인 구강 건강의 회복과 일상의 자신감 회복까지 신경 쓰는 포괄적 치료를 의미한다.

심미치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치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라미네이트이다.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바깥 표면을 얇게 삭제한 후 손톱모양 형태의 도자기로 된 인공치아를 삭제된 면에 접착시키는 치료법이다.

자연치아의 색을 그대로 재현하고 치아의 모양과 크기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치아의 삭제 량이 많지 않아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은 치료방법이다. 종전의 레진 치료법보다 강도가 우수하며 수명 또한 오래간다.

라미네이트 시술은 치아교정과 미백을 급히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급속 교정술로 이용되기도 하며, 치아 형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약물 복용이나 불소로 인한 치아변색, 앞니의 사이가 벌어진 경우, 치아가 약간 회전되거나 마모 등으로 인해 모양이 예쁘지 않을 경우 시술되는 치료법이다.

두 번째는 올세라믹이다. 올세라믹은 라미네이트와 달리 치아의 모든 면을 골고루 삭제해 도자기로 된 인공치아를 완전히 씌우는 방법이다. 치아 삭제 량은 비교적 많지만 치아의 마모나 파절 정도가 크거나 넓어 심미성과 강도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당한 치료법이다.

기존에 주로 했던 치아 안쪽에 금속이 들어가고 도자기로 씌어주는 형태의 보철물은 빛이 투과되지 않아 자연치아와 같은 투명함을 재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올세라믹의 경우 투명성과 강도가 한층 더 강화된 심미적인 보철물이다.

세 번째는 레진인레이이다. 레진인레이는 어금니에 충치가 있는 경우 충치를 제거한 후 정밀 인상을 채득해 기공과정을 거쳐 제거된 충치부위를 수복하는 충치치료 방법이다. 기존의 아말감이나 금인레이에 비해 자연치아와 색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심미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합치의 일방적인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병원에서 바로 때우는 레진치료와는 재료성분과 제작 과정에 차이가 있어 더욱 단단하고 정밀한 수복물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레진이다. 일반적으로 레진치료는 누구나 한 번씩 받아본 치료법이다.

레진이란 치아식과 동일한 일종의 수지계열(플라스틱) 재료로, 기존치료에 비해 치아 삭제 량을 최소화 하고 심미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료의 특성상 넓은 충치나 치아모양의 수복에 있어서는 내부의 미세 기포나 표면의 미세 요철로 인해 변색의 우려가 있다.

연우치과 (02)733-1030



Dr. 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나쁜 자세가 복부 비만 부른다

배가 나온 형태는 남녀에 차이가 있다. 여자는 배와 허리까리 벨트형태를 띠며 처져있는 반면, 남자는 둥근 동산처럼 볼록 나와 있다. 보통 복부비만은 모양에 따라 '단지형'과 '붕어형'으로 구분한다. 배와 허리 전체가 불룩하게 살이 찐 단지형은 배 부위 피하에 지방이 축적된 피하층 비만이다. 반면 배만 볼록하게 나온 붕어형은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차있는 내장형 비만이다.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복부비만에 쉽게 노출돼있다.

붕어형은 내장형 비만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내장 사이의 지방세포는 피하지방에 비해 혈액 속으로 더 쉽게 유입돼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각종 성인병의 주범이 된다. 복부의 지방 세포는 다른 부위 지방에 비해 염증 인자와 응고촉진 인자를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다.

잦은 음주는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은 대표식품이다. 알코올 1g당 7kcal의 열량을 내는데,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한 가지도 들어 있지 않으면서 다른 영양소의 대사까지 떨어뜨려 비만을 유발한다. 게다가 술을 마실 때 곁들이는 안주로 인해 칼로리가 높아지기 쉬우며, 불규칙한 식사와 야식습관, 자기 전에 먹는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된다.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활동량이 적어지면 소모되는 칼로리가 줄고, 운동부족으로 인해 근육량도 줄어든다. 이것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같은 양을 섭취해도 쉽게 뱃살이 찌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으로 복부비만의 주범 중에 하나이다.

또한 대부분 직장인들이 장시간 의자에만 앉아 업무를 보거나, 운동부족으로 인해 복부비만 외에도 나쁜 자세로 체형불균형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척추, 골반, 다리 등에 블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허리가 가장 많이 약해 질 수 있는데, 비만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허리를 곧게 세워 바른 자세로 앉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는 경우가 많다.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약 15% 허리가 약해질 확률이 높다.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척추와 주변 근육이 받는 하중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출산 후, 뱃살이 늘어나는 것은 살이 찐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수유를 위한 구부정한 자세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복부비만은 일단 체중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그러나 체중이 불어나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체형 또한 망가지고 뱃살은 더욱 늘게 된다. 나쁜 자세로 인해서도 복부비만은 일어날 수 있으며, 체형, 척추와 골반의 비틀어짐을 해소 한다면 복부비만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1544-9697

불자정보 811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보령시
- 총면적 1300여평,
- 법당 35평, 산신각 15평
- 소법당 15평, 요사채 30평
- 대형버스 15대이상주차 가능하며, 산세가 수려하고 앞들에는 지장보살님이 굽어살피사 주변에는 보령냉풍욕장이 위치하여 신도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찰입니다.
- 가액: 5억(절충가능)

070-4076-3408

암자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 대지 120평, 삼존불, 집기일체
- 가액: 월세 5만원
- 몸만 오시면 됨
- 불사관계로 급 안내

010-7476-9002

작은암자안내
- 위치: 용인시내 중심지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단독주택

010-2414-4984

토굴터안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중간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미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시내 중앙 산밑
- 최고요지 남향
- 대지 186평
- 법당, 목조, 신축 25평
- 요사 2동 26평
- 주차 10대 가능, 지하수 사용
- 가액: 4억 5천만원

018-554-6198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횡성 근교
- 전망좋고 댐과 접해 있음
- 사찰터로 최고 적합
- 요사채2, 주택2
- 가액: 3억

011-369-415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문현동
- 5층건물 중 3층 34평
- 주방, 방3, 화장실, 예불탱화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시설완벽, 살림일절
- 시설비: 상담 후 약간 (진짜 저렴하게팜)

010-2680-5404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중구 국제시장
- 4층건물 41평, 법당, 종무소
- 5층 옥상
- 건평 약 30평, 방 4개(요사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보시고 절충

010-4840-3939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2층 30평, 법당, 큰방, 주지실, 영가단 삼존불, 소불60불, 신중 산신탱화
- 영가단 LED, 전기간판
-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1-549-3821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 대지 : 2000평 (법당뒤 편백나무숲 1300평 포함)
- 건물 : 법당 25평, 산신각 20평, 요사채 25평
- 요사채는 거실 2개, 작은방 3개 (각방 에어컨, 욕실완비)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625-140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부지 960평, 법당 20평
- 산신각 5평, 요사채 20평
- 종무소, 공양간 30평
- 석불아미타불 10분, 관음상1분
- 연못 갖춰져 있음
- 가액: 2억 3천만원

010-3352-3651

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시내 중심가
- 대지 95평, 건평 100평
- 법당 35평, 방4, 거실, 화장실
- 미륵부처님 1분, 삼층석탑 1 삼존불, 108후불
- 산신각, 산업용전기보일러
- 가액: 2억 8천만원 (절충가)

010-8121-33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 A급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하세요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주택터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호계면 별암1리 314번지
- 밭 3600평
- 분할가능
- 전원주택가능
- 가액: 평당 50만원

010-9283-7847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⑭ 중국 불교가 피어난 땅, 낙양



정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낙양 일대서 출토된 북위 시대 화려한 불상 중 일부분이다. 당시 낙양의 영녕사 9층탑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한 자태여서 낙양성 100리 밖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그 탑에 오르면 눈 아래 안개구름 사이로 집 안뜰의 구석구석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했다.

용문석굴 조상기에서 드러났듯 500년대 초반 중국 낙양 땅에 나타난 불교의 모습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낙양은 후한시절(A.D 70년)에 불교가 전래돼 중국 최초의 사찰과 최초의 승려가 머문 땅으로 알려져 있다.

낙양의 불교는 북위인들이 이 곳으로 천도하며 급격히 발달된다. 마치 통일신라 시기 불국토로 표현됐던 경주와 같이 말이다.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는 이러한 화려한 불교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한다.

영녕사 건립으로 북위불교 정점

양현지(楊衒之)는 547년 경 이 책을 쓰며 전란으로 불타버린 낙양땅에서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한다.

〈낙양가람기〉에서 양현지는 '황제가 천명을 받아 낙양에 도읍을 정하자 독실한 불교신자가 많아져 불법의 교화가 더욱 성행했다. 왕후나 귀족들은 신발을 벗듯이 코끼리와 말을 바쳤고, 평민이나 귀족들은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듯 재물을 희사했다. 그리하여 사원이 즐비하게 됐고, 탑들이 나란히 늘어서게 됐다. 사찰은 드높았고 불경을 강의하는 법당은 아방궁처럼 장엄하였다. 어찌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옷을 나무에게 입히고, 붉은색 자주색으로 흙을 채색하는데 그쳤을 뿐이겠는가.' 라고 기술하고 있다.

〈낙양가람기〉의 기록대로 낙양은 엄청난 불교문화를 자랑했다. 흙까지 채색했다는 묘사에서 살필 수 있듯이 당시 낙양의 불교는 절정기에 다다랐다.

북위 세종 선무제의 연창(延昌) 년간(512~515)에 중국 전국의 사찰 수는 모두 13,727곳이었다. 이것은 효문제 태화(太和) 원년(477) 6,478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약 40년 동안에 북위 영토 내에 사찰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불교교단이 급속히 증가하고 불교신앙이 깊이 침투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수도 낙양에는 금색 찬란한 대가람이 건립되고 불교의례가 화려하게 거행됐으며, 불교는 지배계급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깊이 퍼졌다.

이러한 낙양 불교문화의 정점은 동아시아 최대 탑을 보유한 영녕사(永寧寺)의 건립이라 할 수 있다. 〈위서〉 '석로지' 는 영녕사의 건립에 대해 '희평(熙平) 년간(516~527)에 성안 서쪽에 영녕사를 세웠는데 영태후(靈太后)는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초석을 깔고 찰간(剎竿)을 세웠다' 고 전한다.

불탑은 9층으로 높이가 120m나 되었다. 건립 비용 역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다. 이 절은 534년 북위가 멸망하던 해에 벼락을 맞아 대화재로 불타버렸다.

현재 낙양 땅에는 당시 북위의 열망을 담은 영녕사의 잔재가 고스란히 묻혀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영녕사지를 발굴해 1996년에 보고서가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탑의 방형 기단의 가로, 세로는 각각 38.2미터였다고 한다. 규모면으로 보아도 어마어마한 불탑이 당시 낙양의 하늘에 솟아 있었을 것이니 그 위용은 말로 하지 않아도 미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59

불일암의 적막



불일암으로 오르는 대나무 숲길은 바람이 다니는 길이었다. 사람의 발자국보다는 수군거리는 바람소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길이었다.

불일암 대나무 숲길은 침묵이 고이는 길이었다. 어떤 언어도 그 바람소리 앞에서 뜻을 가질 수 없었다.

발자국도 없이, 언어도 없이 걸어간 숲길 끝에 불일암이 있었다.

부처님 모신 집 한 채와 밀짚모자 벗어놓은 요사 한 채가 가랑비에 젖고 있었다.

한 동안 불일암에 살았던 법정 스님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고 했다. 새들이 떠난 적막한 숲처럼 스님이 떠난 암자는 적막했다. 숲에 남은 적막도 암자에 깃든 적막도 모두 떠난 이가 남긴 분명한 흔적이었다. 적막도 흔적이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1도 선남선여발원억토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아미타불의 국토에 태어나려고 발원했거나 현재 발원하거나 미래에 발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극락에 태어나므로 모든 선남자, 선여인 등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여야한다는 내용이다. 정토왕생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 장면을 판각했다. 화면의 왼쪽에 아미타부처님이 새겨져 있으며, 그 앞에는 비구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이 발원하는 모습이 판각돼 있다. 이 도상은 13번째 목판 원판의 후반부에서 14번째의 목판 원판 절반 이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아,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세계에 나기를 이미 발원(發願)하였거나, 지금 발원하거나, 장차 발원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無上正等覺)에서 물러서지 않고 극락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장차 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마땅히 극락세계에 날 것을 발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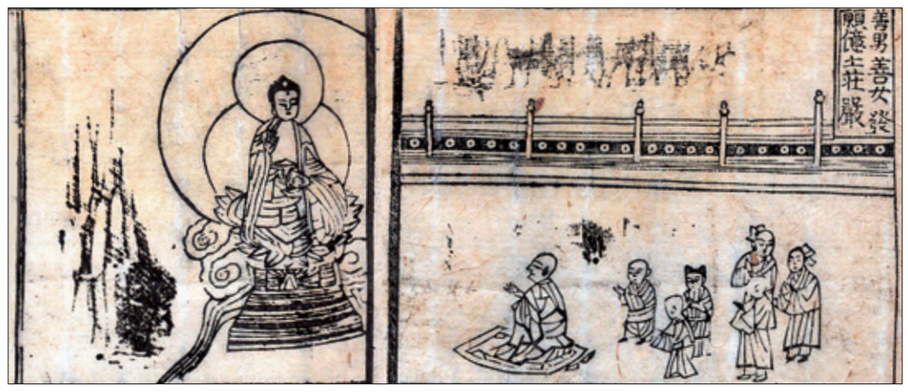
(舍利弗 若有人 已發願 今發願 當發願 欲生阿彌陀佛國者 是諸人等 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於彼國土 若已生 若今生 若當生 是故舍利弗 諸善男子善女人 若有信者 應當發願生彼國土)

믿음, 발원, 수행은 정토 수행법의 '세 가지 자량(資糧: 여행의 비용과 식량)' 이라고 한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행 중 필용한 의약, 식량, 의복,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듯이 정토수행자들도 굳은 발원을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수행이 없는 믿음과 발원은 공허하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발원이 없는 수행은 기준과 방향이 없어 길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믿음, 발원, 수행은 먼 곳에서 정토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량(資糧)' 이 된다. 결국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중생들은 먼저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는 원을 발해야 하고, 원을 발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염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믿음과 발원과 수행은 바로 한 몸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믿고 의심 없는 발원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염불 수행하여야 한다. 아미타부처님의 위신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혜에만 매달려 선(善)을 닦아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여 자유가 없는 칠보의 방에 갇히지는 말 일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1도: 선남선녀발원억토장엄(善男善女發願億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불자용수저 "다라니"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 사찰에는 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사찰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인데 대부분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 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는 만들 때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오래 사용하면 긁히고 달아 보기도 싫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자주 교체를 한다. 다라니 수저는 기존 수저를 대폭 보완, 인체 친화형 디자인으로 잡았을 때 손이 편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며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전 공정을 국내 제작하여 재질도 최고급 스텐 27종을 사용 명품 수저로 만들었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단청문양"과 "옴"자를 넣었다.

"다라니수저" 신제품 출시기념
공장도가 3,000원 시판

2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 제작해 드리며(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있다. 다라니 수저는 백화점에서 Set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공장도 가격 set당 3,000원에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 50Set, 100Set 단위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믿음과 신뢰 고영산업

그 신비한 힘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치우천왕 검색

신비한 힘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터지는 치우천왕 조상천도 도자기 출현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 250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치우천왕 도자기는 상품번호 제 40-0812033호 이므로 무단 복제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대행 스님

무슨 일이 닥치든 근본에다 놓고 굴릴 줄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하고 책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문난 점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 또는 죄업, 이런 것에 전부 다 젖어 있는데 이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또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구제받을 수 없다 하는 첫 문제와 그다음 두번째로는….

큰스님: 한 가지씩 해요! 먹는 것도 퍼 넣으면 체하지 않아요? 따지고 본다면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얘기해 드렸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분담이다, 내세울 게 없다.' 했죠? 그렇다면 그 업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네? 업 붙을 자리도 없고 애고 붙을 자리도 없고 병고 붙을 자리도 없는데 여러분의 관습 때문에, 여러분의 습관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도 '아이구, 손이 있다지?' 하하하…, 요것부터 머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무슨 공장을 하는데도 '아, 고사를 지내야 된다더라.' 하는 요 습관, 또 '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 하는 그 습, 착! 이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그런 관습, 습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던가요?

이 허공은 탁 트였어요. 지붕도 없고 상하사방이 툭 터졌어요.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댁의 집을 갔다 오려고 해도 갔다 올 수 있죠, 네? 지구를 벗어나서 달 태양 뭐, 다른 어떤 혹성에도 한 찰나에 갈 수 있고 한 찰나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마음이에요. 한 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심성 안의 천안으로 인해 가고 옴이 없이 볼 수 있는데, 이 눈은 그대로 천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이 끌어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업이 붙을 자리가 있을까요? 모두가 여러분 관습 때문이고 어리석은 의심 때문이고 들어온 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살아나가는 게 이러니까 이래야지.' 이것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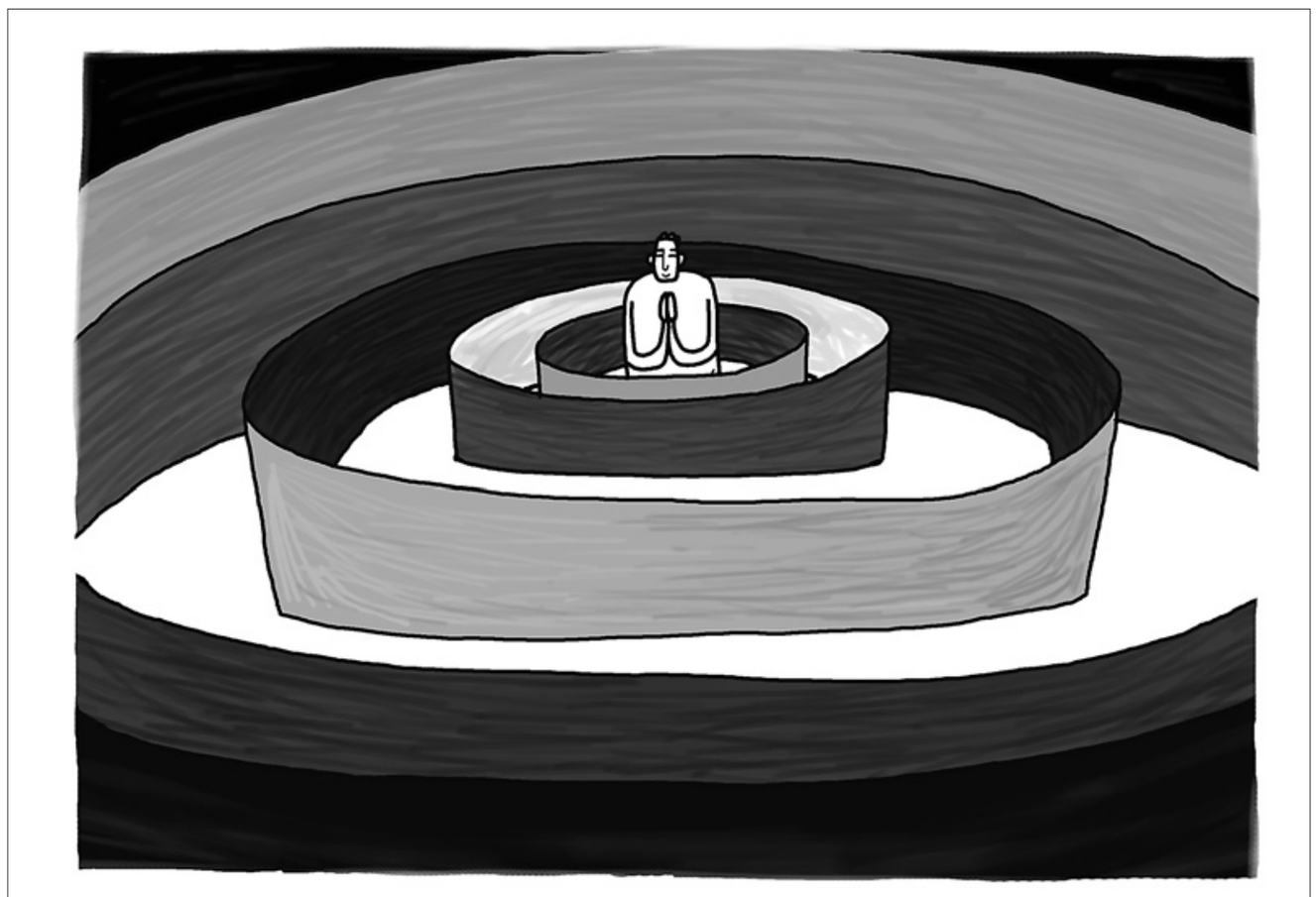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의 의식들이 몸 안에 전부 들어 있다. 그것이 쉴 사이 없이, 좋게 한 거는 좋은 것이 나오고 언짢게 한 거는 언짢게 나오고, 이렇게 그냥 수시로 나오는데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 놓는다면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거를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남습니까? 무엇이 닥치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네가 한 것이니 네가 해결해야지.'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아라 이 소립니다. 놓고 굴릴 줄을 알아라. 애고가 들어오면 '애고가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애고가 없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 그래야 앞서 입력되어 술술 나오던 게 다시 입력을 하니까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런 소립니다. 자세히 가르쳐 드렸습니까?

질문자2(남):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 닭 소, 이와 같은 동물도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에 사람으로 한 번씩 되었는지, 또 미래에 죽어서 다시 또 사람이 되는지, 이런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십시다. 허허허…. 물과 물이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을 다 거기다 놔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기면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아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습이 주어져 있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모습이 주어지는 겁니다. 즉 미래가 현실로 다시 오니까 미래의 그 모습은 현실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으로 든다.' 이런 소리는 뭐냐 하면 만약에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 독사 굴에 들어가서 독사로 태어나면 독사의 습이 그냥 배서 당최 인도환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로다가 수없는 나날을 그렇게 돕니다. 개구리로도 되고…, 오간지옥이다 한다면 그냥 땅속에 묻혀서 사는 벌레 있죠? 그러니까 국내 밥내도 못 맡는 아주 그런 곤충이 됩니다. 이건 오간지옥고를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순간순간 바뀌집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도 내가 잘하면 잘한 게 오고 못하면 못한 게 금방금방 옵니다. 그건 에누리가 없어요. 우연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잠깐잠깐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서 그냥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회사가 융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 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사의 윤회에 걸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씀씀이에 따라서며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질문자2(남):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인지?

큰스님: 실제입니다! 아니, 실제지 실제 아닌 걸 어떻게…, 그게 어떻게 방편입니까? 정말 실제입니다! 정말 에누리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전자에 살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 부(父)와 현재 자기 자(子)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돼 있습니다.

질문자2(남):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구원은 육체가 멸한 후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부처님의 그 본원력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그럼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리지요. 아버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살이를 하시죠? 만약에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가방을 싸 짊어지고 나갔다 한다면 아버지가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하다간 부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억지로 하

☞ 26면으로 계속



마음의 스위치는 모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 25면에서 계속

질 않고 간접적으로 잘 해서 오게끔 만듭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싸 짊어지고 나가서 좀 경험을 해 보고 '아, 이건 막다른 골목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연결해서 부러짐이 없이 다시 돌아서 들어오게끔 해서 건집니다. 그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한 것이 뭐냐? 가는 거를 잡지 말고 오는 거를 마다하지 마라. 가는 거를 그대로 둬야 막다른 골목인 줄 알고 다시 되돌아올 때가 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 왜? 잘못하는 사람은 항상 잘못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잘하는 사람도 항상 잘하기만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서 그냥,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이끌어 나간다면, 남과 내가 이익하도록만 이끌고 간다면 그대로이라 했거든요.

그러니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한 것은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를 비유해 본다면, 고집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그냥 악착같이 요렇게 하겠다고 덤벼들 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그거 내버려 둬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보면 또 싸 짊어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선 들어오게 되는 일이 많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달아나가는 그 마음 자체, 막 들이덤비고 화내고 그럴 때, 그때를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던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이제 인연에 따라서 또다시 돌아올 테니까 느긋하게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질문자3(여):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공부 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 쟤들도 자기 씨앗이 있겠지.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걸 보면 '저 애들도 자기 씨앗은 있지만 내가 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싹이 잘 트도록 하는 물과 거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아직 나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제대로 씨앗을 싹트게 할 수 있는 물과 거름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전깃불이 여기 여러 군데 들어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곳이 다 밝죠? 그래서 전력은 똑같아요, 학생들이나 댁이나. 씨앗은 똑같다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자가발전소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고 안 켜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달려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아, 저놈들 저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말로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커지지요. 그러니까 싹이 커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항상 그 씨에 수분을 주고 흙을 골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싹을 틔워 주는 거라고요. 싹을 틔워 주고 그다음엔 그 싹이 길러지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좋은 역할을 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는 한 스위치만 올려도 불이 전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밝게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스위치는 그렇게 모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전체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과 댁이 그것쯤이야 연결이 안되겠소?

본원에 선생님들 팀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팀에서 하는 말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방송국에 나가서 어린이들 가르치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공부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도 영리하게 아주 잘해 나가더랍니다. 지원마다 체험담을 다 써 오너라, 일기처럼 써 오너라 그랬더니 그렇게 잘했더랍니다. 그렇게 싹이 잘 길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그만 애들 때부터 그렇게 관하는 도리를 길러 주면 어디다가 내세워도 손색이 없고, 이다음에도 말입니다. 끝끝내 자기 뿌리가 자동적으로 이끌어 주게 되죠. 이리로 가서 망할 거라면 저리로 가게 하고, 말을 잘못할 거라면 말을 잘하게 해서 말과 말을 조절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게끔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묘법은 잘 모를 거예요. 해 보세요.

대중 가운데서: 공부를 못하잖습니까?

큰스님: 그거는 대신 먹어 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먹고 그대로 배가 부르듯이 그렇게 하셔야죠.

질문자4(여): 저는 지금 물만 먹어도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배가 아프고 숨이 차서 말도 못하겠거든요.

큰스님: 연방 감자 생즙도 내서 먹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영양제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자3(남): 영양제 하루에 두 번씩 먹습니다.

큰스님: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이 말입니다, 스님 노릇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주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 나처럼 못난 사람을 볼 때는 너무도 가슴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어려요. 내가 못난 건지 잘난 건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이 인간으로 살면서 돌아가는 본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님 노릇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는, 자나깨나 쉴 사이가 없고 자나깨나 정신력이 항상 그대로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차만별로 들고 나는데 말입니다, 새 물이 들어왔다 헌 물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 새 물로 갈고 연방연방 이렇게 하는 대치 역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시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받은 사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또 준 사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아신다면 참 영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만금을 갖다 줬어도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이가 없습니다. 이거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가게 물건 사러 갔을 때 돈 갖다 준 예가 있습니까? 물건을 가져오고도, 네? 물건 사러 갔으면 물건 사 왔으니까 돈 준 사이가 없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또 돈 받은 사이가 없죠? 준 사이도 없고 받은 사이도 없어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조사께서 말입니다, 누가 천도를 시켜 달라고 왔는데 천도비를 가져온 걸 가지고 재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보니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방을 못 얻고 거리로 나앉아서 모두 옹기종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줘 가지고 방을 얻게 해 줬거든요. 그러고서는 물건을 못 사고 그냥 왔는데 천도를 안 시켜 주느냐고 자꾸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도를 안 시켜 줬다고 생각을 하면 도로 돈 가져가라." 그랬답니다. 나도 그래 본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하하….

어느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가발 통상을 하는 집인데요, 아주 망하고 망하고 자꾸 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꾸면 꼭 조상들이 그냥 엉겨 붙어서 싸우고 뭐 야단들이랍니다. 절이라는 절은, 좋다는 데는 다 가서 천도를 시켜도 꿈을 꾸면 여전히 또 대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싸우다간 도로 들어온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돈을, 그때 화폐 개혁 되고 얼마 안 돼서니까 몇십만 원도 많죠? 그때 3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그거는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그때 치악산에서 내려와서 얼마 안 되어서예요. 아니 뭐, 절도 없죠. 신도 집 사무실 방에 그냥 앉아 있었으니 갖다가 주는 것만으로도 '참, 저 사람이 뭘 보고 이러나?' 하는 생각에서 참 감동이 됐죠. 감동은 했지만 천도를 해 달라고 갖다 주니 어떡합니까?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았던 방석에 놓고 절하고 가라고 그랬죠. 아, 그랬더니 투덜투덜해요. 그럼 도로 가져가라고, 왜 투덜투덜하느냐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참! 배짱이 참 두둑하신 스님이네." 이러고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놨던 걸 집었다가 다시 놓고선 절을 하고 갑디다. 가더니 그날 저녁 꿈에 모두 그냥 구름을 타고 전부 올라가더랍니다. 아, 그러고는 그 가발 통상이 그냥 불 일어나듯 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부터 "참, 묘법이라는 것이 다 우리들한테, 우리 마음에 주어져 있군요!" 하면서 그렇게 와서는 절 짓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그것도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두 여래고 절이 여래의 집인데, 여러분의 집인데 왜 내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네? 다 공동 분담인데. 여래 집을 만들려면 나도 애써야 하고 여러분도 애써야 하고…. 여러분이 다 여래 아닙니까? 여래의 집을 만들려면 다 공동으로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도 참, 개원식을 하고 그랬는데 한마음으로 이렇게 이룩하셨으니 여러분의 그 정성과 결단이 아주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만들겠다고 처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룬 그분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감사할 건 없지만 말이에요.하하하!

또 질문할 분 없습니까? 하여튼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해 드린 거를 참작하셔서 '우리는 어디에고 병고도 애고도 붙을 자리가 없다. 내가 한 게 없다. 나는 그렇게 수십억의 내 모습과 내 생명과 의식이 있고 나는 혼자 한 게 하나도 없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한 거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다 맡기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는
한 스위치만 올려도 불이 전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밝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체벌보다는 이해와 설득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체벌금지 논란으로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학생생활지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교권이 실추되고 교실이 붕괴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체벌금지정책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인 만큼 다소의 혼란은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학교와 가정 및 사회가 인내심을 가지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일종의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논란의 이면에는 이른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전통적 사제관이 지배하고 있던 학창시절을 보낸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이 극복하지 못한 일종의 과거 지향적 향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다소 불순한 의심도 해보았다. 당시에는 용모가 단정치 못하고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각하고 결석했다는 이유로, 시험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연애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등 참으로 많은 구실로 매타작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들 별다른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자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의 매이자 어쩌면 교육적인 필요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친구연필 훔쳤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 등으로 어머니나 어버지에게 매를 맞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이 하나 혹은 둘 밖에 되지 않는 핵가족이 많다보니 가정에서부터 엄격한 훈육을 받고 자란 아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싫든 좋든 과거와는 다른 사제관계를 교사와 학생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체벌금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은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과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잘못을 차근차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경우를 되돌아 봐도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올해 고3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필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냅다 소리부터 지르고 혼내다가 심지어 때리고 싶은 마음까지 든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이의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를, 호흡을 가다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본 적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던 것이다.

필자의 경우 어느 날 부터인가 아들놈을 아버지라는 권위의 이름으로 통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덩치도 나보다 크고 각종 정보매체에 실시간으로 노출돼 있어 어쩌면 아는 것도 나보다 더 많을지 모른다는 일종의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이다. 처음에는 옛날을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고 아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그러자 반신반의하던 아이도 차츰 아버지의 입장을 수긍하려는 눈치였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모르긴 몰라도 힘은 들겠지만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체벌의 즉각적 효과와 편의성보다는 매를 들지 않고도 학생지도가 가능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각오를 거듭 가다듬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도가 안 되는 학생이야 누가 어떻게 하겠는가? 한 마디로 말해 지금의 상황은 필자와 같은 기성세대들에게 그동안 아이들을 대하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자식세대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사부대중 칼럼

선오 스님
만불선원 주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라

〈육조단경〉에 법달(法達)이라는 스님이 나온다. 홍주 사람인 스님은 7살에 출가해 항상 〈법화경〉을 읽었다. 어느 날 법달 스님이 6조 혜능 대사를 찾아와 절을 했다. 그런데 머리가 땅에 닿았다.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 절을 한 스님을 혜능 대사가 준엄하게 꾸짖었다.

"절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머리 숙이기가 그렇게 싫으면 하지말지 뭣하러 하느냐? 네 마음 속에 필시 무엇이 하나 들어 있는 모양인데 무엇을 익혔느냐?"고 힐문했다. 그러자 법달이 답하기를 "〈법화경〉 외기를 이미 3000독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은 "네가 설령 1만독을 외워 경의 뜻을 통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도리어 허물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내 게송을 잘 새겨들어라."

절은 본래 아만을 꺾자고 하는 것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나(我)라는 것이 있으면 허물이 생기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한량없는 것을.

혜능 스님은 법달 스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다.

가을도 다 보내고 동안거 결제의 철이 돌아왔다. 다시 3달 동안거가 시작됐다. 불교에서는 아만을 제일 경계한다. 그래서 하심을 강조하고 끝없이 마음을 낮추라고 말하고 있다. 수없는 세월동안 많은 사찰에서 산림(山林)을 주제로 법회를 열어 왔다. 신중산림, 화엄산림, 법화산림, 금강경 산림이라고 불리어 오는 법회가 있다. 이때 산림이란 말이 들어간다. 이 말은 "나라고 하는 아만의 큰 산을 확 꺾어 버리고, 공덕의 숲을 길이 길이 길러가야 한다(摧折人我山 長養功德林)"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이다. 행자 시절이나 강원 학인시절에 누차 들어왔던 말들이다. 위에서 보듯이 법달 스님은 경전을 외웠다는 아만심과 득의양양함으로 가득찼었다. 마치 덕산 스님과 용담 밑의 떡 파는 노파와의 일화처럼 단박에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내용이다. 혜능 스님은 그에게 외우는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을 쉬지 못하였다는 것을 가르쳤다. "침묵이 부처임을 믿는다면 입에서 저절로 연꽃이 피리라." 한 일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의 취지를 알아 버린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음을 설파하였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부류들을 많이 만난다. 선원 수좌이든 학인이든 참으로 본질을 외면하고 허상과 껍질을 뒤집어 씌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네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으라"라는 직지인심의 법문이 더욱 가슴 선연하게 다가오는 계절이다. 찬바람에 북풍한설에 뼈를 에이는 한기를 참고 어묵동정의 선정을 참구하는 불가(佛家)의 아름다운 계절이 문을 열고 있다.

세상은 온통 시끄러운 니전투구의 속으로 빠져들지만 우리 불문은 적막함을 배경으로 수행의 계절로 치닫고 있다. 입으로만 화두니 구두니 하면서 알맹이 없는 말들을 쏟아낸다. 정치인이든 누구든 구두선(口頭禪)을 남발하고 그 본질조차도 모르는 시정잡배들이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주변사람과 민초들의 삶을 비참하게 짓밟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궤도를 무작정 달리고 있다. 그 누구하나 제동을 걸거나 뭐라고 할 인사나 지도자가 없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으로 묵묵히 관조하며 번뇌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궈야 할 사람들은 불조(佛祖)의 제자들인데 전도망상된 세상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삶의 궤적과 결실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을 두드려 낮추고 끊임없이 절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려보고 아픔을 겪어 보고서야 얻어지는 참된 마음, 간절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결실들이 아닐까. 진정 우리들이 불조의 골수를 얻고 설산 동자와 혜가와 같은 위법망구의 자세로 세상 앞에 나서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자신을 낮추어 돌이켜 보는 회광반조의 삶을 살자. 너무나도 쉬운 이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부처님의 두광(頭光)은 중생들의 번뇌무명을 밝혀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의 아만은 서기어린 부처님의 광명이 아니라 자신과 불교를 죽이는 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 설

정화운동이 남긴 얼룩 씻어내야 한다

불교정화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들이 지난 1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념사업 내용을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동국대 前 정각원장 법산 스님 등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교단의 중진들이다. 스님들은 기자회견에서 불교정화기념회관 복원, 기념일 제정 및 정화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당장 24일 학술세미나도 연다. 50년 전 정화운동의 깃발이 된 당시의 전국승려대회를 기념하려는 뜻이다.

한국불교는 일제치하를 거치며 취처를 강요당했고, 수행은 등한시되었다. 아예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편입시키려 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올곧은 조선의 불교로 거듭나야 했다. 흐트러진 승풍을 바로잡고, 후학을 길러내고, 수행과 포교를 뒷받침할 교단조직과 공간으로서의 사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정화운동의 취지를 다시 드높이는 것은 오늘의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취지가 옳았음에도 정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종단 난립, 폭력의 악순환을 낳은 뿌리가 정화운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구-대처 간 물리적인 충동을 빚는 와중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님 행색을 갖췄고, 이들이 그대로 사찰에 주저앉았다. 정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드러내어 씻어내야 한다. '오늘'의 정화는 무엇인지 찾아내고 실현해내지 않으면 그 이름만 빌려오는 꼴이다.

고작 사흘 열고 폐회한 정기종회

11월 9일 개원하고 첫 정기회를 열었던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가 16일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종정감사 기간을 빼면 본회의를 연 날은 고작 3일이었다. 대입수능시험을 앞두고 입시기도가 있어 단축했다는 것이다. "종회의원이라면 종단발전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돼있어야 한다. 항상 사찰 행사로 회기가 단축되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종단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종정감사에서도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활동이 부족하다 ▷교구본사가 단위사찰 역할만 하는 곳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삼스런 지적이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부에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찾기 위한 토론을 벌였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구간에서 있었던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갔어야 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총무원 · 포교원 · 교육원 등)의 1년 예산액이 일반 · 특별회계 합쳐 323억원 정도다. 이 액수로는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예산 확보의 묘안을 찾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는 것도 모자라는 상황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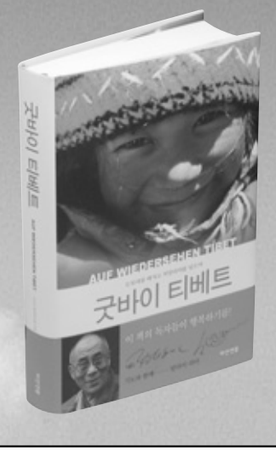
개원 며칠 만에 폐회한 것을 두고 15대 중앙종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서는 안되겠지만, 종도들로부터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은 분명해보인다. 중앙종회 역할을 높이기 위한 종회의원들의 자성이 요청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보시용 추천도서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가장 많이,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법화경 독송!

유려하고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되어 새롭게 태어난 우리말 법화경!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역/국판변형/금장/630쪽/18,000원/운주사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불교서점 개설
도서관 납품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달라이 라마가 추천한 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슬프고도 재미있는 이야기!
굿바이 티베트

죽음을 무릅쓴 망명길, 낯선 망명지에서 맞아야 하는 처참한 삶.
그러나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역경과 고난이 때로는 위대한 스승이 된다.
마리아 블루멘크론 지음, 김화경 옮김/국판양장/384쪽/13,000원/하얀연꽃


핫키퍼 발열내의

국제공인인증기관 한국의료시험연구원(KATRI)시험검사필

난로보다 훨씬 낫다 온몸이 후끈후끈~

입기만해도 뜨끈뜨끈 3.3℃~5.6℃까지 상승시켜주는 기능성 발열내의

현장근무, 군인, 경비, 시장상인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낚시, 골프, 야외활동에 안성맞춤
•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겨울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골프나 등산, 낚시, 조깅 등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추위에 민감하다. 이런 계절에는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지고 여러 난방 기구들을 준비하지만 출, 퇴근 시간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은 좀처럼 피할 수 없다.

겨울철에 내의를 입게되면 체감온도가 1℃~ 2℃까지 올라가지만 움직임이 둔하고, 뚱뚱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입지 않으려고 한다.

첨단기술로 특허 받은 발열내의

핫키퍼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자체 기능성 발명특허(특허번호: 10-0863991)원단을 소재로 만들어져 입고 있기만 해도 체감온도가 3.3℃~ 5.6℃까지 상승하며 뛰어난 신축성과 초경량의 무게로 신체의 유연성까지 확보해 주는 발열내의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주)MFT에서 출시한 '핫키퍼 3.3'은 순수한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9년간 연구개발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기적같은 발열섬유로 이슈화된 상품이다.

'핫키퍼3.3'은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발열 기능성 조형물로 인체에 무해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피부와 접촉하여 혈류량을 높이고 미세한 기모가 피부와 마찰하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온열을 지속적으로 보온해 주기까지 한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해 세탁에도 발열 기능성이 오래 유지된다.

입은듯 안입은듯 얇고 가볍고 뛰어난 신축성

또한 스포츠 의류의 경우 운동시 발생하는 땀을 즉시 건조, 배출시켜 신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핫키퍼 3.3'은 통기성이 좋고 땀흡수력이 뛰어나며 자체 항균기능이 있어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다. 콜라겐과 포도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핫키퍼3.3'은 50여가지의 피부테스트를 거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도 아무런 자극이 없다.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특허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성적서를 통과하여 검증된 '핫키퍼 3.3'은 입기만 해도 난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체감온도를 높여주고 99%이상의 자외선 차단효과와 정전기방지 효과, 원적외선 효과까지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디자인이 뛰어난 본래 기능인 내복으로 입어도 좋고 멋스러운 부츠에 레깅스로 센스있게 연출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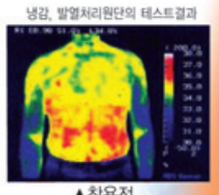
일상생활은 물론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매일 출, 퇴근하는 직장인, 건설현장, 노점상, 택배기사 등 추위와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이나 스키, 골프, 등산 등 겨울철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방한복과 맞먹는 체감온도 상승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발열내의 '핫키퍼 3.3'은 상의와 하의세트를 **파격가 6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2세트 구입시 130,000원**에 추가할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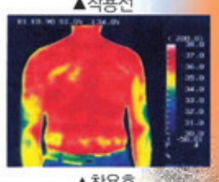


상·하의 세트
69,800원
〈택배비 무료〉

냉감, 발열처리원단의 테스트결과



▲착용전



▲착용후

특허번호 : 10-0863991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 특허

• 색상 : 검정색, 진회색(S, M, L, XL)

■ 구입문의 : 080-840-7000
■ 농협 : 317-0002-3339-31 (주)오투넷

FUJIKA
2011년 최신형

추워지면 생각나는 브랜드!! 40년 전통 그명성 그대로 난로 전문메이커

인터넷주문 www.nanronara.com

후지카온풍겸용명품전기히터

고유가시대! 기름대비 60~70% 연료비절감!



2011년 FUJIKA STOVE 正品 MADE IN KOREA

초강력 온풍기능의 강력난방, 촘촘한 2중 안전망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FUJIKA S-3600(온풍) 15~20평형 59.4㎡
▶정격접압 : AC220V/60Hz ▶중량 : 12kg
▶소비전력 : 3,300W ▶사이즈 : 465×465×690mm
(업소 및 사무실용)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1㎾×8=1,683원
특별할인가 188,000원

따뜻한 겨울, 후지카와 함께 하세요~

올 겨울은 엄청난 추위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지카 히터가 그 해결책입니다!
절전형 설계로 전기세 절감은 물론 상황에 맞는 온도설정 기능으로 평소에는 약하게, 추울때는 강하게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거부! 후지카는 다릅니다!"

- 2단계/3단계 온도설정으로 전기세 절약형 전기히터
- 동급최강의 성능(우수한 발열력과 열효율을 자랑)
-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3중 안전망 /화재 안전장치 장착
- 무연,무취,저소음의 웰빙 청정난방 기능
- 탄소섬유 가열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100% 국내생산 제품으로 항시 A/S 가능

간단한 다이얼 조작으로 손쉽게 강/약조절 가능

FUJIKA A-1800 5~7평형 19.8㎡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1,8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가정용) ▶방식 : 세라믹코일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특별할인가 98,000원



FUJIKA AF-3000 12~15평형 42.9㎡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3,0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사무실용) ▶방식 : 세라믹코일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0㎾×8=1,630원
특별할인가 148,000원



FUJIKA SA-1800 5~7평형 29.7㎡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1,8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가정용) ▶방식 : 탄소섬유발열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특별할인가 148,000원



FUJIKA SAF-3000 15~20평형 59.4㎡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3,000W ▶사이즈 : 450×450×750mm
(업소 및 사무실용) ▶방식 : 탄소섬유발열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0㎾×8=1,630원
특별할인가 198,000원

• 탄소히터란?
동급전기히터에 비해 2배의 열효율이 발생되며,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방출량은 기존히터에 비해 약 3배 많은 최첨단 발열체입니다.

고효율 탄소관램프를 사용하여 열전도율을 극대화 했습니다. 기존의 원적외선히터나 할로겐히터에 비해 열효율과 열전달율이 더욱 좋습니다.

후지카 SAF-3000만의 특별한 기능인 온풍시 바람을 불어내주는 송풍구입니다. 히터기능은 기본! 온풍기능으로 후끈하게 사용하세요.

간단한 다이얼버튼으로 손쉽게 온도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무소음! 무냄새! 무연료!
용량은 같아도 난방효과는 2배!

삼성화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이런 곳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무실, 가정,식당, 교회, 사찰, 골프장, 스키장, 공장, 학교 카센타, 야외시설, 체육관, 유치원, 학원, 병원, 미용실, 약국, 새벽시장, 피부관리실, 포장마차, 지하상가 등 난방이 필요한 곳

※멀티탭을 사용하지 마시고 콘센트에 직접 꽂으세요.

A/S 100%국내생산과, 확실한 A/S보장!
생산부터 검수 판매까지 논스톱 시스템으로 최저가보장!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탄생한 완벽한 제품 후지카 믿고 구입하십시오!!!

주문전화: 080-840-7000
• 전국무료배송 입금계좌 : 농협 317-0002-3339-31 (주)오투넷